


제360회 이사회 의사록

건명	1. 의결안건 제531호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2. 의결안건 제532호 제8기 EBS 이사회 직무 수행의 연장에 따른 이사장 직무 수행 연장 확인 3. 보고안건 제2024-17호 2024년도 9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상정자	1. 사장 김유열(제531호, 제2024-17호), 2. 이사 김선남, 이사 문종대, 이사 박태경, 이사 조호연(제532호)		
일시 및 장소	2024. 9. 26.(목) 15:03 ~ 18:10, 18층 대회의실 2024. 10. 10.(목) 15:00 ~ 16:44, 18층 대회의실		
출석 인원	이사 9명	결석 인원	없음
참석자	유시춘 이사장, 강규형 이사, 김선남 이사, 류영호 이사, 문종대 이사, 박태경 이사, 신동호 이사, 이준용 이사, 조호연 이사		
회의 결과	1. 제531호 : 공개, 원안 의결 (찬성 5명으로 의결) 2. 제532호 : 공개, 원안 의결 (찬성 5명으로 의결) 3. 제2024-17호 : 공개, 청취 접수	기록자	간사

위 의결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연서 날인함.

2024년 10 월 17 일

이사장 유 시 춘  (인)

이 사 강 규 형  (인) 이 사 김 선 남  (인)

이 사 류 영 호  (인) 이 사 문 종 대  (인)

이 사 박 태 경  (인) 이 사 신 동 호  (인)

이 사 이 준 용  (인) 이 사 조 호 연  (인)

제 360 회

이 사 회

- ◆ 일 시 : 2024년 9월 26일(목) 15시
2024년 10월 10일(목) 15시
- ◆ 장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한국교육방송공사 본사 18층 대회의실

한국교육방송공사

회 순

I . 개 회 1

II . 인사 191

III . 전 차 의 사 록 확 인 189

IV . 상 정 안 건

〈의결안건〉

제531호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168

제532호 제8기 EBS 이사회 직무수행의 연장에 따른 이사장 직무수행 연장 확인 ... 145

〈보고안건〉

제2024-17 호 2024년도 9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181

V . 폐 회 195

(개회 : 15시 03분)

I . 개 회

○ 의장 유시춘

사무국장님, 성원보고 해 주십시오.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이사 아홉(9) 분 전원이 참석하셔서 이사회 규정 제7조에 의거,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였기에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전국언론노동조합 EBS 지부 박유준 위원장, 박성섭 사무처장, 김은희 사무국장, EBS 교육뉴스부 황대훈 기자 등 모두 4명입니다.

○ 의장 유시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

○ 이사 이준용

잠깐,

○ 의장 유시춘

제360회 이사회를

○ 이사 이준용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유시춘

개최합니다.

((의사봉 3타))

○ 이사 이준용

아니, 이사장 임기는 원칙적으로 9월 14일로 종료됐습니다.

오늘 이사회는, 오늘 이사회는 이사장이 진행하면 안 되고, 유시춘은 오늘 아홉 분의 한 사람인 이사일 뿐입니다. 여기서 의장, 임시의장도 호선으로, 아니면, 선출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해야 되고, 지난번 이사회도 359회인가 전 회의에서 거의 대부분 참석하기로 했는데, 다수라 그럴까, 아니면 신문지상에 보면 ‘야권’이라고 썼더라고 야권 이사들이 불참하는 바

람에 이사회가 성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책임을, 또 그거에 대한 사과를 분명히 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 진행 방법부터 논의해 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시춘

다른 이사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 이사 류영호

저도 마찬가지로 이준용 이사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분명 9월 13일자로 이사장의 임기는 끝났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난 사람이 이사장이라고 회의를 진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의장을 호선하든지 또는 선출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회의 개최 자체가 지금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문제부터 우리가 회의 개최 전에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유시춘

예. 또 다 의견 들겠습니다.

○ 이사 강규형

발언하겠습니다.

○ 이사 이준용

아니 그런데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 논의할 적에는 사장과 감사와 부사장만 계시고 다른 사람은 물렸으면 좋겠습니다. 집행간부들은, 실·국장, 본부장들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사항 있을 때는 배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사 강규형

있어도 뭐..

○ 이사 이준용

상관없습니까?

○ 이사 강규형

괜찮겠..

○ 이사 이준용

그러면 뭐, 예.

○ 이사 강규형

제가 그동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정관, 그다음에 한국교육공사법, A기관 정관 등을 통해서 해당 사항을 얘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언제나 반박 자료를 제시하겠다고 하면서 한 번도 안 했어요. 전번 이사회는 또 아예 안 나오셨고 아니, 반박자료나 근거를 제시를 하고 뭘 강행을 하더라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거 없이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이게 가당한 얘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법은 지켜가면서 좀 해야 되고, 제가 요청한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의 임기 연장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 정관과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이사장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A기관은 있고요. 그 이유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사장 임기가 연장된다는 규정을 제시를 하시고 하셔야지, 그거 없이 그냥 넘어간다는 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그리고 B사도 알아봤더니 B사도, B사는 아시다시피, A기관과 우리는 아예 체제가 다르고요. B사와 EBS는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거기 이사회가 지금 어떻게 지금 구성되고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결코 자동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B사 예를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사는 지금 7명이 새로 뽑히고 4명이 이사 임기가 연장이 된 상태인데, 그러면 기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기수가 사실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있다고 하면 다음 기로 넘어간 상태에서 연장이 된 거예요. 그 4명에게 있어서는 이 기수가 연장이 된다고 보는 게 합당한데, 우리는 지금 전원이 연장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 기수와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이게 비상 상황에서, 임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B사 이사가 4명이 임기 연장이 됐고 이사장이 C 변호사로 있는데, 그냥 연장이 된 게 아니고, 연장된 이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호선을 해 가지고, 같은 분이긴 합니다만 절차를 통해서 C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근거 조항, 이사장 임기가 연장된다는 근거 조항을 제시하면 다 받아들이겠어요. 다 받아들이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시춘

예. 또 다른 분 말씀하십시오.

○ 이사 류영호

아니, 지금 이사.. 의장의 회의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 이사 이준용

회의 진행이 문제가 있는 거고,

○ 의장 유시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 이사 류영호

회의 진행을 하지하시고, 우리끼리, 우리끼리,

○ 의장 유시춘

잠깐만, 다른 분 말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 이사 류영호

아니 아니, 의장이 아니에요. 아닌 사람이 자꾸 뭘 누굴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 이사 강규형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의장이 되시려고 하면 규정에 따라서 이사장이 없을 경우는 최연장자가 임시의장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그래도 유시춘 이사께서 의장을 맡을 수가 있는데,

○ 이사 이준용

아니 아니, 그것도 맞지만, 지난번에 8기 이사회에 이사들이 9명이 임명받아서 여기 왔을 적에 임시의장을 누가 할 건가를 거기에서 논의해 가지고 추천해 가지고 동의 받아 갖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그 이사가 이사장을 뽑는 절차를 밟은 겁니다. 그럼 지금은 이사장이 없는데 유시춘 이사가 이사장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 이사 강규형

물론 그렇죠, 그거는.

○ 이사 이준용

8기의 EBS 이사회 직무 수행의 연장에 따른 이사장 직무 연장 확인 건, 안전에 올라 왔습니다. 그럼 지금 이사장이 없는 겁니다. 의결사항입니다, 이게.

○ 이사 강규형

지금 제가,

○ 이사 이준용

이렇게 충돌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지.

○ 이사 강규형

규정을 지금 다 갖고 왔으니깐요, 제발 좀 법대로 좀 하시죠. 이거 다 제출을 할 테니까, 이렇게 얼렁뚱땅하지 말고 법대로 하시죠.

○ 의장 유시춘

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 이사 류영호

법대로 진행, 법대로는

○ 의장 유시춘

아니요.

○ 이사 류영호

진행하시면 안 되고,

○ 의장 유시춘

다른 분 의견도 들어보셔야지요!

○ 이사 류영호

왜냐하면,

○ 의장 유시춘

류영호 이사님!

○ 이사 류영호

아니, 세 가지 이유로,

○ 의장 유시춘

아니, 다른 분 의견도 들어보셔야지, 혼자서만 말씀하십니까?

○ 이사 류영호

아니, 세 가지 이유로 회의 의장이 될 수가 없어요.
첫째, 9월 13일로 이사장 임기가 끝났고, 둘째,

○ 의장 유시춘

그 전제에 동의하지 않은 분도 계시니까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 이사 류영호

지난, 지난 임시이사회 소집자가, 소집자가 ‘유시춘 이사장’ 명의로 소집해 놓고 안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 이사장이라는 것을 스스로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신 거고, 그다음,

○ 의장 유시춘

제가 제안하지 않았습시다.

○ 이사 류영호

아니, 제안을 했지만 이 임시이사회를

○ 의장 유시춘

법에 따라서 소집한 거예요.

○ 이사 류영호

소집을 누가 했어요, 소집을?

○ 의장 유시춘

그러니까 류영호 이사님,

○ 이사 류영호

이사장 명의로 했던 말이에요, 그 당시 이사장 명의로.

○ 의장 유시춘

다른 이사분들 좀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 이사 류영호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 이사 문종대

그냥 두세요. 말씀하시니 두세요, 그냥.

○ 이사 류영호

그다음에 회의 안건에 이준용 이사님이 얘기한 것 같이, 회의 안건에 그쪽에 해당되는
진영에서 회의 안건 자체에 그걸 올려놨는데 오늘 그 회의 안건이 본인하고 관련되는데
어떻게 의장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지.

그래서 3개의 이유로, 3가지 이유로 안 된다고 봐요, 저는.

○ 의장 유시춘

예. 다음, 다음 분 말씀하십시오.

○ 이사 조호연

이사장 임기가, ‘이사장 임기’라는 말이 법에 있습니까? 이사장 임기 만료는 법에 있어요?
이사장 임기 만료를 규정한 법을 좀 제시를 해 주시죠.

○ 이사 이준용

아니, 그럼 이사장 연장에 대한 법 규정을 하고, 이사는요, 방통위에서 EBS에 통보할 적에
'21년 9월 14일부터 '24년 9월 13일인가 14일까지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호선해서 선출합니다.

○ 이사 조호연

아니, 먼저,

○ 이사 이준용

그럼 그 사람은 임기가 끝나면 끝난 겁니다. 그리고 9월 14일, 15일부터는 우리가 그냥
이사입니다. 그래서 이사장은 다시 호선을 해야 그게 정답입니다.

○ 이사 조호연

아니 그러니까,

○ 이사 강규형

아니, 그러면요, 조 이사님,

○ 이사 조호연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저도 얘기를 할게요.

○ 이사 강규형

지금, 아, 그럼 먼저 얘기하세요.

○ 이사 조호연

아니, 지금 이사장은 임기가 끝났다고 얘기했는데, 이사장이 임기가 끝났다고 얘기를
하려면 끝났다고 하는 법 규정을 제시를 하세요. 그냥 자의적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
하니까 이사장 임기는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지 말고,

○ 이사 이준용

아니, 그럼 연장된 거에 대해서 규정 제시, 그럼 여기에 안건 상정에,

○ 이사 조호연

아니, 일단은 이사장이 지금 회의를 주재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 이사 이준용

예.

○ 이사 조호연

이사장이, 이사장이 현재는 없는 상태라고 하니, 왜 이사장이 없는지, 어떤 법에 근거해서 그게 없는지를 먼저 설명하시라 이거죠.

○ 이사 강규형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사 이준용

설명할게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 이사 류영호

세 가지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 이사 조호연

아니, 한 분만 하세요. 차례차례, 차례차례. 서로 다투지 마시고.

○ 이사 강규형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그렇게 얘기를 해도 또 다른 얘기를 하시니,

○ 이사 류영호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 이사 강규형

법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 이사 조호연

류영호 이사가 말씀한 거는 전혀 근거가 안 돼요.

○ 이사 류영호

왜 근거가 안 돼요?

○ 이사 조호연

내가 반박할게요, 조금 이따가.

○ 이사 류영호

아니, 연장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회의,

○ 이사 강규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10조에 임원의 임기가 있는데, 우리 이사회는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그런데 임기 결격 사유에 관해서는 임원에 준용한다 라고 하는 정도가 있고, 한국교육방송공사 정관 8조에 의하면 ‘임기가 끝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 이사 조호연

10조가 아니라 8조예요, 8조

○ 이사 강규형

라고 돼 있어서, 아, 8조, 8조 3항입니다.

그래서 이사의 임기에 관해서는 연장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사장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는 게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EBS는 대표가 이사장이 아니고 이사장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이사장은 없어도 이사회가 충분히 운영이 될 수가 있지만 이사가 없이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사장에 관한 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을 하는데, 여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 수행을 수행한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사장은 방통위 임명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호선에 의해서 뽑히는 전혀 다른 직책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일부러 안 듣는 겁니까, 뭐니까? A기관, D사의 주관기관인 A기관은 ‘A기관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게 6조 정관에 있고,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돼서, 왜, A기관은 대표가 이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뒤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이사장과 임원, 아, 이사장과 이사, 임원들의 연장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임무가 끝난다는 규정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여기는 연장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우리는 연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것은 괜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지금 EBS는 이사장이 회사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장이 없어도 이사회는 굴러가기 때문에 그 규정을 안 둔 겁니다. 그건 B사도

우리랑 마찬가지로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사 임기 네 사람이 연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차기로 넘어가고 이사장을 새로 호선으로 똑같은 분이지만 뽑았어요. 그러면, 지금 자꾸 이렇게 엉뚱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참 당혹스러운데요. 이사장 임기가 연장된다 라고 하는 규정을 갖고 오십시오. 없어요. 이상입니다.

○ 이사 이준용

아니,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 이사 류영호

그거, 일단 그거 하나부터 한번 조호연 이사님 얘기해 보시죠. 반론을 제기해 보시죠.

○ 이사 조호연

뭐가요?

○ 이사 류영호

그거 하나에 대해서.

○ 이사 조호연

뭘 그거 하나가 무슨, 뭔데요?

○ 이사 류영호

지금 얘기하신, 강규형 이사님 얘기하고 제가 얘기한 거하고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시라고요.

○ 이사 조호연

아니, 지금 강 이사님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가 돼 가지고 그 여러 가지를 다 반박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 이사 강규형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 이사 조호연

제가 말을 할 때는 좀 들으셨으면 합니다.

○ 이사 강규형

아니, 자꾸 복잡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간단하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 이사 조호연

안 들으실랍니까?

○ 이사 강규형

아니예요. 간단합니다.

○ 이사 조호연

지금 말씀하신 거는 D사에 관한 건이예요. 여기는 EBS입니다. D사에 관한 건을 여기서 준용하지 마시고, 지금 이사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하니, 이사장이 없다 라고 하는 그 부분, 그게 어느 법에 근거해서 없다고 주장을 하시는지 먼저 말씀을 하셔야 지금 이사장을 자리에서 내릴 수가 있어요. 그죠?

○ 이사 이준용

그럼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사 조호연

그게 수용이 돼야.

○ 이사 이준용

아니, 강규형 이사, 여기에 안전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 올린 게 충돌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8기 EBS 이사회 직무수행의 연장에 따른 이사장 직무수행 연장 확인' 이건 뭇니까, 그럼? 지금 이사장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확인해 달라는 거 아니예요, 이사장으로. 그 확인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사장 자리에 앉아서 진행을 할 수 있냐는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올렸잖아, 스스로. 누가 올린 겁니까, 이거? 회사에서 올렸습니까, 집행부에서?

○ 이사 류영호

그것도 본인하고 관련되는 걸 갖고 어떻게 의장을 하실 수..

○ 이사 이준용

본인 안전을 올린 거 아녜요, 확인해 달라고

○ 이사 강규형

그럼 본인은,

○ 이사 이준용

이거 확인해 달라고 올렸잖아요. 지금 확인 안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 이사 강규형

잠깐 퇴장하시는 게 맞죠. 본인 관련된 거는 퇴장하는 게 맞죠.

○ 이사 조호연

너무 격앙되지 마시고 천천히 얘기를 하세요.

○ 이사 이준용

아니.

○ 이사 조호연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 이사 류영호

설명을 한다 해 놓고 제대로 안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 이사 문종대

지금 하고 있는데,

○ 이사 류영호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 이사 조호연

제가 지금,

○ 이사 강규형

뭐를 하고 있어요, 지금?

○ 이사 류영호

강규형 이사님이 얘기했는 게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거하고 같은데 그걸 자꾸..

○ 의장 유시춘

조호연 이사님, 명확하게 말씀 계속 하십시오.

○ 이사 조호연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는 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 이사 류영호

그건 아니에요.

○ 이사 조호연

지금 방금 이준용 이사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 잘 읽어보시면, ‘제8기 EBS 이사회 직무수행의 연장에 따른 이사장 직무수행 연장 확인’입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EBS 이사회 직무수행의 연장이 됐으니까 제8기 이사회 체제는 계속된다. 따라서 제8기 이사회가 체제가 계속되기 때문에 제8기 이사회가 뽑았던 이사장의 직무도 계속 수행된다. 그것을, 그런 사실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연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다투는 그런 것을 의결하자는 게 아니고, 연장돼 있는 사실을 재확인을 하자 하는 의결입니다.

○ 이사 이준용

아니 그러니까 확인이, 제가, 제가,

○ 이사 조호연

아니 그런데 제가,

○ 이사 이준용

제가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 이사 조호연

아니, 말씀을 들으세요. 제 말이, 앞에 주장과 제 말이 뭐가 충돌이 되죠? 어떤 점에서 충돌이 되죠?

○ 이사 이준용

아니, 확인이라는 게,

○ 이사 류영호

확인을 왜 해요?

○ 이사 이준용

아니, 연장돼 가는데 확인할 사항이 없는 거고요.

○ 이사 조호연

아니, ‘확인을 왜 해요’가 아니라, 왜 충돌이 됐냐고 제가 여쭙봤잖아요.

○ 이사 이준용

제가 얘기하잖아요. 연장됐으면 그냥 연장돼 갑니다. 회사에서, 다른 기업에서 임기가 연장 됐는데 그걸 확인한다는 절차를 주춤에서 밟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때 이사장 선임할 적에는 법적 문제 이런 것들이 아무도 모르게 이사들이 감감이 투표를 해서 뽑았고, 지금은 많은 문제들이 지상으로 노출됐잖아. 그럼 이런 사람을 이사장으로, 교육방송 이사를 한다는 건 교육방송의 첩고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4월인가 언제 감사실에서 감사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는? 그거 조치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확인하고, 그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한 다음에 이사장을 다시 연임하든, 아니면 안 하든 결정해야지, 그냥 여기에서 무조건 무슨 수행 확인? 이걸 올리지 말아야죠, 그러면. 왜 이걸 확인해 달라는 겁니까, 우리한테? 저는 확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이 아니라는 거니까, ‘유시춘, 이 자리에서 이사로서 존재하는 게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 이사 조호연

아니, 지금 말씀한 내용들은 두 가지인데, 앞에 부분과 뒷부분이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연장을 확인한다는 것은 하나의 제안으로, 의결사안을 제안으로 올라간 거고, 앞에 부분은 말하자면 여기에 결부시킬 수가 없어요. 이사장님의 과거 행적이나 현재 여기 와서의 행적 이런 걸 그전에 몰랐으니까 감감으로 해서 했다 라고 하면 그 말은 이해가 되지만, 그 이후에 그런 이사장님의 행적에 대한 평가는 제각각 다를 것이고, 그리고 설령 그걸 가지고 이사장의 직무를 갖다가 수행할, 이를테면 ‘지위에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 변동을 따지려고 하면 지금 이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야 돼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 이사 이준용

어떤 다른,

○ 이사 조호연

이사장께서, 아니, 이사들께서 ‘이사장 직무 임기 만료’라는 말을 써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디 누가, 이사장 임기 만료라 하면 먼저 그 말을 하셨으니 임기 만료가 왜 됐는지, 임기 만료라는 말이 어떤 법에 근거해서 했는지 이걸 먼저 설명을 하시고 해야 되는 거고, 말하자면 사안이 다른 겁니다. 이사장님의 행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별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식이 다른 겁니다.

○ 이사 이준용

아니, 조 이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 이사 강규형

형식이 다른 거가, 지금 두 가지가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 이사 조호연

아니, 같이 나을, 아니, 말은 할 수가 있는데,

○ 이사 강규형

제가 얘기하는데도,

○ 이사 조호연

하나하나 차례차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 이사 강규형

글쎄, 조호연 이사님이 얘기를 하시네요. 법적으로 ‘뭐가 중단돼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게 뭐가 연장될 때에 법이 이렇게 있는 거고, 말씀을 지금 잘못하시는 게,

○ 이사 조호연

뭘 잘못했죠?

○ 이사 강규형

A기관에 이것을 준용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준용한 게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랑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사장 임기 연장에 관한 조항이 있고 우리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A기관의 이 정관을 준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이 세상에 뭘 하는데 뭐가 안 되는 법을 갖고 와라? 이런 게 아니라, 된다는 법을 먼저 갖고 와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여기도 보면 된다는 것만 있잖아요. 이사 임기 연장이.

○ 이사 조호연

한번,

○ 이사 강규형

그러니까 좀, 제발 이제 좀 억지 좀 부리지 마시고, 제가,

○ 이사 조호연

아니 아니,

○ 이사 강규형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회, 이사장 없어도 이사회는 갑니다. 지금 우리는 비상사태고 임시사태기 때문에 이사장이 없어도 최연장자인 유시춘 이사께서 임시의장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방안을 내세운 거 아닙니까. 아니면 두 분이

바뀌어서 하든가, 아니면 나이 순서대로 가든가, 아니면 진짜 유시춘 이사께서 연장자로 계속 끌고 가든가.

법적 근거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오늘 안 되는 근거를 내세우라고 하는 새로운 얘기를 갖고 오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는데, 법은 그렇게 돼 있지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사 조호연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

○ 이사 문종대

저도 좀 말씀해도 될까요?

○ 의장 유시춘

예, 말씀하십시오.

○ 이사 조호연

제가 한 말만 더 할게요.

제가 말씀을 다 드렸는데, 제 말씀을 이렇게 좀 주의해서 듣는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표현하면 좀 결례인가요?

첫 번째는, 이사장께서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는 근거를 제가 제시를 했죠. 어떤 근거를 제시를 했냐면, 정관 8조에 의해서 임기가 끝난 이사들은 후임자가 올 때까지,

○ 이사 강규형

임명될 때까지입니다. 임명될 때까지.

○ 이사 조호연

예,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임명,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제8기 이사회는 지난번에, 3년 전에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됐고, 그 구성한 직후에 이사장님을, 유시춘 이사장을 이사장으로 선임을 해서, 호선을 해서 선임을 했습니다. 그때는 형식은 그랬고 내용은 만장일치로 했죠. 거수로 해서.

그런데 현재 그것을 뒤엎을 만한 어떤 사안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자, 말씀을 들으세요. 8기 이사회는 계속 되고 있어요. 이사장, 이사들이 말하자면 후임자가 올 때, 임명될 때까지 이사회 임기를, 아, 임무를,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정관 8조에 의해서 되고 있어요. 이사들의 직무는 수행하는 건 계속 되면서, 그 이사들이 뽑았던 이사장은 직무 수행이 끝나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그걸 뒤엎을 만한 그것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게 없다고 봅니다. 현재 어느 법에도 그건데,

○ 이사 이준용

아니, 그거를 계속,

○ 이사 강규형

아니, 그런데, 그럼 이사장이 임명됐습니까? 8조를 지금 얘기하시는데, 이사장이 임명됐습니까?

○ 이사 조호연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 이사 강규형

하세요

○ 이사 조호연

이사장의 지위는 이사들이 정합니다. 말하자면 이사들이 호선을 하고, 만약에 이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른 방식으로 뭐 탄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놓고 ‘이사장 임기가 만료됐다. 이사장 임기가 끝났다.’라고 하는 법에 없는 용어를 써서 이사장을 현재 지위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사 이준용

그럼 조 이사 말씀을 그 말대로 하면요, 여기 있는 9명의 이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직무 수행에 따른 연장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왜 이사장만 직무 수행에 대한 연장을 받습니까? 이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8기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 이사장을 선출할 적에는, 그때 연장자가 사회를 보고 이사장을, 유시춘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왔고요. 그 임기는 저는 이사 만료 9월 13일까지라고 해서 우리가 잠정적 합의로 해서 뽑은 거지, 후임 이사가 결정 안 되면 계속 이사장을 한다 라고 어느 법에 어느 에도 담아놓은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사장 직무수행 연장 확인을 해 달라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준용도 연장 확인해 달라고, 연장 확인이 안 되면 이사가 안 되네, 그러면? 그럼, 이사나 이사장이나 똑같은 지위입니다. 단, 사회 진행자냐, 아니냐를 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강규형 이사도 여기에서 연장 확인을 받아야죠. 왜 이사장만 연장 확인을 받습니까?

○ 이사 문종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 의장 유시춘
예, 말씀하십시오.
- 이사 문종대
예. 강규형 이사님께서,
- 이사 류영호
“말씀하십시오” 뭐, 의장도 아닌 사람한테 물어보고
- 의장 유시춘
예. 제가 앞으로,
- 이사 류영호
그런 식으로 하시면 회의 진행이..
- 의장 유시춘
아니, 상정안건 의결할 때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 이사 류영호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의장 유시춘
다들 너무하십니다.
- 이사 문종대
상호 좀 예의 좀 지켰으면 좋겠는데,
- 이사 류영호
아니 너무한 게 아니고, 정말,
- 이사 문종대
잠시만요,
- 이사 류영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 의장 유시춘
아니요 다른 분,

○ 이사 류영호

반론을 제기하니까 제가..

○ 이사 이준용

아니, ‘예의를 지켜달라’고 문종대 이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의장 유시춘

다른 분, 다른 이사분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 이사 문종대

저 좀 이야기 좀 합시다. 아- 참..

○ 이사 류영호

아니, 그래서 제가, 이사장이 아닌 분이 자꾸 진행을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 의장 유시춘

이사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들어보겠습니다.

○ 이사 문종대

잠시만요.

○ 이사 류영호

오늘은 이사장이 아닌 것이,

○ 이사 문종대

잠시만요.

○ 이사 류영호

왜냐하면,

○ 의장 유시춘

류영호 이사님, 잠시, 발언권 제가 중지하겠습니다.

○ 이사 류영호

두 가지도 얘기했지만,

○ 의장 유시춘

너무 많이 하셨고요,

○ 이사 류영호

저번 임시이사회도 안 나오셨기 때문에,

○ 의장 유시춘

지금 문종대 이사님이 발언하시고 계시잖아요.

○ 이사 문종대

이사장님도.

○ 이사 류영호

아니, 왜 자꾸 그래요?

○ 이사 이준용

아니, 발언권 중단할,

○ 이사 류영호

의장도 아닌 분이 왜 자꾸..

○ 이사 이준용

자격이 없어요 없어요.

○ 이사 문종대

자, 그러면, 잠시만요.

○ 이사 류영호

아니, 저번에 나왔으면 이사장이라도 또 칭해주실 건데, 임시이사회도 안 나오신 분이 스스로 내가 이사장, 이사장 당시 명의로,

○ 이사 문종대

잠시만요.

○ 이사 류영호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놓고 나오지도 않은 분이 스스로 내가 이사장이 아니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 이사 문종대

이제 됐습니까?

○ 의장 유시춘

말씀 다 하겠습니까?

○ 이사 문종대

강규형 이사님께서 ‘D사에 준용해서 할 수 없다.’ 저도, D사는 주식회사니까 상법에 근거해서 아마 그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을 거고, 저희는 이제 아마 공사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양쪽 다 주장이 지금 ‘누가 더 확실하다’ 이걸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현재 해석상. 그래서 상호 지금 해석의 범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몇 분은 지금 이사장, 8기 이사장은 연장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임기가 끝났다 라고 보는 거고, 또 다른 분들은 ‘아니, 이사장의 임기가 없는 것은 이사가 임기가 끝날 때 자동적으로 이사장 임기가 끝나는 거니까 이사장도 자동 연동된다고 보는 이 해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느 해석이 더 옳으냐, 그르냐에 이게 지금 여기서 따져봤자 결론은 안 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보통은 끊임없이 논의를 하다가 안 되면 투표를 하는 경우죠, 사실. 모든, 저는 민주주의 절차라는 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 EBS 이사회 직무수행 연장에 따른 이게 나온 이유는, 직무가 연장인 안 된다 라고 보시는 네 분이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안된 것으로 제가 보여 지는데, 그러면 지금 안전을 오히려 532호부터 먼저 처리하고 하시죠 그러면 끝날 것 같은데,

○ 이사 이준용

이거 진행할 사람이 있어야 이 안전을 처리, 지금 누가 의장을, 사회를 봐 갖고 진행합니까? 아니, 아니 그제..

○ 이사 문종대

그러니까 네 분은 지금 이사장의 임기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고, 지금 아마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분들은 이사장의 임기가 계속 연장됐다고 보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현재 이사장의 진행은 틀렸다고,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논쟁은 아무리 해 봤자 오늘 밤 새도 똑같은 말만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 이사 이준용

아니,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논쟁해봤자, 투표를 하겠으면 그럼 그 안전을 상정해 갖고 임시 의장을 호선해 갖고 뽑아 가지고 임시의장이 결정되면 그 사람이 이번, 이번 이사회를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임시의장을 호선하자니까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 이사 문종대

그러면 하.. 뭐..

○ 이사 류영호

저는 정말 이해가,

○ 이사 문종대

임시의장 그, 할까요?

○ 이사 류영호

이해가 안 되는 게, 얼마든지, 지금 어떻게 보면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진영논리에 의하면, 5명이 한 편이라면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우리끼리 이야기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임시이사회를 소집한 당시 이사장도 불참하고, 또 다른 분들도 네 분이 불참해서, 다섯 분이 불참해서 이사회가 제대로 성립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날 네 사람, 네 사람이 소집 요구를 해서 당시 이사장인 유시춘 이사장님이 소집을 했으면 최소한 한 분이라도 나오시든지, 또는 다 나오셔서 주장을 하셔도, 표결에 부쳐도 의결되지 않습니다. 앓는 것을, 아예 이날 보이콧을 하고 자체에 나오지 않았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나는 이사장이 아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거다, 저는 계속 그거를 말씀,

○ 이사 문종대

규정상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돼 있으니까,

○ 이사 류영호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 이사 문종대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지요

○ 이사 류영호

그리고 우리끼리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불참해서 언론플레이를 해 가지고 이미지를, EBS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 이사 문종대

잠시만요. 언론플레이는 그쪽에서 하시지 않았나요?

○ 이사 류영호

아니, 불참을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 입장문을 내고 거기서 또 입장문을 냈잖아요. 불참을 안 했으면 여기서 입장문을 낼 이유도 없었죠.

○ 이사 문종대

제 불참 사유를 제가, 저는 올렸었는데,

○ 이사 류영호

그리고, 그동안 EBS가 재정 적자도 일어났고 노사 대립의, 극한 대립에서도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가 없어요. 그런데 유시춘 이사장 개인 문제로 교육공영방송이, EBS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말이에요. 저는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했지만 정말 오늘은 하고 싶네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사장님은 스스로 저는 몰려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다수의 진영이 뭐가 두려워서 지난 이사회 소집, 이사장, 현 당시 이사장 명의로 해 놓고도 나타나지 않은, 그러면서 언론플레이해서 EBS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런 행위는 정말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날 입장문을 ‘미디어오늘’을 통해서 내셨는데, 그 입장문을 보면 저를 여권 선향으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제가 여권입니까? 여권에서 추천받았습니까? 한국교총이 무슨, 여당에 따라가는 단체입니까? 그리고 ‘이사장 교체 시도를 하기 위해서 소집했다.’ 이렇게 또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교체를 시도하려면 다수 5명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교체를 할 수 있어요? 4명이 어떻게 교체를 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어떤 법이나 규정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비법적 주장이라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사장이 연장된다는 법은 어디 있어요? 그게 비법적이죠. 그리고 당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회의의 불법성 때문이다.’라고 입장문을 냈는데,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임시이사회는 4명의 이사가 소집을 요구했고, 당시 이사장이었던 유시춘 이사장님 명의로 소집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안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것만 보더라도 ‘나는 이사장이 아니었다.’라고 스스로 시인한 것입니다.

○ 이사 문종대

예. 첫째, 일, 이사장 명의로 당연히 회의가 소집되는 것은 규정상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사장 명의로 소집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불법성이라고 했던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건 불법성이라기보다는, 다만 안건 성립,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안건 성립이 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날짜에 대한 조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일단 날짜가 정해진 부분이 있어서 제 일정을 조정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어쨌든 지금 그런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여기서 지금 본질적인, 더구나 또 이사장님의 자질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현재는 지금 이사장님의, 이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 이준용 이사님 주장은 이건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새로 진행자를 호선 해서, 진행자를 뽑아서 이사장을 새로 호선하자는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할까요?

○ 이사 류영호

이사장을 호선하는 게 아니고, 의장, 임시의장,

○ 이사 이준용

아니, 임시의장을 호선해서 오늘 임시이사회는, 아, 정기이사회는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이사 문종대

그러면 정기이사회를 진행하고, 그럼 지금 안건 531호와 532호를 의결하면 되겠네요?

○ 이사 류영호

지금 이사장이 없으니까 임시의장이 있어야 된다는,

○ 이사 박태경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런 안건이, 잠깐만요. 532호가 나온 것은 이사장의 임기를 연장 했다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사님도 계시지만, 그렇게 의견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임시의장을 선출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류영호 이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게,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그 진행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해서 누군가 진행을 시킬 것인가 정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532호는 일단 안건이 올라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누가 진행할 건지 우리가 의논해서 정하면 되는 거죠.

○ 이사 조호연

이 점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 임시이사회, 사실 무산이 됐기 때문에 임시 이사회가 성립이 안 됐는데, 저의 경우는 다들 이사분들은 아시지만 시간도 잘 안 날뿐더러, 그때 제가 시간이 안 뵈에도 불구하고 그날 꼭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했는데, 다른 분들도 여전히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 불참을 하게 된 것이고,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말씀을 드릴 게, 그 당시에 그 회의의 제목이 ‘이사장 임기 만료에 따른 이사장 선임’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사장 임기 만료’라고 하는 프레임이 붙어 있는 그 회의에 제가 참석을 하는 것 만으로도 ‘이사장 임기 만료’라는 말을 제가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나한테 ‘그러면 너는 이사장 임기 만료에 대해서 동의했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설명하기가 매우

구차할 수밖에 없어서 거기에 더더욱 참여할,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는, 말씀하시면서 ‘여권 성향으로 분류를 했다. 언론 보도에.’ 그다음에 ‘교체 시도라는 말을 썼다.’ 또, 그렇게, 하나 더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언론의 속성을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언론 보도에 더블쿼트로 들어간 것은 5인 중에 누가 한 사람이 했든 누가 대표로 했든 그건 5인 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일 겁니다. 직접적으로 한 건데, 언론이 그냥 더블쿼트가 없이 ‘여권 성향’이라고 분류를 하거나 ‘교체 시도’라고 하거나 이런 용어들을 쓴 건 그 해당 기자가 해석해서 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5인 중에 누가 한 사람이 했든지 그런 식으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사 이준용

아니, 그렇게 EBS 이사회에서는요, 여권 야권을, 제가 옛날에 소수로 들어왔을 적에도 그 얘기를 절대 쓰지 않았습시다. 그런데 이번 성명서에는 ‘여권 성향’ ‘야권 성향’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 이사 조호연

그게 언론사, 그게 언론사 분류예요.

○ 이사 이준용

아니, 언론사 분류고 뭐고 떠나서 그건 말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공영방송이 여권이 어디 있고 야권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여기서. 모든 이사들이.

그러면서, 아니, 그럼 교육부의 주체는, 지금 교육부는 여당인데 야권입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 이사 조호연

이준용 이사님,

○ 이사 이준용

프레임을 그렇게 씌워 가면, 정말 말장난은 그만 합시다, 여기에서! 무슨 기사에 뭐 어찌고 저찌고 이런 얘기는 정말,

○ 이사 조호연

저희한테 할 게 아니고, 해당 언론한테 가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사 이준용

아니, 여기에서, 이사회에서 누군가가 그런 표현을 쓴다는 건, 성명서에 그렇게 나간다는 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 이사 조호연

그러니까 그거는 해당 언론에 가서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 이사 박태경

두 분은 이제 그런 논쟁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사 류영호

아니, 그 입장문을 낸, 그 입장문 전문을 좀 보고 싶네요.

○ 이사 조호연

무슨 입장문이 어디 있습니까?

○ 이사 류영호

입장문을 냈다고 기사에 나와 있는데, 입장문이 아니고 그냥..

○ 이사 조호연

거기에, 기사에 보면 ‘입장을 내고’ 돼 있는데, 무슨 입장문입니까?

○ 이사 박태경

조 이사님, 류 이사님, 그런 논쟁은 여기서 더 이상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결을 진행하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사 류영호

그걸 또 이렇게 해석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 이사 조호연

뭘 해석을 합니까?

○ 이사 류영호

저는 그 내용에서 유시춘

○ 이사 조호연

하지 않은 것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 이사 류영호

전 이사장님께서 임시이사회에 안 온 것을 지적한 거지,

○ 이사 조호연

임시이사회가 안 온 것에 대해서도,

○ 이사 류영호

이사님들이 안 온 것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 이사 조호연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 이사 류영호

제가 묻지는 않았습니다.

○ 이사 조호연

아니,

○ 이사 박태경

잠깐만요.

○ 이사 조호연

거기에 참석을 안 한 것이,

○ 이사 박태경

조 이사님.

○ 이사 조호연

큰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 이사 박태경

자, 조 이사님, 류 이사님, 잠깐만요. 지금 그런 논쟁은 여기에서 필요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표결을 할 것인가.’ 이것을 절차를 의논하는 것이 적절한 순서 같습니다.

○ 이사 류영호

예, 그렇게 합시다.

○ 이사 문종대

예.

○ 이사 신동호

한 말씀만 드리고, 다음 절차를 들어가는 건 동의하는데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첫째는, 좀 유감을 표명하고 싶은데, 지난번 임시이사회를 소집을 했는데 참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임시이사회 직전 일에 불참 통보를 하셨다고 말씀 들었는데,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미리 말씀하신 분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의제가 마음에 ‘이걸 참석하는 순간 인정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 그런 논리라면 앞으로 어떤 의제가 내가 생각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참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몇 번의 이사회를 하게 될는지, 몇 번의 임시이사회를 하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할 때 어떤 의제가 확정적 의제였다, 그런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참석해서 비동의를 표현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 의제의 논의석상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나는 그 의제에 동의하는 것이 된다.’ 그렇지 않죠. 그럼 의결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 의제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석해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일 다섯 분, 이사장, 당시의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다섯 분이 참석하지 않아서 임시이사회가 간담회로 전환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부분이라는 점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법리적인 문제, 아까 문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석의 범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양쪽의 입장이 밤을 새워서 토론해도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쟁점이 무엇인지는 양쪽이 다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규형 이사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교육방송의 정관이 D사와는 이러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차이의 설명을 한 것이 아니고 법리의 상식선을 이야기한 겁니다. D사를 준용해서 EBS를 논하자 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 회사법에 따랐을 때 연장의 논리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인정합니다. 그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강 이사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D사 A기관법을 우리도 준용에서 논의해야 된다 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팩트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강 이사께서는 수차례 이 회의를 통해서 왜 우리가 그것이 재호선이 됐건, 아니면 재신임이 됐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법리적 자료까지 근거까지 대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기억에 따르면, 이사장님께서서는 과거 간담회에 잠시 참석하셨을 때 ‘법무팀에 의뢰를 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석이 나올 수 있는지 의뢰를 했다.’ 정확한 위당은 ‘그 자료를 책상 위에 올려놓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책상에 올려놓는 것보다는, 그러면 우리 독방이 있으니 그런 반박 자료가 있으면 공유를 해 달라.’라고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공유된 적 없고, 오늘 이 시간까지 어떤 형태로든, 제가 대전제는 양쪽의 의견의 논리는 인정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소한에 ‘이러한 이유, 이러이러한 법리적 이유, 내가 법무팀에 자문해 본 결과,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신들과는 반대되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이 설명이 일절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합니다. 적어도 그 부분은 있어야지, 이쪽에서 어떤 법리를 이야기했더니 ‘나는 그런 자의적 해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논리라면 어떤 법리도 ‘나는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와 뭐가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참 부끄럽습니다. 지금 공개이기 때문에 공청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처음에 이 논의가 불거졌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류영호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의결 표, 표결하면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체제 유지에 문제없을 거라고 보고요. 여권 분류 이사님, 야권 분류 이사님을 떠나서 4명의 이사가 이의 제기를 했으나, 지금 어떤 표결 절차를 거쳤을 때 4명이 절대 과반을 가지고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수차례, 우리가 이것을 좀 평화적이고 이런 감정 섞인 논란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이사와 관련해서는 명쾌하게 후임 이사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그 임기가 유지된다고 했으나, 이사장과 관련해서는 그 연장된 이사의 기간까지도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하자. 그래서 재신임을 받건, 표결을 해서 의결을 하건,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건, 교대로 하건, 심지어 그런 안건까지도 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유감스러운 것은, 그런 의견들이 오가는 특방이 무슨 공식적인 토론의 장은 아닙니다만 단 한 번도 의견 개진이 없다가 의견 표출을 보이콧으로 한단든가, 아무런, 법리적 근거를 대겠다고 해놓고 대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희들이 가져온 법리는 인정할 수 없다 라든가, 법리를 내놓아라? 내놔했습니다. 이미 내놔했습니다. 그런데 법리를 더 내놓아라? 이거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이후에 박태경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표결 의결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의제가 마음에 들어서 이 이사회에 온 게 아닙니다. 저 역시도 이 의제에 좀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특히 ‘제8기 EBS 이사회 체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제8기 이사회가 의결 선임한 이사장의 직무수행은 계속된다.’ 저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반대 의견을 제시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말씀을 충분히 들었는데, 너무 우리가 지금 부끄러운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성을 정해놓고 그 방향성에 부합되는 논리로만 끌고 가고 있어요. EBS 이사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무슨 정파적, 당파적 입장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정치인들입니까? 교육방송의 이사들입니다. 그냥 매듭 한번 짓자는 거였어요.

이사회가 비상상황 아닙니까.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대나무에 매듭을 짓듯 한번 매듭을 지어서 서로 의견 개진을 하고 이사장의 임기를 연장하건, 아니면 새로운 대안을 찾건 그 이야기 하자는 거였습니다. 얼마든지 부드럽고

얼마든지 발전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사건건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제 말조차도 또 듣기에 거북하고 이 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실 분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유감을 표명한 것이 사과를 받겠다거나 잘못됐으니 수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건, 또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건 EBS 공영 방송의 이사회를 하고 있는 제8기 이사회 이사, 지금 이것이 명쾌히 8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사로서 좀 품격 있는 논의를 하고 품격 있는 절차를 통해서 결론을 내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박태경 이사님께서 ‘이제 남은 것은 어떤 절차만 남은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제 의견이 또 마음을 상하게 한 이사님들이 계시다면 그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조 주의적으로 누구를 가르치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하 답답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사 강규형

이어서요,

○ 이사 문종대

간단하게 제가 여기에 대한 반박이라기보다는, 저도 유감입니다. 저도 대단히 유감이고요. 그다음에, 불참도 하나의 의사표시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석의 범위에 12일날 간담회에서 우리가 충분히 많이 논의가 전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쟁점에, 또 우리가 상법상에 어떤 하나의 회사법이 준용할 꺼리가 없으면 대부분 상법상의 유사 민법이나 유사 법을 갖다 준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그런 면에서 아마 D사가 준용이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의결 표현에 있어서도 지금 카톡방 문제는, 사실 카톡방 저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원래 거기가 그런 공간이 아니라, 거기는 공식적인 것들을 주로 알리는 공간이었는데, 개인에 대한 비난성 글들뿐만 아니라, 또는 가끔 비난적인 언어들도 좀 있어서 저로서는 대단히 그게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사실은 나왔던 걸 먼저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나와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제가 논의할 사안은 없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논의의 장이 아니라 공지의 원래 자리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사 신동호

앞으로 그런 부분을 서로 좀 배려해서 끌고 가고, 문 이사님, 다시 초대할 테니까 들어오시죠.

들어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사 문종대

예. 신동호 이사님이 들어오라면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 이사 신동호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제 소회는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좀 여쭙보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때 저희 간담회 때 법무팀에 자문을 구하셨다고 했고,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법리적 해석이 있을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 문제가 촉발된 것은 어쨌든 4명의 이사가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법리를 찾아서 제시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온 게 있는지 좀 여쭙보겠습니다.

○ 의장 유시춘

저한테 말씀하신 거죠?

○ 이사 신동호

예. 말씀하셨으니까, 직접.

○ 의장 유시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내부의 조직 법무팀에게 이걸 좀 검토를 시키려고 생각을 했고요. 일부분을 받았습시다. 일부분 받은 것이, 이사회 법, 정관, 규정, 그다음에 그 이후에 여타 다른 방송사들의 경우,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 사이에, 제가 정직하게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특정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이사분께서 ‘유시춘 이사장의 임기가 종료되었는데 왜 사무실과 차량과 조직법무팀을 이용하게 하느냐? 이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두 번이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엄청난 부담을 느껴서 제 사비로 그 이후부터는 변호사의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제가 조직법무부에서 검토한 내용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단, 제가 사비를 들여서 이 관계에 정통한 분에게 법리 자문을 얻은 것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공유하기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지금 갖고만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6년 쯤인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제가 민주화 운동의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BS에 온 6년 동안 단 한 번의 정파적 언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일은, EBS의

적자경영 때문에 자꾸 노사 갈등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균형재정을 이룰 수 있을까’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관계와 힘을 쏟아서 적자경영을 탈피하는 데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제가 먼 변방에서 공부한 사람으로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콘텐츠의 평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두 가지 일에만 전념을 했고요.

지난 7기에서도 폭력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른바 여권 추천 이사들이 계셨습시다만 오히려 그 당시 야권 추천 이사들보다 제가 더 친밀하게 협의하고 EBS의 균형재정과 좋은 콘텐츠 생산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게 한 1년 남짓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굉장히 당혹스럽고요, 민망하고, 또 굉장히 마음이 아플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단 한 번도 정말 맹세컨대 저의 정파적 유·불리를 생각한 적이 없고요, 생각했던 것은 EBS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5년간 잘 지낼 수 있었고요, 그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의 모두에 저의 Status, 저의 위치, 직위의 문제를 문제 삼으시니 제가 더더욱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만 있고요. 여러 이사분들이 다수로 정해 주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신동호 이사님 주신 말씀, 공감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대의 대립과 갈등과 불행이 EBS 이사회 현장에서도 이렇게 첨예하게 드러나는 것이 저로서는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너무 감당하기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법과 정관과 규정에 의하지 않은 일은 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 이사 이준용

저도 한 말씀,

○ 이사 신동호

예. 말씀을 덧붙여서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만 더 덧붙이고 이사님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말씀을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 의장 유시춘

아니, 말씀하십시오.

○ 이사 신동호

첫째는, 문제 제기를 한 이사나 아니면 반론을 펴고 있는 이사나, 글썄요, 시작부터 어떤 정파적 방향성을 가지고 했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시다만 한 번은 짚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됐고 반론이 있었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이 오면서 감정이 격화된 부분도 있었고, 또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지금 이준용 이사님께서 발언 준비하고 계시니까 짧게 한 말씀만 여쭙보겠습니다.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지난번 임시이사회에 다른 분들은 의사 표현을 위해서건 아니면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건 참석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사장께서 참석하지 않으신 것은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수하게 EBS의 발전과 또 EBS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 오셨다면 설사 그 의제가 마음에 들지 않고, 민망한 상황이고, 또 개인적으로 좀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지난번 간담회에도 굉장히 급한 일이 있으셨지만 한 20분이라도 참석하셨다 가셨지 않았습니까?

○ 의장 유시춘

예.

○ 이사 신동호

그렇다면 그 간담회보다 훨씬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4명의 이사가 소집한 임시이사회에 당시 이사장의 직분으로서 저는 꼭 참석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말씀을 들어보니 어디가 편찮으신가 했더니 그 전날도 출근하셨다고 하고, 특별한 다른 일정이 없으셨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네 분의 이사님들께는 제가 유감 표명한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만 말씀이 나온 김에,

○ 의장 유시춘

예.

○ 이사 신동호

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 의장 유시춘

예. 지적하신 부분에 온당한 면이 있다고 수용합니다.

그런데 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올리신 의안의 의제, 제목 자체가 저로서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네 분이 불참하시는 그 상황에서 저 혼자 가서 그 말씀들을 듣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민망하고 무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몸도 좀 좋지 않았고요.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못 갔는데, 결과적으로 신동호 이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12일날 이사회 때는 제가 우리 예산 문제 때문에 누가 부르셔서 국회를 가느라고 한 20~30분 제가 참석을 그때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솔직히 20일날의 임시이사의 제목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었고요. 그런 것보다도, 저의 마음이, 정서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민망하고 견디기 어려워서, 그리고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불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려 깊은 처신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사 이준용

제가 제8기 이사회에 우리 소수 이사들은 제가 처음부터 참석한 사람입니다. 이사장 선출할 때도 제가 세 가지 조건을 내걸고 그때 투표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동의해 준 것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E 전 이사하고 EBS 이사회 활동을 하면서 저는 이사, 지금 유시춘 이사가 하신 그 말씀과 정 반대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정파적이었고요, 여기는 정치적이었고요, 이념화돼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모욕과 정말 이루 참을 수 없는 걸 당하면서도 교육방송 EBS를 위해서 참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동의할 수 없는 안건이 많이 올라와도 저는 이사회에 참석해서 저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사는, 특히 교육방송 이사는 자기가 아니어도, 또 그게 진심이 아니어도, 참여하기 싫어도 정말 참여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그 말을 교육방송 정책에, 이사회에 반영하는 게 이사로서 기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1년, '22년, 더 말 않겠습니다. 그렇게 EBS는 정말 제가 계속 노래했듯이 정파나 이념이나 어떤 색깔에 물 들으면 안 된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부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 게 EBS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사 강규형

이어서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차에 걸쳐서 저는 법리적 근거를 대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법리적 근거를 갖고 오시겠다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셨는데, 결국 오늘 갖고 온 논리는 ‘이사장 임기 연장이 안 된다는 근거를 보여라.’라고 하는 엉뚱한 얘기밖에는 안 나오는 것을 보고, 솔직히 EBS 법무팀도 얼마나 지금 골치 아프겠어요. 눈치도 봐야 되고, 법은 지금 상당히 명확하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 해야 되고, 왜 이런 고통을 안겨줘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비상상황에서는 이사장 없이 이사회가 얼마든지 운영이 될 수가 있고, 바로 이사장 임기 연장이 없는 이유는, ‘이사회는 존속이 되되, 이사장에 관해서는 새로 결정을 하라’는 그런 뜻이고, 그런 거가 안 되는 A기관은 그 규정이 있어서 이사장에 대한 연장 규정이 있는 거고, B사는 없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B사의 네 사람이 이사 연장이 됐는데, 그럼 네 사람이 연장이 됐을 때 기수가 어떻게 돼요? 사장님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람이 연장이 돼서 지금 이사회가 새로 이사장을 뽑았는데 같은 분이 됐는데, 그럼 네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사장 김유열

글쎄요. 제가 답변할 전문성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 이사 강규형

아니,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분명히 알아보셨을 거예요, 사장님도. 그런데 법무팀에서 이게 참,

○ 사장 김유열

알아보진 않았습시다.

○ 이사 강규형

아니, 알아보셨다고 했잖아요. 이거 말고 이사장 임기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딱 연장이 되면 자신 있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못 하지 않습니까. 규정이 너무 명확하게 돼 있고, 다른 공영방송과 비교했을 때 하나는 그 규정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고, 우리랑 비슷한 B사는 없고, 제가 얘기했지만 다른 데서 제 임기가 끝나지만 후임은 한참 뒤에 결정이 되는데, 우리랑 비슷한 구조예요. 공사 그거고, 저는 단 하루도 이사장을 더 연장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곧 끝납니다. 그리고 이사장 없이도 이사회는 이게 존속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EBS가 지금 상당한 적자를 냈고 그것이 문제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또 이사장직을 그렇게 무리하게 연장을 하신다는 것에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저는 사퇴나 뭐 그런 거 얘기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비상상황에서 임시이사회를 끌고 가는 게 이게 도리고, 지금 이사회의 재정상황을 보더라도 그게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 규정에도 없는 걸 그냥, 없는 걸 만들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저대로 그냥 안 되는 이유들은 지금 쏟아져 지금 나오고 있고.

B사에 지금 4명이 지금 연장이 됐는데, 그러면 연장된 네 사람은 전 기이고 연장 안 된 사람들은 다음 기입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이진 기수가 지금은 의미가 없는 비상상황이예요. 비상상황이예요. 예?

○ 이사 이준용

기수는 우리가 맞는 거니까.

○ 이사 강규형

글쎄, 그러니까, 4명 연장된 사람은 그럼 전 기이고, 7명 새로 된 사람은 다음 기고, 이게 얘기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장도 같은 분이지만 새로 호선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사정상 임시이사회로 끌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도 이사회 의장은 유시춘 이사께서 계속 맡든가, 아니면 뭐 바뀌서 맡든가. 나이 순서대로 해도 저까지는 오지도 않아요. 저까지는 오지도 않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는 결단을 내려줘야지, 이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법도 없는데 갑자기 그게 안 된다는

법을 갖고 오라고, 법을 갖고 오라고 얘기하고 갖고 오겠다고 한 분은 여러분들이예요. 못 갖고 왔잖아요. 지금 사장님도 이사장 임기 연장에 관한 확실한 게 있으면 내놔요. 겁니다. 못 내놓고 계세요, 지금. 여기서 그렇게 이사장을 계속 하면서, 험한 얘기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하는데 왜들 그러십니까?

○ 이사 류영호

7기, 8기라는 말은, 8기, 9기 이 말은 우리 이사회 임명장에 'EBS 8기 이사'라는 그런 '8기'라는 말은 EBS 자체에서 쓰는 말 같은데, 우리 임명장에는 '8기'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연장되는 이사회는 임시이사회를 하든지 연장 이사회를 하든지 그것은 이제 여기 집행부에서 이름 붙이기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 그다음에 이사장님께서 나름 EBS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쪽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보컬로 이사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사실 정치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단지 교육, 평생을, 40년을 교육 평생 학생들 교육에만 전념하다가 와서 사실 이사회에 참석하고 많은 것에 제가 놀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구성 자체가 어떤 진영논리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돼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나름 정파적인 그런 어떤 협의, 단합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도 인간인 이상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사실 이사, 전 유시춘 이사장이 EBS를 위해서 노력했다는데, 저는 EBS가 지금 적자로 계속 허덕이다가 이번에 균형예산이 거의 되는 이유는, 이거, 저나 어떻게 보면 여권 성향에 있는 분들이 이걸 균형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엄청나게 주장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지금 온 것이지, 실지 6년 동안에, 저는 와서 느끼는 것이, 뭐 그냥 추경예산에 마이너스 적자예산을 해도 그냥 손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보 성향이라 합시다. 진보 성향의 이사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진하고 어떻게 보면 노조의 온정주의적인 그런 이사회 심의·의결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적자로 계속 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대외적인 그런 문제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데 대한 이사장으로서의 책임은 통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나는 정말 안타깝다는 거예요.

○ 이사 조호연

진짜 반박하고 싶은 내용들이 참 많은데 답답하군요.

○ 이사 박태경

그러니까 의견들이 충분히 다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문종대 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에 법률가가 출석해서 논쟁을 하더라도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이사회를 하건 연장이 되건 532호 안전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간단히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사 류영호

그러면 임시의장을 뽑기 위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사회를 봐주세요. 그게 맞지 않을까요?

○ 이사 문종대

아니 여기서, 우리 전부가 이사니까 이사들 간에 ‘임시의장 누가 하면 좋겠습니까?’ 호선해서 그것만 하면 되지.

○ 이사 조호연

아니, 임시의장이 아니고, 지금,

○ 이사 박태경

임시의장은 아니죠

○ 이사 조호연

아니죠, 지금 하셔야 되죠, 그냥.

○ 이사 박태경

그러니까, 임기 만료를 인정한 건 아니니까요. 그 대신 진행할 분은 누가 있어야죠.

○ 이사 조호연

지금 이게 관건인데,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해 놓고 임시의장 하면 안 되지.

○ 이사 문종대

진행할 분은 진행하시죠.

○ 이사 류영호

아니, 분명히..

○ 이사 강규형

그리고 이사장 연장에 관한 건은요, 이거는,

○ 이사 이준용

지금은 임시이사회가 아니고 EBS 이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회 진행을 누가 할 건가를 여기서 호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사장이 없기 때문에.

○ 이사 문종대

예, 호선하시죠. 저는 박태경 이사님 추천합니다.

○ 이사 조호연

아니 아니 그러지 말고, 그게 말이 안 되죠 무슨 얘기에요?

○ 이사 문종대

빨리, 호선해 가지고 빨리 진행하면 되잖아요.

○ 이사 박태경

아니, 의견들을 말씀하시죠 저는 유시춘 이사장님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이사 조호연

이사장께서 지금 건재하고 계시고, 그 부분이 지금, 예를 들면 그걸 가지고 의견이 서로 다르다 해 가지고 임시의장을 뽑는다는 것은, 제가 제안, 5인 다수가, 다수 5인이 이걸, 오늘 의결안건을 제안을 했지만, 이 제안을 한 취지가 무색해지죠, 그러면.

○ 이사 문종대

그렇다 하더라도 빠르게 그냥 해결하시죠.

○ 이사 류영호

아니, 그걸 의결하기 위해서 지금..

○ 이사 이준용

건재한다는 게, 건재하다는 이유, 그 말 쓴다는 것도, 아니, 건재하고 계시다는 말을.. 아니 그게..

○ 이사 문종대

그게 지금 논란이 되니까 지금..

○ 이사 조호연

말꼬리 잡지 마십시오.

○ 이사 이준용

말꼬리 잡는 게 아니고, 계속 조 이사께서 그렇게 말꼬리 잡으..

○ 이사 조호연

표현 가지고 말꼬리 잡는 거는 계속 시간만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 이사 문종대

그래서 지금 어떡할까요?

○ 의장 유시춘

제가,

○ 이사 조호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사장이 사회를 보는 것을 결정할 의결을 하자, 이 뜻인가요?

○ 이사 문종대

예.

○ 이사 조호연

여부를 갖다 결정하는 거를?

○ 이사 문종대

아니, 오늘 이사회를 진행할 분을 지금 요구하니까,

○ 이사 박태경

532호 안건을 진행할 사람을 정해야죠.

○ 이사 조호연

그런데 오늘 그거 의결안건으로 올라왔습니까?

○ 이사 문종대

아니, 그건 의결안건에 관계없을 것 같은데. 현재 진행을 위한 거니까.

○ 이사 강규형

긴급안건으로 올라올 수는 있는 거긴 합니다, 그거는.

○ 이사 조호연

물론 이사장에 관한 부분은 이사회가 결정할 문제이긴 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들이 더 할 수는 있겠는데, 그게 과연 취지에 부합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사장 임기 만료라는 부분이 저는 부당하다고 봐요. 없다고, 법에 없는 말이니까 틀렸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 이사 류영호

저기 집행부에, 집행부에 여쭙보겠는데요. 오늘 이사회가 이사장 명의로 소집됐습니까, 아니면 관례상, 어떤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 사장 김유열

집행부라고 하면 전데, 저는 이사회 소집과 관련해서는 제가 어떤 행정 행위를 하지는 않고요.

○ 이사 류영호

아니, 그러면 이사국에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 사장 김유열

사무국에서 행정 처리를 할 것 같은데,

○ 이사 류영호

이사국에서 오늘 이사회가, 분명히 저번 임시이사회는 전 유시춘 이사장 명의로 소집됐고,

○ 사장 김유열

저기, 제가 그냥,

○ 이사 류영호

오늘은 그렇지 않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 사장 김유열

저기 한번, 이사님들, 한번 제가 지금, 그냥 이견 아이디어입니다. 떠올랐는데, 사실 이사장님은 임시의장을 지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규정상으로는. 이사장님이.

○ 이사 류영호

이사장이 아닌데 어떻게..

○ 사장 김유열

아니 아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 이사 류영호

그래서 저번에 했으면 되는데,

○ 사장 김유열

그거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동의를 안 하는데, 만약에 그래도 임시의장이 진행하는 게 더 객관적이다 라고 하신다면 다섯 분과 네 분에 반 보씩 양보를 해서 임시의장을 이사장님이 지명을 하면 임시의장이, 옛날에 이준용 이사님이 진행을 한번 하셨었어요. 하셨었는데, 그런데 물론 그때는 이사장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았었을 건데, 혹시 이게 평행선을 계속 달리시면, 이견 사장으로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규정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의사 진행이 빨리 가려면 이사장님이 지명을 하신 분이 진행을 하시는 방법으로 하면 양쪽에서 약간 타협을 보시지 않을까요?

○ 이사 이준용

아니 그게 안 되는 이유가, 14일로 이사장 임기는 끝났어. 그래서 지금 이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 사장 김유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법무팀 얘기를 하셨잖아요. 공식적으로 문서로 자문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괜히 제가 나서면 안 될 상황이어서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정확하게, 초유의 일이라 법률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이렇게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그리고 사례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판례가. 판례가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해석이 강 이사님 말씀의 해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호연 이사님의 해석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럴 경우 전례가 없는 경우는, 대개의 경우는 이사회 자체에서 결정을 하는 게 구속력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법원에 가서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법률적으로 확정적인 거라고는 그렇게, 제가 아까 강 이사님, 이사장님께 있었으면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거를 하고 나서 있었는데도 안 하고 안 했는데도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여기 다 감사님도 계시고 다 계셔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게, 집행부가 나설 일은 아니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셔야만 초유의 사태가 해결이 되지, 법률적으로는 어차피 지금 이게 법원에 갔다 올 사안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률가들도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진리다 라고 딱 해서 타협이 안 되면 사실 평행선으로 지금 갈 수 뿐이 없습니다.

○ 이사 강규형

지금 사장님 말씀을 들으니깐 제가 전에 한 얘기랑, 전에 한 얘기랑 합치가 되는 게, 법률적으로 이사장 임기 연장이 되면 확실하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못 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이게, 그리고 조 이사님이 무슨 논리를 얘기하신 거 없어요. 그냥 ‘이사장 임기가 연장 안 된다는 조문을 갖고 와라’라고 느닷없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본인들이 갖고 오겠다고 하다가.

그리고 이런 것은 이사회에서 표결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결정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은 경영진이 회사의 대표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문제인데, 대표님이 또 부담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런데 법적으로 이렇게 모호한 게 있을 경우에는 일단은 중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하나의 선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여튼 법은 없어요. 그런데 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걸 갖다 대는데 이게 결정적인 게 없으니까 자꾸 궁색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시이사회 있는 날 제가 이사회 전에 “이사장님 요즘 나오시냐?” 그랬더니 이사장실로 나오신대요. 그래서 ‘어? 그거는 안 되는데..’ 그런데 막상 이사회 날은 또 안 나오셨어요. 이런 문제들이 까딱 잘못하면 법적 문제로 비화가 될 수가 있으니, 제 얘기는 임시이사회 체제로 가는 게 옳고, 간담회 같은 것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이걸 스켈레톤 체제로 간다 라고 얘기를 하죠. 스켈레톤 체제로 가는 게 EBS의 부담도 줄여주고 EBS의 재정적인 문제도 도움이 되고 하는 거지, 여기서 굳이 그렇게 무리하게 한다고 하면 정말 동티납니다. 동티납니다.

그런데 감사님도 여기에 감사로서 회사의 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관장을 하시는 분인데, 감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기타 등등, 역시 경영진의 한 분이시니까.

○ 감사 최기화

어쨌든 임기를 ‘만료됐다’ 또는 ‘임기가 연장된다’ 이런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사 임기는 연장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 그럼 그런 규정이 없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다 라면 이사장 임기는 종료된 걸로 봐야 되지만, 또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하고 해석을 하면, 또 그런 소극적으로 하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걸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 이사 강규형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률적 적극주의를 적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놓고 적극적 해석을 한다는 뜻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지금 안 돼 있는데 이거를 강행해 가지고 나중에 동티나고 그냥 문제 생기고 이런 거를 바라십니까? EBS의 위상이 지금 떨어졌는데 더 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 이사 문종대

양쪽의 공통점은, 저희는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 임시이사회, 이 이사회를 진행할 수 있는 진행자를 선정하고 의결안을 진행하는 게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사 강규형

일단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요. 사장님께서, B사 이사회에서 네 분이 연장이 되고 일곱 분이 새로 임명이 됐는데, ‘그럼 네 분은 전 기고 일곱 분은 다음 기냐’ 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것도 기수로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 사장 김유열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할, 지금 7기, 8기도 집행부에서 결정한 게 아닙니다. 이사장님 선정도

집행부가 관여된 것도 아니고 이사님들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8기 이사회 때 하셨기 때문에 B사가 어떻게 되느냐, EBS가 어떻게 되느냐를 제가 하기는 어렵고,

○ 이사 강규형

B사하고 지금 똑같은 법입니다.

○ 사장 김유열

예. 아니 아니요, 제가,

○ 이사 강규형

A기관은 완전히 다르고.

○ 사장 김유열

굳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면,

○ 이사 강규형

예.

○ 사장 김유열

대통령이 교체됐는데 장관이 전 정권 유임됐다 그러면 탄 정부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로 보면.

이사님들이 네 분이 남아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전기 이사회가 남아 있는 분이지만 사실 체제는 바뀐 거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B사는 이미 차수가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네 분이 8기냐, 9기냐’ 이걸 저는 잘 모르겠고, 거기에 새로운 이사장님이 호선 절차가 있었잖아요.

○ 이사 강규형

예. 똑같은 분이 됐습니다.

○ 사장 김유열

호선 절차가 있었고, 그거는 그 법에 의해서 호선을 하게 돼 있으니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EBS하고는 사정이 다,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 이사 강규형

그렇죠.

○ 사장 김유열

그러니까 이사님은, 이사장님은 동일한 분이시지만, 새롭게 방통위에서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이사님들을 지명하고,

○ 이사 강규형

그거는 다 아는 얘기고요.

○ 사장 김유열

예. 그래서,

○ 이사 강규형

그런데 네 분의 연장된 이사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4기 이사냐, 15기 이사냐' 이거 얘기 못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기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수 갖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다급하면 또 그런 논리가 나왔을까, 참 안타깝기도 한데요. B사의 그런 경우 때문에 기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고 하는 거, 그것도 증명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 이사 박태경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532호 안전에 대해서 따로 진행자가 필요하지는 않고요. 그것을 누가 진행할지는 그냥 순서대로 한 분씩 의견을 얘기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사 이준용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사회 진행 건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사회 진행자가 지금 골이 없는 겁니다, EBS 이사회에서는. 제가 계속 얘기한다고 그러지만, 13일 인가 14일로 만료됐습니다.

○ 이사 문종대

진행하시죠. 저는 그럼, 좋습니다, 의견 바꾸겠습니다. 유시춘 이사장님 계속 하시는 데 전 동의합니다.

○ 이사 박태경

예, 저도 동의합니다.

○ 이사 조호연

예, 저도 동의합니다.

○ 이사 문종대

세 분만 동의하나요?

○ 이사 류영호

아니, 회의, 회의 진행,

○ 이사 문종대

동의했으니까 진행하시죠, 이거.

○ 이사 류영호

저는, 저는 오늘 안전에 연장 확인이라는 유시춘 이사에 대한 그 안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전을 가진 본인이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 이사 박태경

지금 말씀이 이제 오늘의 회의를 일단 유시춘 이사장께서 진행하는 것도 효력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532호 안전 진행도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논의해서 누가 진행할 것을 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종대 이사 퇴실(16:30)》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다른 진행자를 뽑기보다는, 저는 한 사람씩 의견을 제시하면 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 이사 김선남

동의합니다.

○ 이사 강규형

일단 사무국장님, 제 법률적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받아가세요. 접수하십시오.

— 강규형 이사, 사무국에 자료 제출 —

○ 이사 류영호

아니, 본인하고 관련되는 내용을 심의하는데 그분이 의장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 이사 박태경

그러니까 각자 의견을 표시하시면 되는 거죠.

○ 의장 유시춘

이준용 이사님께서 굳이 제가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명료하게 말씀을 하시고요. 저하고는 생각이 다르게 또 이걸 8기 이사회의 연장이 아니라 임시이사회라고 아주 힘주어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지금. 그래서 다른 분이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이걸 하나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누구도 원치 않았던 이 초유의 사태가 언제 끝날지도 지금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통상 이사회 법과 정관 8조에 의해서 연장된 이사회라는 데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본인과 직결된 의결안건 제532호를 진행하는 것이 다수가 부당하시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옆자리로 가겠습니다.

《문종대 이사 재입실(16:32)》

그리고 한 분을 지명해서 이 의결안건 제532호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사 류영호

동의합니다.

○ 이사 문종대

예, 동의합니다.

○ 의장 유시춘

그리고 이사님들이 하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 이사 강규형

정관 8조는요, 이사의 연장에 관한 거지, 이사회 연장에 관한 건 아닙니다.

○ 의장 유시춘

그것도 다른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끌 것입니까?

○ 이사 문종대

예, 그렇게 하시죠.

○ 이사 류영호

지금 결정하라면 4:4가 될 건데, 이사장, 전 이사장님께서 그냥 ‘나는 빼고 해라.’ 이러면 제일 빨리 끝날 것 같은데,

○ 의장 유시춘

그게 법에 온당합니까, 류영호 이사님? 참고 참고 들으니까 너무하십니다.

- 이사 류영호
아니, 그러면,
- 이사 박태경
이사장님, 순서를 진행하죠.
- 이사 류영호
그럼 본인은 본인이 하고 싶다 하면 이게 또.
- 의장 유시춘
그러면 제, 제 자리에 오셔서 진행하실 분 우선, 자원하실 분 제가 받습니다. 너무나 불편합니다.
- 이사 문종대
먼저 이사장님이 낸 안에 대해서, 의안에 대해서 먼저 결의하시죠.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죠. 이게 지금 진짜 부끄럽,
- 이사 박태경
회의가 안 끝날 것 같습니다.
- 이사 문종대
되게 부끄럽습니다, 진짜. 이사회가 EBS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 이사 류영호
그래서 그냥, 그다음에, 그다음 연장자인 이준용 이사님이 하셔서 빨리 끝냅시다, 이거.

《신동호 이사 퇴실(16:34)》

- 이사 문종대
이준용 이사님, 그다음에,
- 의장 유시춘
이준용 이사님, 어떠십니까? 진행하시겠습니까?
- 이사 류영호
이준용 이사님이 진행하셔서 빨리 이제 끝내고 갑시다.

○ 이사 이준용

정회하고 합시다.

○ 이사 조호연

아니, 뒤에 근거해서 연장자를 한다는 거예요?

○ 이사 류영호

지금 또 다 얘기됐는데 조호연 이사님은 또.

○ 이사 문종대

아니, 그건 두 분이 동의한 거고, 동의 안 했는데, 우리.

○ 이사 조호연

뒤에 근거해서예요, 그게? 다 얘기됐다는 게 뭐 도대체..

○ 이사 류영호

아니, 지금, 지금 유시춘 이사님께서,

○ 이사 조호연

아니,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날로 강행을 하셔놓고,
그러고는 시간이 안 됐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의제도 좀 문제, 제가 곧, 의제도 제가,

○ 이사 류영호

지난 번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 이사 조호연

아니, 왜요? 아니, 얘기를 하는 건,

○ 이사 류영호

지금 유시춘 이사님께서

○ 이사 조호연

말씀이 틀리니까.

○ 이사 류영호

의견을 내셨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라고 여쭙보셨잖아.

- 이사 조호연
아니, 의장이,
- 이사 박태경
그러니까 한 분씩 의견을 제시하시면 되죠.
- 이사 조호연
이사장이 말씀하시면 다 동의해야 되나요, 그게?
- 이사 류영호
그래서 수락만 하시면 끝나잖아요.
- 이사 박태경
저희 둘은 유시춘 이사장님이 지속되는 것이 동의한다고 했고, 유 이사장님은 이준용 이사님 말씀하셨고, 예.
- 이사 류영호
본인이 민망하니까 하실 건지 의사를 물어봤는데, 또 저쪽에서는,
- 이사 조호연
이사장.. 류영호 이사님, 제가 특정 이렇게 거명을 해서 죄송한데,
- 이사 류영호
아니, 다른 얘기 자꾸 하시니까 그렇죠.
- 이사 조호연
다른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말할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을 하면 마치 얘기가 다 됐는데 뒤에 와서 이렇게 반박을 한다 라고 하시는데,
- 이사 류영호
아니,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시간만 가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 이사 김선남
아니, 아까 유 이사장님께서,
- 이사 조호연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 이사 김선남

유 이사장님께서 사장님 아이디어를 지금 받아들이신 거예요?

○ 이사 조호연

아니, 그거 하고 또 다른 거예요.

○ 이사 류영호

그러니까 지금 유시춘 이사님께서 이준용 이사님께 의견을 들어봤는데, 또 그게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지금,

○ 이사 김선남

사장님 아이디어잖아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이준용 이사님한테 요청을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 이사 류영호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의견을 들어보고 난 뒤에 얘기하시죠.

○ 이사 조호연

뭘, 뭘 들어본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의견을 얘기를 할 상황이죠, 이제는. 유시춘 이사장님께서 이준용 이사를 거명을 했어요?

○ 이사 류영호

하- 참 미치겠네.. 속기록을 한번 보여주시죠.

○ 이사 문종대

그렇게, 유시춘..

○ 이사 조호연

하실 분을 자원하시라, 이렇게 얘기했죠.

○ 이사 류영호

자원하시라고 해 놓고 난 뒤에, 다시, 제가 ‘이준용 이사님 하시면 좋겠다.’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 이사 문종대

그럼 이준용 이사님, 임시 이사장으로 추천됐고요. 잠시만요.

○ 이사 조호연

그러면 다른 이사들도 의견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걸 못 하게 해요?

○ 이사 김선남

제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 이사 류영호

할 수 있는데, 본인이,

○ 이사 김선남

류 이사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 이사 박태경

김 이사님, 정리하세요.

○ 이사 김선남

아까 사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신동호 이사 재입실(16:36)》

유시춘 이사장님께서 다른 분한테 부탁을 하는 방안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사님들께서는 그렇게 위임하시는 것, 부탁하는 것을 수락을 하실 겁니까? 하신다면, 아까, 방금 유 이사장님께서 이준용 이사님한테 ‘이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까.’라는 말씀을 수락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 이사 류영호

예, 그래요. 수락하시면 끝나고, 안 하면 또 다른 사람 하면 돼요.

○ 이사 이준용

했어요, ‘Okay’.

○ 이사 김선남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 이사 박태경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인정을 해야지만 그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 이사 김선남

인정을 해야만이 유시춘 이사장님, 이사장께서 말씀한 부탁을 우리가 수용하는 거죠

○ 이사 류영호

누가 인정..

○ 이사 이준용

이사들이 과반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 이사 류영호

그러니까 과반, 하시겠냐고 물어봤으면 본인은 추천했으니까, 인정하니까 네 사람 인정하면 다섯 명 되는 거잖아요

○ 이사 김선남

그러면 사장님께서 내신 아이디어가,

○ 이사 류영호

예. 그래서 이제 진행되고 있으면 빨리 해서 가자는 거지, 자꾸 또 다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 이사 김선남

수용되는 거죠?

○ 이사 박태경

그러니까 그 방법을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 이사 문종대

그러면 나중에 이사장님이 의안 532호일 때는 유시춘 이사님, 이사장님께서 다른 분을 한 분을 지명하면 그분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이사 류영호

무슨 얘기..

○ 이사 문종대

아니, 지금 그 이야기잖아.

○ 이사 박태경

예, 그 얘기죠

○ 이사 문종대

그 얘기가 먼저 의결이 돼야지.

○ 이사 이준용

아까 얘기는, 오늘 이사회, 임시이사회도 아니고 이사회 문제를 누가 진행하느냐고 지금 논의가 된 겁니다. 이 안건 갖고 디테일로 세부 안건을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런데 자꾸만 말이 바뀌면 이젠 회의 잘 안 되죠

○ 이사 문종대

아니 그러니까 이사회 운영을, 그러면 지금, 빨리 지금 우리가 추천을 해 가지고 안건 531호와 532호를 빨리 의결하시죠 지금 이게 중요하지,

○ 이사 류영호

그러니까 임시의장을 이준용 이사님이 맡아서 의결하고, 그다음에 되는 사람이 계속 연장 되면, 유시춘 이사님이 연장됐다 하면 그때 이 본안에 대해서 하시면 되지.

○ 이사 문종대

아니, 그것은 류 이사님 주장이고, 이준용 이사님을 추천한 건 류 이사님 생각이시고, 다른 분들의 생각은 아니다 이 말이죠

○ 이사 류영호

내가 추천했는데, 추천했는데,

○ 이사 문종대

추천, Okay, 추천.

○ 이사 류영호

유시춘 이사님께서 ‘하실 겁니까?’ 물어봤잖아요. 그걸 자꾸 없앨려고 하시네.

○ 이사 문종대

자, 이준용 이사님 추천됐고요

○ 이사 조호연

아니, 세 분이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다른 분도 의견을 낼 수가 있죠

○ 이사 류영호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셨으니까 본인이 동의하시는지 들어보고,

○ 이사 조호연

아니,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도 의견을 낼 수 있다 이거지.

○ 이사 박태경

다른 이사들의 의견도 들어보셔야죠.

○ 이사 류영호

들어보는데, 들어보시면, 유 이사님이 추천하셨으니까 동의하는 거로 보고, 다른 사람 네 사람이 동의하면 되잖아요.

○ 이사 조호연

그러니까 그 동의 절차를 받은 의견을 받아야지,

○ 이사 문종대

동의를 받아야죠.

○ 이사 조호연

의견을 안 받고서 얘기할 순 없죠.

○ 이사 류영호

그러니까 지금 동의를, 본인 의사부터 물어봐야지,

○ 이사 조호연

아니, 제가 얘기를 하니까 왜 또,

○ 이사 류영호

본인이 안 하겠다는데 동의 받을 필요 없잖아요.

○ 이사 조호연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걸 또 왜 뒤에서 다 결정됐는데 이제 와서 따지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드린 거예요.

○ 이사 류영호

그게 아니..

○ 이사 조호연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 이사 류영호

아유.. 참내..

○ 이사 강규형

빨리 하시죠

○ 이사 김선남

저는 사장님께서 내신 아이디어를 두 분,

○ 이사 박태경

수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셔야죠

○ 이사 김선남

그렇죠, 두 분께서 동의하신 걸로 짐작이 되고, 또 유 이사장님께서도 또 이준용 이사님한테 요청하는 걸 보면 우리가 전반적인 의견을 빠른 시간 안에 수렴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안에 대해서.

○ 이사 류영호

가능하잖아요

○ 이사 조호연

저는 그 안에 반대합니다.

○ 이사 류영호

반대하는데, 일단 이준용 이사님이 받아들일 것인지,

○ 이사 이준용

받아들입니다.

○ 이사 류영호

받아들입니까?

○ 이사 이준용

예.

○ 이사 류영호

그러면 저는 동의합니다. 그럼..

○ 이사 문종대

저는 이준용 이사님이 사회 보는 것 반대합니다.

○ 이사 박태경

저도 반대합니다.

○ 이사 조호연

저는 다른 분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박태경 이사님 추천합니다.

○ 이사 박태경

저도 반대합니다.

○ 이사 류영호

일단 반대인지 아닌지 보고 난 뒤에 얘기합시다.

○ 이사 조호연

아니, 저의 의견을 다 말씀을 드릴게요.

○ 이사 류영호

그럼 다섯 명이 되는 거잖아요.

○ 이사 김선남

저는 사장님 아이디어를 세 분이 동의하신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사장님 아이디어를 동의합니다.

○ 이사 문종대

사장님 아이디어를 동의하시는 겁니까? 사장님 아이디어에서 뭐냐 하면, 이사장님이 할 때 이준용 이사님이 그다음에 진행하는 것까지 동의하시는 겁니까?

○ 이사 김선남

지금 저는 사장님 아이디어를 두 분 이사님께서 동의하신 듯한 느낌을 받았고, 또 덧붙여 유 이사장님께서 ‘한번 해 보실랍니까?’라고 여쭙보는 걸 보면 상당부분 동의하신 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 아이디어를 세 분이 동의하신 것 같고, 저도 그렇다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 이사 강규형

그럼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 이사 박태경

저는 사장님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사장님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등하게 그냥 진행자를 선출할 필요 없이, 이 부분은 한 분씩 그냥 의견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 이사 류영호

지금 여기는 다 얘기했는데 또 다른 얘기..

그럼 벌써 네 사람에다가, 네 사람 동의했고 유시춘 이사님께서 동의한 걸로 보면 다섯 명이고, 신동호 이사님 말씀 안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 이사 신동호

동의합니다.

○ 이사 류영호

그러면 여섯 명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됐잖아요.

○ 이사 문종대

잠깐만요. 이게 절차상 두 개의 안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이사장님이 이 안을 진행을 하다가 532호 안건이 올 때는 그때는 이사장님 추천한다, 이게 1안. 그다음에 그게 통과 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진행을 누가 할 거냐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걸 지금 같이 동시에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 이사 이준용

아니, 아까 그 얘기는 아니고, 오늘은 이사회기 때문에, 오늘 이사장이 없기 때문에 이사를, 이사회 진행을 누가 하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 대 건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진행자는 선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후임 이사장을 뽑든 돌아가면서 하든 나이순으로 하든 이런 게 결정된다는 거죠.

○ 이사 류영호

제가 절충안으로, 절충안으로, 여기 안건이 지금 531호, 532호 있잖아요. 보고안건도 있는데, 일단 532호 안건에 대해서 임시의장, 이준용 이사님이 앉으셔서 해결한 뒤에 거기에서 연장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 이사장으로서 535호 안건을 그때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 이사 조호연

사장께서 말씀하신,

○ 이사 류영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이사 조호연

사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아까 제가 듣기로 워딩은 ‘지금 임시, 의장에 대해서 사회를 보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면 이사회 내부에서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보기에는 의장께서 누구 한 사람 이사를 한 분을 지명을 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안을 제안을 하나 하신 거고요. 그런데 그 지명한 사람을, 지명을 함으로써 그것이 임시이사회가 된달지 그 사람이 임시 이사장이 된달지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 이사 박태경

예.

《강규형 이사 퇴실(16:43)》

○ 이사 조호연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덧씌워서 만약에 하기로 한다면 저는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원래대로 지난번 임시이사회 때 다들 참석을 해서 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사 김선남

맞습니다.

○ 이사 류영호

그래서 절충, 절충안으로,

○ 이사 조호연

절충안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 이사 류영호

아니,

○ 이사 조호연

어떻게 임시이사회가 됩니까?

○ 이사 류영호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금 진행이 안 되는데,

○ 이사 조호연

왜 진행이 안 됩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건데.

○ 이사 류영호

아니, 그러면 531호 할 때는 유시춘 이사님이 회의를 보고 있다가, 532호 할 때는 또 이준용 이사님이 하고,

○ 이사 조호연

아니죠. 이준용 이사가 해야 될 이유가 없죠, 현재는.

○ 이사 류영호

아니죠. 하자고 다 얘기됐는데 갑자기 왜 그래요?

○ 이사 조호연

또 다 됐다고 얘기하시네. 지금, 조금 아까,

○ 이사 류영호

아니, 최소 6명, 5명이 지금,

○ 이사 조호연

아니, 다들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장님 안건은, 제안은,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대로이지, 그걸 가지고 임시 이사회라든지 또 임시의장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단 말씀이에요.

《김선남 이사 퇴실(16:44)》

○ 이사 이준용

잠깐 정회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 회의하시죠. 부탁드립니다.

○ 이사 류영호

예, 그렇시다.

○ 이사 문종대

10분 쉬십시오. 너무 열심히 한다.

○ 이사 조호연

정회합니까?

○ 이사 문종대

정회합시다.

○ 의장 유시춘

아니,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정회 발표도 못 하겠습니다.

○ 이사 박태경

예, 정회 하시죠.

《정회(16:44)》

《속개(17:00)》

○ 의장 유시춘

제가 지금 이 자리가 너무 바늘방석이어서요, 오늘만은 여기 이 자리를 빨리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좀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이사 문종대

예, 진행하십시오.

○ 의장 유시춘

회의 속개 하시지요.

○ 이사 문종대

앞에 유시춘 이사장님이 531호는 진행을 하고 532호는 다른 분이 진행하는 걸로 해서 하자. 그래서 그때 그러면 1안이, 531호는 유시춘 이사장님이 하고, 532호는 이준용 이사님이 진행하는 걸로 하자는 의견이 하나 나왔고, 또 다른 하나의 제 의견은, 사실은, 저는 유시춘 이사장님이 1안은 하고, 2안은, 532호는 저는 박태경 이사님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 2개를 놓고 병합해서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앞에 이야기했듯이 1안, 먼저 ‘유시춘 이사장님이 1안을 하고 2안은 유시춘 이사장님이 지명한다.’ 여기까지만 먼저 결의를 하고 그다음 안으로 넘어갈 건지, 그걸 좀 빨리 결정해 주면 이 회의가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이사 이준용

그런데 오늘 이사회 진행을 놓고 모였는데, 그럼 또 바뀐 안이에요. 아까 전, 휴식하는 동안에 나왔던 얘기하고 또 다른 얘기인데.

○ 이사 류영호

그러니까 의결안건을 순서를 바꾸면 되잖아요, 순서를.

○ 이사 박태경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사 류영호

예. 순서를 바꿔서,

○ 이사 박태경

누가 진행을 하건, 예, 532호를 해서 결정을 해서,

○ 이사 문종대

그렇죠

○ 이사 류영호

예,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왜..

○ 이사 박태경

유시춘 이사장님이 자격이 있는지를 정하고 나머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이사들 있음]

그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 이사 류영호

그리고 532호 안건을 이준용 이사님이 본 이사회 360회, 360회 이사회 532호 안건 의결부터 회의 의장을 맡으셔서 360회 이사회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결정에 따라서 이제 그분이 하시면 안 되겠나.

○ 이사 문종대

예,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 이사 조호연

아니, 그게 무슨 얘기에요? 이준용 이사가 의장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 이사 류영호

아, 또.

○ 이사 문종대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안건을 낸 거예요. 안을 낸 거고, 제 안은, 저는 박태경 이사님이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 이사 조호연

아니 그러니까, 안건을 냈으니 제가 여쭙보는 거예요. 왜 이준용 이사가 의장이 되는 거죠?

○ 이사 문종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을 낸 거라고요.

○ 이사 류영호

아니, 조호연 이사님은,

○ 이사 조호연

아니, 안건을 냈으니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이사 류영호

아니, 조호연 이사님은 이사회 내용을 안 들으시는 것 같애.

○ 이사 박태경

아니, 그러지 마시고, 그럼 각자 의견을 내시죠.

○ 이사 류영호

아니, 다 얘기가 해 가지고 6명이나 동의한 내용을 모르시나요?

○ 이사 문종대

이렇게 안이 나왔으니까 각자 안을 내면 다수결이 나오겠는데요.

○ 이사 조호연

누가 동의했어요? 동의 안 했습니다.

○ 이사 류영호

누가 또 동의..

○ 이사 조호연

한번 물어보세요. 동의하지 않았어요.

○ 이사 박태경

조 이사님, 잠깐만요.

○ 이사 류영호

아, 조 이사님 정말..

○ 이사 박태경

지금, 류 이사님,

○ 이사 류영호

모르쇠로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 이사 박태경

류 이사님, 잠깐만요. 저도 동의하고 지금 문 이사님도 동의한 거는, ‘일단 누가 진행을 하건 532호를 먼저 해서 유 이사장님의 자격을 정한 다음에 나머지를 하면 좋겠다’ 이거고요.

○ 이사 문종대

예.

○ 이사 박태경

저는 거기까지입니다. ‘이준용 이사님이 한다, 안 한다’ 이거를 제가 동의한 건 아니고요.

○ 이사 류영호

그거는 지금 잠시 금방 나온 거..

○ 이사 이준용

아니, 제 얘기라서, 아까, 전에, 뭐하기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또 뒤로 다시 Back 했는데, 논의 이러면 안 됩니다.

○ 이사 문종대

그때 결의됐나요? 결의된 사안은 아닌데?

○ 이사 이준용

6명이 ‘동의합니다’ 해 가지고,

○ 이사 류영호

아니, 6명이 ‘Okay’ 했잖아요.

- 이사 박태경
6명 동의 안 했습니다.
- 이사 문종대
누가 동의했죠?
- 이사 류영호
'Okay'하고 잠시 이제 정회,
- 이사 문종대
아니, 누가 동의했냐고요.
- 이사 조호연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합시다.
- 이사 김선남
잠시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 이사 조호연
예.
- 이사 김선남
아까 사장님의 중립적인 아이디어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다시 한 번 사장님께서 서로 양보하고 불만을 상쇄시키는 상쇄하는 가장 중립적인 방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감합니다. 한 번만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 사장 김유열
저는 제가 감히 끼어 들 자리는 아닌데, 이사장님이나 이사님들 전체가 좀 명분도 얻고 실리도 얻는 안은 없을까. 이런, 해서 아까 아이디어 말씀을 드린 건데, 이사장님이 지금 이사회 임시의장을 지명할 수 있는 지명 권한이 있으세요. 물론 유고 시입니다, 규정상으로는. 유고 시에 지명할 권한이 있으신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사님들이 다 동의를 하시면, 전, 전 이사님들이 다 동의를 하셔야죠. 동의를 하시면 스무스하게 가는데, 동의를 안 하시면 또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이사 류영호
동의를 만장일치라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 사장 김유열

아니, 그게 만장일치가 아니고, 지금도 사실은 만장일치로 가는 게 아니고 과반수로 가니까요. 그런데 그때 컨센서스, 지금 이거는 운영의 묘, 사실은 원칙상으로는 유고가 아닌데 이 조항을 적용하는 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사님들이 다, 아홉 분이 이사장님 포함해서 익스큐즈가 되면 그렇게 해서 가는 걸 아이디어로 냈던 거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지명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아니면 이 자체를 이사님들이 어그리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가 논의가 되셔야 될 겁니다.

○ 이사 류영호

그래서 의견을 유시춘 이사님이 물어보셨고,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5명 동의했고, 유시춘 이사 물어봤으면 동의한 거나 같으니까 6명이 동의,

○ 이사 문종대

다섯 분이 동의했어요?

○ 이사 류영호

예.

○ 의장 유시춘

송구합니다. 제가,

○ 이사 류영호

김선남 이사님 동의했잖아요.

○ 의장 유시춘

류영호 이사님, 잠시만요.

○ 이사 조호연

동의한 부분이, 사장님이 말씀한, 제가 자꾸 동어반복을 자꾸 해서 죄송한데, 사장이 말씀하신 그 취지에 따르면, 새로운 분이 회의를 진행을 하는 이유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사장께서 회의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논란이 계속돼서 무의미하게 의결 사항을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 다른 분이 맡아서 회의를 임시적으로 하시는데, 다만 그분한테 어떤 임시의장이랄지 또는 임시이사회랄지 이런 식의 프레임을 끼워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사장의 말씀을 동의한 것이고 그렇게 한 것이지, 그 뒷부분까지 다, 말하자면 임시의장이라든지 임시이사회라든지 이런 프레임에 동의를 한 건 아니라는 말씀

입니다. 만약에 그게 동의가 됐다면 지난번 임시이사회에 이미 다들 참석을 해서 다 동의하고 해결을 했을 거예요. 임기 만료나 이런 부분들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그게 뜻이 다르기 때문에 불참했던 것이고, 똑같은 취지로 똑같은 맥락으로 오늘 또 이 사안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지목을 해서 했다고 하면 잘못된 오해 속에서 누구를 선임하고 선정하고 하는 것들이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이사 이준용

저는 발언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사회는요, 저는 시작부터 지금 개의도 못 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모든 말들이 다 속기록을 확인해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 ‘이사회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동의하니까 류영호, 강규형, 김선남, 신동호 이사가 ‘Okay’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회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개회한 겁니다.

그러면 또 이걸 안전을 또 1안이나, 2안이나 가지고 계속 논의하면 문제가 있다 라고 보고, 두 번째, ‘유고’라는 건 그건 의장이라는 자리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도요, 안에 계셔가면서 피곤하니까 부의장한테 바로 그냥 주고 넘어가면, 의회에 있으면서도 부의장이 하고 또 제2의 부의장 해 갖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회의 진행 의장은, 의장은 그날 여기에서 호선해 갖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큰, 법적으로 하자가 저는 있다고 보지 않는데,

○ 이사 조호연

아니 이제 그거를,

○ 이사 이준용

잠깐만. 그 말 사가를 가지고 따지면, 지난번 이사회 건 가지고 또 말씀을 하시면 이거 뭐 끝이 없죠.

○ 이사 조호연

맥락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한 분께서, 마치 이제, 지금 말씀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실 분을 선임을 하는데 그 회의를 하는 것이 임시이사회고 의장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그렇지 않다. 다른 분 동의하신, 이미 전에 동의하신 분들도 그런 취지까지 포함해서 동의한 건 아닐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확인해 보니 그것이 맞았어요.

○ 이사 류영호

언제 확인하셨죠? 언제?

- 이사 조호연
예?
- 이사 류영호
언제 확인했어요?
- 이사 조호연
언제 확인했냐고요?
- 이사 류영호
밖에 나가서 확인했어요?
- 이사 조호연
아, 그럼요.
- 이사 류영호
밖에 나가서 확인한 게 그게 무슨.. 아 참..
- 이사 조호연
아니, 아니 그러니까,
- 이사 류영호
아니, 여기 이사회가 뭐 속닥하게 밖에 나가서 얘기한 것을 여기서 의결된 것 같이 얘기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 이사 조호연
그러면 세 분이
- 이사 문종대
진행합시다. 결의된 결로 뭐, 결의됐다면..
- 이사 조호연
그러니까 여러 사람 의견을 찬찬히 다 듣고, 그다음에 그 의견이 어떤지를 합치해서 봐야지, 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유시춘 이사장께서 누구를 지정을 하고, 또 한 사람이 동의하고, ‘아, 다 됐네. 찬성을 했으니 됐네.’라고 하면 그다음에는 이의 발언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 이의를 듣고 나서 다른 이사들이 ‘아,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게 이견 진행이 됐네.’라고 다시 또 의견을 다시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 이사 이준용

아니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동의받기 전에 해야지.

○ 이사 류영호

아니, 동의의가 과반수 이상 됐는데,

○ 이사 조호연

아니 아니,

○ 이사 이준용

동의가 됐는데 또 다시 이야기하면 그거는..

○ 이사 조호연

아니 아니, 그거는 얘기를 다, 끝까지 다 들어야 돼요. 듣고 나서 해야지, 마치 그 뒤에 얘기하는 사람이 무슨 어디 다른 데 나갔다 온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시면서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죠.

지난번 회의를 제가 얘기한 거는, 제가 시간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잘됐다 싶어서 회의를, 임시회의를 그냥 강행하는 것처럼, 그때도 막 제 의견을 완전히 무시했잖아요. 제가 시간이 도저히 안 된다고 했는데도 무시하고 그냥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진행 방식에 대해서, 아니, EBS 이사회는 좀 어떻게 보면 교육방송의 이사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를 해야지, 나한테 좀 유리한 상황이 전개된다고 그냥 몰고 갈 필요는, 그리 되면 우리 앞으로 계속 얼굴 볼 건데,

○ 이사 류영호

어떻게, 저번 임시이사회도 조호연 이사님이 안 나오신다고 해서 어떻게,

○ 이사 조호연

‘조호연’입니다.

○ 이사 류영호

어떻게 유리한 거예요?

○ 이사 조호연

아니, 지금 얘기는,

○ 이사 류영호

네 명이 발의했다고 해서 네 명이 표결해서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유리해요?

○ 이사 조호연

그러면 왜 강행을 그냥 하셨어요? 제가 반대하는데도.

○ 이사 류영호

아니, 논의를 같이 해 보자고 또 그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 이사 조호연

‘논의를 해 보자’가 아니라, 의결을하기로 한 거잖아요.

○ 이사 류영호

의결을 하지만 의결이 안 되는 거 뻔히 아시잖아요.

○ 이사 조호연

아니, 이사장 임기 만료에 따른 선임. 이사장 선임.

○ 이사 류영호

소집을 해 놓고 의장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안 나오고 이런 부분, 국회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어요.

○ 이사 문종대

하나만 물어볼게요.

○ 이사 조호연

아니, 이사장은 이사 아십니까? 본인 의사 표시, 불참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못 했다 라고 하면,

○ 이사 류영호

아니, 무책임하다는 거죠.

○ 이사 문종대

사무국장님, 우리가 이사회의 의결이 참석자의 과반수입니까, 아니면 이사 전체,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재적이사의 과반수입니다.

○ 이사 문종대

재적이사의 과반수입니까?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예.

○ 이사 이준용
과반 참석에 과반 아니고?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재적이사의 과반수 찬성 의결입니다.

○ 이사 조호연
재적이예요, 재적.

○ 이사 류영호
재적이사의 과반수지.

○ 이사 문종대
그러니까 그제,

○ 이사 조호연
다섯 명이 돼야 돼요.

○ 이사 이준용
다섯 명이면 되잖아. 과반에 과반 아니고?

○ 이사 류영호
그러니까, 다섯 명이 돼야 되는데 자꾸..

○ 이사 문종대
아니 그러니까 재적이사, 재적이사 아홉 명의 과반수가 돼야 의결이 된다 이거죠?

○ 이사 류영호
그것도 아직 모르시고 계셨나보네.

○ 이사 문종대
나는 다수의 그건 줄 알고

○ 이사 류영호
그거 모르시고 그럼 저번에 불참하셨구나. 보니까.

○ 이사 문종대

그것 때문만은 꼭 아니고, 안이 그렇다 이 말이야, 안건이. 그다음에 나 바꿨어.
아, 죄송합니다.

○ 이사 류영호

하여튼 좀 빨리 합시다.

○ 의장 유시춘

제가 이거 본인과 관련된 문제가 돼서 너무 당혹스러워서 회의를 좀 깔끔하게 진행하지 못해서 먼저 좀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결코 이준용 이사님이 말씀하시는 현재의 이사회가 임시이사회고, 8기 이사회의 연장이 아닌 임시이사회고, 이 임시이사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임시, 진행하는 의장이 필요하다는 말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까 강규형 이사님이 말씀하신 법률적 적극주의의 관점에서 봐서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또 둘째, 아까 사장님이 유고 시에 지명 권한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은 유고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의 진행이 참 정교하고 확실하고 깔끔하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서요 아까 제가 김선남 이사님의 말씀을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532호 제8기 EBS 이사회 직무수행의 연장에 따른 이사장 직무수행 연장 확인을 하는 것이 본인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저와 9월 14일 이후의 임기의 자동 연장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대 의사를 가진 분에게 이 진행을 맡기는 것은 제가 부정직한 태도라고 스스로 자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지금 여기 앓을 자격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끊어서, 제가 지금 얘기한 1과 2의 관점에서 박태경 이사님을 오늘 안건 상정을 한 것을 진행해 주시기를, 저에게 지명 권한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 이사 류영호

아, 그거 아닙니다.

○ 의장 유시춘

요청합니다.

○ 이사 류영호

아니 아니, 무슨,

○ 의장 유시춘

이상으로 끝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이사 류영호

무슨 말씀을..

○ 의장 유시춘

저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 유시춘 이사장, 이사석으로 이동 -

○ 이사 이준용

지금 이사회, 이번 이사회 개최도 하지 않은 상황인데,

○ 이사 류영호

아.. 완전히..

○ 이사 이준용

두들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법적 하자가 큰 겁니다. 아니, 이사회 개최
방향이 치지도 않고 이걸 무슨 뭐..

갑시다.

○ 이사 류영호

아니, 동의를, 동의를 재적위원의 다섯 명이 했는데 그걸 또 무시하고,

○ 의장 유시춘

그건 의결, 의결은 아니고요,

○ 이사 류영호

자기들끼리 가서 쑥덕쑥덕하고 난 뒤에는 다시 이걸 뒤집는 이런 게 어디..

○ 의장 유시춘

의견을 여쭙어 본 것입니다.

○ 이사 류영호

이런 게 어딴습니까?

○ 의장 유시춘

의견을 여쭙어 보셨습니다, 제가 아까.

○ 이사 이준용

아니, 개회도 안 했는데 두들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 이사 류영호

아니, 의장도 아니고, 다섯 명이 동의했으면 그거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사 이준용

이사회 개회도 안 했는데 어떻게 방망이를 두들기나.

○ 이사 류영호

너무하시네, 정말.

○ 이사 문종대

개회는 했습니다, 개회는. 아까.

○ 이사 이준용

개회 언제 했어요?

○ 이사 박태경

아까 개회 됐죠

○ 이사 류영호

아니, 이렇게 계속 뒤집고,

○ 이사 문종대

개회는 했습니다.

○ 이사 이준용

개회 안 했어.

○ 이사 문종대

했을 걸요. 한번 보시죠.

○ 이사 류영호

무슨 개회를 했어요?

○ 이사 이준용

안 했어요. 방망이 친 적이 없습니다.

○ 이사 문종대

아까 두들기면서 안 했나, 개회사? 개회?

○ 이사 박태경

개회사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 이사 류영호

아니, 무슨 개회를 했어요? 개회..

○ 이사 문종대

개회, 한번 보세요. 개회는 했습니다. 개회 했습니다.

○ 이사 강규형

개회 하신다고 했는데, 이준용 이사께서 의사진행발언 한다고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 이사 이준용

예. 갑시다.

《이준용 이사 퇴실(17:17)》

○ 이사 박태경

개회는 된 거죠.

○ 이사 류영호

아니, 아니, 다섯 명이 동의했으면 그거대로 가야 되는 거지, 뭐 또 갑자기, 정회 시간에 자기들끼리 쑥덕쑥덕해서 이제 와서 또 엉뚱한 사람을 지명하고 뭐 이런.. 참, 이게 무슨 교육방송의 이사..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 이사 문종대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태경 이사님 진행하시죠, 그러면.

○ 이사 박태경

제가 진행을 할까요?

- 의장 유시춘
진행하십시오.
- 이사 류영호
아니 무슨 진행,
- 의장 유시춘
언제까지, 언제까지 잡니까, 이거를?
- 이사 류영호
아니, 다섯 명이 인정도, 인정한 사람을 안 시키고 무슨..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걸, 이거는 위법입니다, 위법.
- 의장 유시춘
제가, 제가 아까 의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이사 류영호
무슨 의결권이 있어요? 우리끼리 얘기해 가지고 다섯 명이 나왔으면 그게 의결된 거지.
- 이사 박태경
아니, 근데 합의가 된 건 아니었죠.
- 의장 유시춘
아까 합의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을 여쭙어 본 것이지 않습니까.
- 이사 류영호
그래서 다섯 명이 동의했으면 합의된 거죠.
- 이사 강규형
아니,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꾸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 이사 류영호
아니, 지금 이준용 이사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 하겠다고까지 동의하고 우리가 또
동의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 지명해 버리면 저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셔서 나가셨잖아요.
- 이사 강규형
이렇게 막 바꾸고 그러는 게,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고 거기에 대한 근거 법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갖고 오신다고 하고는 엉뚱하게 지금 ‘안 된다는 근거를 갖고 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유시춘 이사님.

○ 의장 유시춘

예, 말씀하세요.

○ 이사 강규형

대승적으로, 이거 법적으로 해결하기가 힘들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가야 되고, 이거 EBS 이사회가 이렇게 법적으로 가는 것 자체가 참 저는 보기가 안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임시, 제1안을 좀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임시이사회로 가면서 임시의장을 끝날 때까지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이사장이나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를 안 받아들이시면 이게 욕심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임시의장으로서 계속 하시는 안도 제가 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지금 회사 법무팀도 이사장님 참 편을 들고 싶지만 그렇게 못 들어줘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좀,

○ 이사 박태경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 이사님.

○ 이사 강규형

예. 조금 좀 유시춘 이사님의 결단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거 계속 파행으로 갈 수도 없고요. 아 참 그, 답답하네요.

○ 이사 박태경

지금은 진행 방법을 논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꼭 진행 안 해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이준용 이사님이 안 계시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그럼 의논을 하시죠.

○ 이사 류영호

이준용 이사님 어데 한번.. 가서 좀 모시고 오시죠. 가셨나?

○ 이사 박태경

이준용 이사님을 모시고 오시든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을 정하시든지 뭐..

○ 이사 류영호

아, 그렇게 또..

이준용 이사님이 임시의장을 맡고 싶어 했겠어요? 본인이 또 결단을 내리셔서 하시겠다 했으면 그걸 좀 인정해 주시고 해서 빨리빨리 끝내면 되는데, 이걸 또 왜 이렇게 뒤집어서 또.. 하 참 이해가 안 되네, 정말. 이게 무슨..

○ 이사 박태경

그나저나 지금 안 계시니까,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죄송합니다만 이사님들께 진행발언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실은 잠깐, 좀 전에, 오늘 360회 이사회 관련해 가지고 회의 진행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제가 성원보고를 드렸고 방청 상황까지 말씀을 드린 다음에 개회 선언을 하시기 전에 개회, ‘개최를 하겠다. 360회 개최를 하겠다.’라고 하는 멘트가 나오.., 그렇게 정확하게 되기 전에 이준용 이사님께서 “회의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맞물려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저희들도 참석해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는 이게 속개가 됐다 라고, 이사회 속개가 됐는지 여부 자체가 약간 조금 애매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속기록은 다 작성은 되고 있지만, 이사회가 정식으로 시작이 됐는지 여부가 약간 조금 애매함이 있다.

혹시 발언 확인 가능할 수 있을까요, 속기사님?

○ 이사 류영호

자, 그러면,

○ 이사 문종대

그러면 이사장님, 다시 이사회 개회 하시죠

○ 이사 류영호

아니, 개회하는 게 아니고, 이게 또 순조롭게 가려면 이준용 이사님이 오셔서 지금 이 안전에 대해서 임시이사회를 하고 난 뒤에 하는 방법, 아니면 이제 오늘은,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다음으로, 일주일 뒤에 다시 합시다.

○ 이사 문종대

오늘 의결하시죠 다음 주라고 해결되겠습니까? 똑같은 건..

○ 이사 박태경

예, 해결 안 됩니다. 오늘,

○ 이사 문종대

똑같이 반복될 건데.

○ 이사 박태경

누가 회의를 진행하건 오늘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저는.

○ 이사 류영호

아니 그러니까, 아까 동의한 내용대로 다음에 이준용 이사님이 맡아서 이 문제 빨리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연장되시는 분이 의장을, 이사장을 맡아서, 지금 이준용 이사님이 이사장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 나 참..

○ 이사 박태경

그럼 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

○ 이사 조호연

사무국이 지금 얘기한 대로라면 이사장께서 절차에 따라서 회의를, 회의 성립을 선언하시고 회의 진행을 선언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이사 강규형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 이사 조호연

잠깐만요 그리고 회의 진행 중에,

○ 이사 강규형

얼렁뚱땅 그렇게 넘어가시는 건 안 돼요.

○ 이사 조호연

회의 진행 전에, 회의에 나가신 분은, 글썄, 이제 설득을 해서 다시 오시면 되겠습니다만,

○ 이사 강규형

아니, 지금 좀,

○ 이사 조호연

안 오신다면 불참하신 거죠.

○ 이사 강규형

얘기 같은 얘기를 좀 하십시오, 지금.

○ 이사 류영호

아니, 초등학교 학급회도 이렇게 안 해요. 초등학교 학급회도 의결해 놓고, 동의해 놓고

○ 이사 강규형

좀 너무 하시네요, 오늘.

○ 이사 류영호

뒤집는 이런 짓은 안 합니다.

○ 이사 조호연

아니, 초등학교 학교 회의가,

○ 이사 강규형

아니, 좀 너무하세요, 지금 오늘.

○ 이사 조호연

초등학교 학교 회의가, 말하자면 이사장을,

○ 이사 류영호

아니, 초등학교 어디서 이런 교육을 우리가 시키고 있어요?

○ 이사 조호연

의장과 이사장을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먼저 위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회의 진행을 막아놓고, 그다음에 회의 진행이,

○ 이사 류영호

무슨 회의 진행을 막아요? 회의 진행이 잘 되고 다 동의까지 했는데.

○ 이사 조호연

아니, 그런 초등학교가 있습니까?

○ 이사 류영호

동의해서, 과반수 이상이 동의했으면 그대로 가야지, 이걸 손바닥 뒤집듯이..

○ 이사 조호연

아, 설명을 다 하지 않았나요? 그 취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 이사 류영호
무슨 취지가 아니었어요.
- 이사 박태경
저 의견 있습니다.
- 이사 조호연
그리고 동의한 것도 아니고요.
- 이사 류영호
무슨 동의한 게 아니에요?
- 이사 박태경
류 이사님, 조 이사님, 의견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는 회의가 개최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 이사 류영호
예.
- 이사 박태경
그러면 일단 유시춘 이사장님은 개최선언 하시고,
- 이사 류영호
무슨 개최선언을,
- 이사 강규형
무슨 개최선언을 하십니까.
- 이사 류영호
이사장도 아닌데 무슨 개최를 선언을 자꾸..
- 이사 박태경
아니, 지금 시작도, 공식적으로는 시작도 안 된 거잖아요.
- 이사 류영호
개회가 안 된 이유를 모르시나요?

○ 이사 박태경

하시고, 이사장님이,

○ 이사 류영호

아니, 뭘 하세요?

○ 이사 박태경

누군가를 지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사 문종대

아니, 그런데 지금 이사장의 권한이 없는 건 아니죠. 그거는 네 분이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고,

○ 이사 류영호

아이고, 참내..

○ 이사 문종대

다섯 분은 이사장 권한이 여전히 있다고 보는 거고, 그 차이에서 지금 발생하는 문제 아닙니까.

○ 이사 조호연

지금 주장 중에 우리 류영호 이사님 주장도 사실 모순적인 것이, 말하자면 이준용 이사를 이사장께서 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선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말하자면 이사장 자격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시면서, 이사장이 회의를 속개하는 건 이사장 자격이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니 앞뒤가 서로 달라요. 그렇죠?

○ 이사 류영호

아니,

○ 이사 조호연

이사장, 지금 사장님 의견은, 사장님 의견은, 이사장이 유고 시든 뭐든 간에 회의를 진행할 임시 의장이 됐든 누가 됐든 지명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잘못 오해를 했지만 그 절차를 밟았죠. 밟았는데, 그거는 이준용 이사도 수용을 하고 류영호 이사도 수용하고 다른 분도 동의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그대로 이사장이 한 행위를 인정한 것인데, 그레놓고 뒤에 와서는, 지금 와서는 이사장이 회의하는 건 안 된대요. 회의 속개를 하는 거는. 그게 어떻게 앞뒤가 안 맞는, 맞는 말이겠어요?

○ 이사 강규형

사장 중재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정회하는 동안에 지금 그런

거 작전 짜고 들어오셨습니까?

○ 이사 김선남

아니,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사장님께 진짜 묻고 싶어요.

아니, 아까 이준용 이사님이,

○ 의장 유시춘

이사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장 아니래잖아요.

○ 이사 김선남

이준용 이사께 ‘여기 와서 하시렵니까?’ 그건 질문입니까, 아니면 부탁입니까?

○ 의장 유시춘

질의했고요. 여러분들 의견을 좀 모아보려고 했고요. 제가 의결하지, 의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저렇게 주장을 하시니. 그래서 제가,

○ 이사 류영호

의결 권한이 없으니까 브레인스토밍으로 우리가 회의를 해서 다섯 명이 했으면 그것이 결정된 거잖아요.

○ 의장 유시춘

결정됐다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지금 그럼 결정하시면 어때요?

○ 이사 류영호

아니, 얘기할 수도 있는,

○ 의장 유시춘

제가 의견을 여쭙겠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이렇게 회의가 지지부진하니까 의견을 여쭙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보니까 제가 사장님의 뜻을 오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정 제안하면 안 됩니까?

○ 이사 조호연

류영호 이사님, 제가 회의 전에도,

○ 이사 류영호

아니, 동의를 다 끝났는데 거기 가서 뒤집기가 어딴어요.

○ 이사 조호연

아니, 류영호 이사님, 제가 회의, 말하자면 정회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제 논리를 말씀을 드렸고,

○ 이사 류영호

자꾸 조호연 이사님, 모르쇠로 자꾸 하지 마시고.

○ 이사 조호연

아니, 무슨 얘기세요? 제가 얘기를 하는데 좀 받아들이시죠. 제 말을 들으셔야죠.

○ 이사 류영호

아니, 받아들이고 싶어도 모르쇠로 자꾸 얘기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거를.

○ 이사 조호연

제가 언제 모르쇠로 했어요? 아니, 저는 의견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

○ 이사 류영호

그건 본인 생각이죠.

○ 이사 김선남

제가 한 말씀,

○ 이사 신동호

저 긴급동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 이사 김선남

잠깐만.

○ 이사 신동호

먼저 김선남 이사님이 하실 말씀 있으시니까 들어도 되지 않나요?

○ 이사 김선남

제가 먼저 진짜 말씀드릴게요.

제가 나뉘는 정리를 한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원래 이준용 이사님께서서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사회를 맡을 수 없는 권한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장님께서 중립적인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어려운 상황이 되면 다른 분한테 요청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준용 이사님과 류영호 이사님한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지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없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의 뜻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제 기억에 두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두 분께서 이사장님의 권한을 인정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마침 이사장님께서 ‘하시렵니까?’ 해서 저는 오늘 회의를 여러 가지 복잡하고 시간이 너무 기니, 길게 가니, 중재안으로, 두 분께서 인정을 하셨으니,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권리를 인정을 하셨으니 ‘연장자’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이준용 이사님께 회의를 좀 진행하는 거냐 라고 제가 또 여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섯 분, 저 포함해서 네 분과 저 포함 다섯 분이 그때 찬성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제가 두 번 정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계속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이 있다 라고 두 분이 인정을 하셔서 해 주십사 하고 중재안이라고, 저는 그것을 중재안으로 봤습니다.

○ 이사 강규형

그건 아닌 것 같아요.

○ 이사 김선남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찬성을 하지 않죠.

○ 이사 강규형

이사장 권한을 인정한다고는, 처음부터 안 한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 이사 김선남

아니,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지명을 하시면 안 된, 받으면 안 되시죠. 이준용 이사님께서. 왜 받으십니까?

○ 이사 강규형

아니, 그거는 이제 중재안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죠. 중재안에 따라서.

○ 이사 김선남

아니, 그건 전권이, 전권이..

○ 이사 강규형

중재안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이사장 직위 연장에 관한 건은 지금 집행부에서도 솔직히 이거를 편을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끌고 가시다가 이게 무슨 동티가 날 것 같고, 또 이사장님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나올 얘기들 많은데 지금 다 꺾꺾 참고 있으니, 제발 좀 이거를 임시이사회 체제로 가서 유시춘 이사께서 계속 임시의장을 맡아달라는 얘기까지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싫고 ‘그냥 이사장으로 넘어가겠다.’ 그거는 안 되죠, 지금.

그래서 이 법적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이사장의 위치는 정지돼야 됩니다. 아니면, 아니면, ‘그래, 임시 이사장, 임시의장 체제로 가자.’ 그리고 이사장과 똑같은 임시의장직을 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받으시겠다고 하면 그거는 탐욕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기가 쉽습니다. 쉽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 좀, EBS인데 조금 좀 우리 성인답게, 그리고 교육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풀어 가지지, 이거를 그냥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고, 아니, ‘뭘 보내겠다’ ‘올리겠다’ 하고 하나도 안 올리셨어요. 좀 저만큼의 성실성이라도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 이사 박태경

강 이사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 이사 강규형

예.

○ 이사 박태경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똑같은 얘기가 계속되는데, 이사장 자격에 대해서는 532호 안건을 의결해서 결과에 따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사장님이 이런 회의를 진행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또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 이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이 회의를 주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표결하든지 그걸 정하죠.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 이사 류영호

아니, 그 말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데,

○ 이사 강규형

그건 표결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전에 얘기했죠.

○ 이사 류영호

계속 그 얘기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 됐다가 지금 손바닥 뒤집고 이렇게 계속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제안을 하면, 531호 보수규정 일부 개정안이 오늘 개정을 꼭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음 주 하면 안 돼요? 저기, 이사국이나 집행부 말씀 좀 해 주시죠.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사안의 시급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 이사 류영호

시급성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오늘 이사회는 개회 안 된 것으로 우리가 잠정 합의하고 다음에 일주일 뒤에 다시 합시다.

○ 이사 조호연

저도 절충안을 좀 내겠습니다.

이사회 속개를, 아니, 이사회를 진행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난망한 상황인데, 말하자면 532호 안전뿐만 아니고 아예 회의 속개 자체를 할 수 있는,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분을 이사를 이사장께서 지명을 하고 그분이 회의 속개도, 진행을 시작을 하고, 회의 진행을 개시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도 532호를 의결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 이사 문종대

동의합니다.

○ 의장 유시춘

동의합니다.

○ 이사 류영호

그러니까 다음, 다음 주가 언제야, 목요일이.. 개천절이네.

○ 이사 박태경

동의합니다.

○ 이사 신동호

오늘 산회하고 다시 하시는 건 어떨까요?

○ 이사 박태경

아니요 저는 속개를, 저,

○ 이사 조호연

오늘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이사 박태경

예, 오늘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이사 강규형

아니, 여기서 지금 이게 속개가 돼 가지고 뭐가 지금 된다는 것도 그렇고, 정회 시간에 이렇게 나가셔서 이렇게 작전 짜고 들어오시는 거 이런 거 참 보기 안 좋아요.

○ 이사 신동호

아니, 물론 다수결의 원칙이 대원칙이기는 합니다만 격론 속에서 오해가 있었건 어떤 상황이 됐었건, 소통이 미흡했건, 중요한 이슈를 계속 논의했던 한 분이 지금 자리를 같이 논의하다가 나갔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나중이라도 이게 서로 감정 상하지 않고 원만하게 어떤, 어떤 결론이 도출되든 그러려면, 지금 시간도 이미, 지금부터 한다 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머릿수로 밀고 가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니까, 오늘 일단 산회하고 저는 다시 이사회를 소집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냐, 동의를 해 봅니다.

○ 이사 류영호

그렇게 하시죠.

○ 이사 신동호

우리 동료에 대한 예의도 있지 않겠습니까?

○ 이사 강규형

그렇게 하시죠.

○ 이사 조호연

동료에 대한 예의는 회의를 진행을 하다가 자기 뜻이 관철이 안 된다고 이 논의에 더 이상 중단을 하신 분이 더 크지 않을까요?

○ 이사 류영호

아니, 뜻이 본인의 의사가 아니잖아요.

○ 이사 강규형

회의 중간에 항의 표시로 나가는 거는 관례예요. 그리고 그렇게 항의 표시를 했다가, 무슨 표결에 ‘이거는 임할 수 없다’ 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B사 이사 등등 하면서 수십 번을 봤어요.

○ 이사 신동호

아니요 우리 안 볼 사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음 달이 됐건 그다음 달이 됐건 계속 봐야 될 테고, 또 계속 이사장직을 수행을 하시든 변화가 생기든 이 아홉 명 안에서 결정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양보해서, 그런데 오늘 충분히 논의를 했고, 다음 절차에 와서 진짜 절차적인 문제만 해결해서 진행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굉장히 격앙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눈 끝에 한 분 나가신 상황에서 어떤 의결을 표결로 한다 라는 것이 어떨는지, 저는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우리가 한 발씩 양보해서 다음 이사회 날 또 다시 맑은 정신으로 냉정을 되찾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때 의결 절차를 진행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이사 김선남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때는, 다음에 할 때는 우리 현 이사장님께서 지명하는 그분이 진행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

○ 이사 신동호

그 부분을 어떤, 지금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이사장의 직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그건 좀 곤란한 부분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의견이, 제가 ‘옳다, 그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의견이 상충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사장께서 지명하는 사람이 다음 회의를 진행한다 라는 것은 곧 이사장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니까 이사장의 임기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칸다면 그건 좀 대답하기 곤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다만, 그리고 앞서 이준용 이사가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했을 때는 제가 잘못 해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유시춘 이사장께서 ‘본인의 문제가 이렇게 장시간 논의되는 것이 굉장히 곤혹스럽다.’ 그리고 ‘저 자리에서 지금 자기 문제를 논의하는데 앉아 있는 것이 좌불안석이다. 누군가 진행을 맡아 준다면 기꺼이 자리를 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그것이 꼭 내가 지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제 기억에는.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서 누군가 다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하면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그 논의 가운데서 저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사장님의 중재안을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동의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어떤 부분을 동의했던 것이냐면, ‘아, 그 연장선상에서 누군가 일단 회의를 진행해서 532호 안을 결정 짓고, 531을 하자 라는 차원에서 531을 그럼 누가 진행을 맡아주겠는가. 이준용 이사가 맡아 주겠는가. 만약에 지금 의견이 갈려 있는데 이준용 이사 본인이 싫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준용 이사가 ‘Okay. 그러면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아마 여러 분이 동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김선남 이사님처럼 ‘그거는 전제가 이사장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그냥 말 그대로 ‘지금 임시로 진행자가 필요하니까 저분이 하는 게 옳다고 해서 동의했다.’ 이것도 지금, 이것조차도 엇갈려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우리가 이사장님은 빼고라도 우리 8명의 이사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냉각기를 갖지 않고 오늘 이야기하고 결론 내린 건 결국 외눈박이 결정밖에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결론이 같다 하더라도, 우리 냉각기를 좀 갖고 차분하게 서로들 생각들을 돌이켜 보고, 그리고 다음 주가 됐건 또 만나서 논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과정에서 본인이 진행한다는 것도 사실 흔쾌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아, 그렇다면 내가 뭐..’ 이런 식으로 했던 분이 뒤집혔다고 생각하고, 또 그게 공교롭게도 잠깐 정회가 있던 이후에 말이 바뀌니 또 거기에 대해서도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아, 사실관계는 모르겠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해의 소지는 없애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대로만 판단하지 말고, 저는 그냥 한 일주일이라도 냉각기를 갖고 좀 차분해진 상황에서 우리 다시 웃는 얼굴로 만나서 차분하게 논의했으면 싶습니다.

○ 이사 김선남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 이사 신동호

예, 말씀하십시오.

○ 이사 김선남

왜냐하면 서로 양보를 해야 오늘 돌아가고 다음 주에 또 만나게 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이사장님께서 사장님 말씀, 제 말씀 다 오해했다고 박태경 이사님을 또 호명을 하셨습니다. 박태경 이사님이 다음에 만나서 진행을 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으시죠?

○ 이사 신동호

아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반대를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 이사 김선남

오늘도 말씀을 하셨으니깐요.

그다음에, 박태경 이사님께서 한 1시간 훨씬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532호와 관련해서는 각자의 의견으로 마무리 짓자.’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동호 이사님께서 지금 합의해서, 취합해서 우리가 지금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니, 의견을 좀, 답을 주십시오. 다음에 만나서 532호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박태경 이사님이 호명이 된 것과, 다른 하나는 박태경 이사님의 1시간 전의 아이디어, ‘각자 의견을 내서 의결하자.’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려하시면 어떨까요?

○ 이사 신동호

제가 여기서 의결권자도 아니고, 제가 뭐 대단한, 저는 전혀 아홉 명 중에 한 명일뿐이라서, 그런데 김선남 이사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어찌됐건 원활하게 해결하고 뭔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효율성 측면에서 말씀하셨다 라는 걸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대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사장님께서 어찌됐건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시간을 지금 3시간 가까이 지금 보내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찬성을 하건 반대를 하건 간에, 그 와중에 오해가 있어서 한 분은 또 지금 이석을 하신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각자 다 정해진 자기 시각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그 각자에는 저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스펙트럼에서 강온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미 아까 굉장히 곤혹스러워서 우리 최 국장님께서 이게 개회선언이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 지금 살펴볼 정도로 지금 뜨거운 상황이 됐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그럼 이제 애매하니까 다시 개회선언을 하고 뭘 하고, 그것 자체도 저는 좀 무리수가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리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지금 9월 14일 이전이면 그럴 필요가 있어요. 왜, 아직, 빨리, 우리가 지금 모든 게 임기 이내니까.

그런데 이미 9월 14일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정이나 다음 주 결정이나 결정사항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상황에서 ‘너의 그 말에는 어떤 전제가 필요하다.’ ‘너의 그 말에는 어떤 논리가 뒷받침돼야만 성립된다.’ 이런 얘기 잠깐 내려놓고, 다음 주에 다시 모여서 논의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이사 강규형

그런데요, 제가 하나 좀 물어보겠는데, 개회선언이 안 됐다고 이걸 해석을 하면 의사진행 발언은 속기록에 남는 거죠, 그래도.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요. 거의 그게 개회선언 직전 단계에 이사회 의사봉을 두들기기 전에 진행발언 요청을 하셔서 가지고 이것을 애매하게 있습니다.

○ 이사 강규형

글쎄,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은 지금 엄청나게 돼 있는데, 지금 속기록도 하시는 속기사님이 또 열심히 하셨고,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발언들이 다 의사진행발언들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이사 강규형

예. 그러니까 그거는 기록에 지금 남는 거죠?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예, 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런데,

○ 이사 강규형

그리고 올려지는 거죠?

《문종대 이사 퇴실(17:43)》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실은 여쭙보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랬었을 때 이것을, 이것을, 오늘의 회의를 지금 이사회로 봐야 할지, 아니면 간담회로 보셔야 되는 건지 저도 솔직히 애매함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데 정해주셔야 저희들도 일에..

○ 이사 신동호

이사회로 하고 차수 변경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사 강규형

글쎄. 차수 변경 하죠.

○ 이사 신동호

차수 변경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사 조호연

아니, 이사회가 말하자면 이사장이 찍고 개회선언을 해야 이사회가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 인데, 지금,

○ 이사 강규형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은 계속 됐었기 때문에, 이사회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차수 변경으로 해서 이어지는 걸로 하시죠 이어지는 걸로.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그러면 아까춤에 이사회 이사장님, 유시춘 이사장님의 개회선언을 개회선언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이사 강규형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다음 모이는 거를 지금,
- 이사 신동호
361회가 아니고, 360회 속개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이사 강규형
속개로 봐야 되죠.
- 이사 신동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이사 김선남
이사회로 하지 말고 간담회로,
- 이사 신동호
조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사 조호연
그러니까 이사회의 자격을 얻으려고 하면 이사장이 속개를 하고, 진행을 한다고 선언을 하고 나서, 회의를 시작을 개시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 이사 강규형
압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에,
- 이사 김선남
동의합니다.
- 이사 강규형
속개하는 식으로,
- 이사 조호연
그런데, 다음번에 하더라도 그거는 안 되죠 만약 오늘 정해지지 않으면 이사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쟁점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논쟁을 줌, 논점을 벗어난 것 같은데,
- 이사 강규형
아니죠 그게 지금,

- 이사 조호연
아니, 지금 계속되는 부분을,
- 이사 강규형
말씀하세요.
- 이사 신동호
어떤 결정되는 안이 있습니까?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혹시, 제가 잘, 논의하느라 못 들었는데요. 혹시 정리 한 번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다음번에 360회 이사회를 속개하시겠다 라는 의미신 건가요, 이사님들께서?
- 이사 강규형
그렇죠.
- 이사 류영호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 이사 강규형
그렇죠.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예, '360회 이사회를 속개하겠다.'
- 이사 강규형
왜냐하면, 다 모였기 때문에.
- 이사 조호연
아니 저, 이렇게 또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 의견을 말하기 전에 또 결정됐다고 얘기하고
할까봐 제가 참 조심스러운데, 지금까지 얘기된 내용 중에 이제 오늘 회의를 이걸 의제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종대 이사 재임실(17:46)》

사실 이 논의는 오늘 시작된 게 아니고 지난번 이사회 때도 논쟁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쟁점은 아주 뚜렷하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누가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거나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는 것일 뿐이지,

《김유열 사장 퇴실(17:46)》

○ 이사 조호연

쟁점은 완전히 지금 충돌해 있는 그런 상황은 분명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설혹 냉각기를 갖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논의가 연장될 뿐이지, 결정된다고 생각은 저는 안 든다고 봐요.

○ 이사 박태경

동의합니다.

○ 이사 조호연

의결하면 서로 논의를 해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다들 심정적으로는 동의하실 거예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다수결이라는 거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서로 부딪히는 의견이 나오면 결국 다수결로 정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는 것이고, 지금 이대로 그냥 가면 다음 번 이사회도 누가 소집을 해야 됩니까? 이사장이 없는데. 만약에 그 논리대로 따르면, 그러니까 그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회를 소집할 임시의장을 또 만들어야 되나요? 그것도 없는 거죠. 결국 이사회는 표류가 되고, 이사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의결안건이나 또 심의라든지 회사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하는 역할을 저희들은 포기하는 격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이사 강규형

잠깐만요. 근데 10월 3일은,

○ 이사 조호연

아니, 제가 말씀 중인데.

○ 이사 강규형

개천절인데, 우리 모일 수가 없잖아요.

○ 이사 조호연

강 이사님 제가 말씀 중, 말을 지금..

○ 이사 강규형

말씀 다 끝나신 줄 알았어요, 길게 얘기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10월 3일날이 개천절인데, 그럼 4일날 모이는 겁니까?

《김유열 사장 재임실(17:47)》

○ 이사 조호연

저는, 물론 이사장께서 개인적인 곤혹스러움 이런 건 다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그리고
아까 지금까지 진행된 그런 상황들을 보더라도 다음 번 회의, 회의가 성립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번 회의에까지 그걸 연장하는 것이, 그럼 다음 번 회의에서 이게
결정될 것이냐? 논의를 통해서 될 것이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이사 박태경

예.

○ 이사 조호연

지금까지 진행된, 한 달이 됐는데 한 달 동안 안 된 게 다음번이 되겠습니까?

○ 이사 강규형

근데 한 달 동안,

○ 이사 조호연

아니, 얘기,

○ 이사 류영호

아니, 한 달, 한 달,

○ 이사 조호연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중인데,

○ 이사 김선남

신동호 이사님, 우리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걸 하나 받아 가지고.

○ 이사 강규형

근거를 제시를 못 했잖아요.

○ 이사 류영호

저번 이사회에서 안 나와 놓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 이사 조호연

류영호 이사님, 제가 지금 발언 중인데요.

○ 이사 류영호

뭐 얘기하려고 하면 발언 중이다 하고, 그러면 ‘끝입니다.’ 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 이사 박태경

저, 제가 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이사 류영호

아, 안 끝났다잖아요.

○ 이사 박태경

아직 안 끝나셨어요?

○ 이사 류영호

‘끝입니다.’ 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하세요.

○ 이사 박태경

조 이사님, 아직 안 끝나신 것 같은데..

○ 이사 조호연

그만하겠습니다.

○ 이사 류영호

예.

○ 이사 신동호

저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각자 생각이 정해져 있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결정하건 다음 주에 결정하건 큰 무리는 없겠죠. 그런데 모양새를 좀 갖추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뜻이 몇 명 몇 명 나뉘어져 있으니, 그랬으면 우리가 첫날 결정했으면 됐죠. 그런데 왜 이런 논의를 우리가 절차를 가졌습니까? 그건 결정돼 있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또 개인의 의견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숙의와 논의의 과정은 필요한 부분 이고요. 그게 오늘 좀 격앙되다 보니까 한 분이 또 이탈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차피 결정돼 있는 의견이니, 그랬으면 우리가 2주 전, 3주 전, 한 달 됐다고 그러셨나요, 논의? 그때 결정해버렸죠, 표결해서. 이것 자체도, 이런 논의 과정 자체에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3시간도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와도 의견 다 똑같겠죠 다음 주에 표결하더라도 오늘 하는 것보다는 모양새가 더 나올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민주주의 원칙을 거부하거나 오늘과 달리 다음 주에 오면 의견 분포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제에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그런 충정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 이사 박태경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의견이 이제 평행선 달린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을 연장한들 어떤 합의점이 찾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결을 하건 안 하건 결론을 내버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사 류영호

아니, 조호연 이사님이 말씀하신 중에, 이럴 때는 뭐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과반수고, 자기들한테는 불리할 때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되잖아요.

○ 이사 조호연

구체 사례가 어떤 건지, 지금 이럴 때와 저럴 때, 한쪽은 제가 알아 들었는데요. 저럴 때는 언제일까요?

○ 이사 류영호

두 번째는, 아까 의결이 동의한다고 됐잖아요.

○ 이사 박태경

류영호 이사님, 조 이사님.

○ 이사 류영호

그렇게 됐으면, 그거는 인정을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 이사 신동호

이사님, 다음 주에 결정하면 안 되나요?

○ 이사 박태경

아니, 저는 오늘..

○ 이사 신동호

오늘 해야 되나요?

○ 이사 류영호

아니, 여기가 뭐..

○ 이사 강규형

이렇게 하시죠. 냉각기를 좀 가지시고 다음 회의에, 그게 언제가 됐건 속개로 하시고, 사실 이거 그렇게 뭐 근거를 대고 해도 ‘너는 떠들어라’ ‘너는 자료, 법조문 내라. 우리는 그냥 간다.’ 그러고 왔어요. 아무것도 제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해결되기가 힘들고 법적으로 해결되는 걸로 갈 수밖에 없는 기로에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좀 통촉 드립니다. 이거 풀 수 있는 것은 지금 유시춘 이사님 결단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유시춘 이사님께서 대승적으로 임시이사회로 끌고 가고 본인이 임시의장을 맡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우리들은 다 따릅니다. 그거 없이는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경영진들 속으로 지금 미치고 환장할 거예요. 이거, 법적으로 이거 분명히 이거 참 무리한데, 이거를 그냥 뭉개기 식으로 그냥 없는 법을 만들라고 하니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안 된다는 법률을 갖고 오라는 얘기까지 나오시고, 아니, 법률은 본인들이 갖고 오라고, 갖고 온다고 하시고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 이사 박태경

저는 인제, 아, 죄송합니다. 아직 안 끝나셨죠?

○ 이사 강규형

무리하지 마시고, 유시춘 이사님의 대승적인 결단을 바랍니다.

○ 이사 류영호

그거는,

○ 이사 강규형

예우 충분히 해 드릴 거고, 예우 충분히 해 드릴 거고,

○ 이사 류영호

강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유시춘 이사님이 받아들일 의향이 있었으면 벌써 받아들였겠죠. 그거는 계속 시간만 끌게 될 것 같고,

○ 이사 강규형

그럼 제가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돼요.

○ 이사 류영호

그래서 지금, 오늘,

○ 이사 강규형

어떤 분이 '60이 넘으면 뇌가 썩고, 65세가 넘으면 때려죽인다 하더라도 책임 있는 자리 맡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우리들은 들을 필요가 없지만, 적어도 유시춘 이사님께서서는 들으셔야 돼요.

○ 의장 유시춘

과하합니다.

○ 이사 강규형

왜냐하면 이게, 이 얘기가 우리 EBS 건과도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아드님 마약 문제 때문에,

○ 이사 박태경

저 강 이사님.

○ 이사 강규형

가만 계세요. 마약 문제 때문에 분명히, 탄원서 안 낸다고 약속을 하시고는 유시춘 의원과, 아, F 의원과 G 문화부 장관이,

○ 의장 유시춘

지금 회의와

○ 이사 강규형

그거 말을 안 하고,

○ 의장 유시춘

관계없는 말씀을 좀 삼가해 주세요!!

○ 이사 강규형

그렇게 진행이 된 거, 그런 것까지 다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 이사 류영호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얘기 그만 하시고, 지금 보세요.

○ 이사 강규형

약속도 안 지키고 말이야, 거짓말만 하시고

○ 이사 류영호

우리가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때 4명이 요구한 임시이사회 의제가 새 이사장 선출 건이었

잘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지금 얘기를 안 하고, 네 분이, 그쪽 진영의 네 분이 532호 안전에 대해서 의장을 우리가 호선을 하든 임명을 하든 해서 하자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하겠다고 하면 정말 저 이해가 안 돼요.

○ 이사 강규형

그러니까 저, 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고,

○ 이사 류영호

아니, 그래서,

○ 이사 강규형

유시춘 이사님의 결단으로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이사 박태경

예, 말씀 알겠고요.

○ 이사 강규형

이상입니다.

《강규형 이사 퇴실(17:55)》

○ 이사 박태경

문종대 이사님.

○ 이사 문종대

예.

○ 이사 박태경

회의를 오늘 속개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 이사 류영호

아니, 그렇게 다 짜고 와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아니, 밖에 나가서..

○ 이사 박태경

지금은 결론이 안 나니까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 이사 김선남

제가,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 이사 류영호

결론이, 그러니까 우리가 협의를,

○ 이사 박태경

결론이 안 나니까.

○ 이사 류영호

협의를, 협의를 하자는 거잖아요.

○ 이사 김선남

제가 의견 내겠습니다.

오늘 이사회를 간담회로 칭하든, 아예 처음부터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532호를 다음 이사회에, 다음 주든 회부해도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다음번 360회 이사회를,

○ 이사 김선남

법적으로 문제가,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다시 속개하는 겁니다.

○ 이사 김선남

그러면 속개로 해야 되겠네요. 그럼 문제가 없는 겁니까?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문제는 저희로서는..

○ 이사 김선남

전혀 없습니까? 그거 맞습니까, 사장님?

○ 사장 김유열

저도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사 류영호

사장님 잘 모릅니다. 사장님은 잘 모르고. 속개하고, 그때 안건을, 532호 안건을 갖고, 이준용 이사님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

○ 의장 유시춘

그런데요 류영호 이사님, 그 회의를 누가 소집합니까? 이사장이 없는데 누가 소집합니까?

○ 이사 류영호

사실은 오늘 이사회도 이사장이 없기 때문에 이사국에서 소집한 거예요. 이사국에서 소집한 거라고

○ 의장 유시춘

아니, 네 분의 의견을 종합하면, 저의 Status를 인정을 못 하면, 소집권자 소집 주체가 지금 없습니다.

○ 이사 류영호

소집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이사국에서 했다니깐요, 오늘도

○ 이사 문종대

이사장님은 다섯 분이 지금 인정하니까 이사장으로 지정하죠

○ 이사 류영호

이사장님 명의로 한 게 아니예요, 오늘도

○ 이사 김선남

제가 아까,

○ 의장 유시춘

물론 다 이사국에서 합니다.

○ 이사 김선남

말씀 아직,

○ 이사 류영호

아니, 명의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 이사 김선남

류영호 이사님, 제 말,

○ 이사 류영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 이사 박태경

저기,

○ 이사 김선남

류영호 이사님,

○ 이사 박태경

그런 거 갖고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 이사 김선남

제 말씀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법적으로 다음 주에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감사님, 어떠세요? 이 제532호를
오늘 의결하지 않고 다음 주나 적절한 시기에 미뤄서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법적으로?
사장님께서 답변 못 하시니 감사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이사 조호연

감사님께..

○ 감사 최기화

제가, 오늘 결정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제가,

○ 이사 김선남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 감사 최기화

법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게..

○ 이사 김선남

이것을, 이게,

○ 이사 류영호

속개를, 속개하는 것, 다음 주에 속개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냐고 감사님한테..

○ 사장 김유열

이사님들이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 이사 문종대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되죠.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속개를 했었을 때는 예, 오늘의 안건은 그대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대로 올라갑니다.
저희 오늘 531호, 532호, 보고안건까지 다, 다 그대로 올라갑니다.

○ 이사 김선남

이사장님, 두 분께서 이탈을 하셨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다음 주에 이대로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장 유시춘

참고로, 저는 다음 주에 여기 국내에 없습니다.

○ 이사 김선남

그러면 어디, 해외 가십니까?

○ 이사 류영호

그럼 그다음 주에 하죠. 다음 주는 일요일이라서 또 안 돼요. 아, 공휴일 같은데..

○ 의장 유시춘

10월 3일이 개천절이잖아요.

○ 이사 류영호

예. 공휴일이니까 그다음 주..

○ 이사 신동호

그러니까 날짜는 논의를 해서, 여기서 결정은 ‘미뤄서 할 것이냐’ 그것만, 예.

○ 이사 류영호

10일날이..

○ 이사 조호연

아니, 저는 또 이렇게 또 미뤄지는 저기를 봤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는 한없이 미뤄질 것 같아요. 다음번에도 또 같은 평행선을 달리면서 또 회의가 또 연장돼서 ‘다음번에 속개 해서 또 하겠다.’

○ 이사 류영호

평행선 달릴 이유가 없는 게, 계속 바꾸지 않으면 돼요.

○ 이사 박태경

류 이사님,

○ 이사 조호연

이사장님, 아니, 류 이사님.

○ 이사 류영호

다음에서도,

○ 이사 조호연

제가 말씀을 드릴 때,

○ 이사 류영호

죄송합니다. 끝났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 이사 조호연

중간에 좀 끼어들지 마세요.

○ 이사 류영호

죄송합니다. 끝났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 이사 조호연

죄송합니다.

○ 이사 박태경

각자 의견을 얘기하셔서, 예.

○ 이사 조호연

다음번에도, 다음번에도 또 같은 평행선을 달릴 것이기 때문에 뻔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한 달 동안 논의했는데 하나도 합의된 게 없어요. 공감된 게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엇나가고 있어요, 생각들이.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음번에도 안 되고 그다음 번에도 안 돼요.

○ 이사 박태경

예, 안 됩니다.

○ 이사 조호연

그러면 이사회가, 물론 한두 번 정도 EBS 내의 의결사항들을 우리가 처리를 못 할 수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사장이 안 되니까 회의 속개를 할 수가 없고,

그런 의결도, 바로 이 이사장에 관한 부분을 빼더라도 나머지 안건도 의결을 할 수가 없어요. EBS는 말하자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의결을 못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EBS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급적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선입니다.

○ 이사 김선남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한국에 언제에서 언제까지 계십니까?

○ 의장 유시춘

예, 다음 주는 안 돼서요. 아니 그래서,

○ 이사 김선남

다음 주 안 되면, 그다음 주는 됩니까?

○ 의장 유시춘

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박태경이 지금 하실 말씀 있다니까.

○ 이사 류영호

10일날, 10일날 하시면 되고,

○ 이사 문종대

먼저, 6시인데 퇴근시켜 주시죠

○ 이사 류영호

말씀 끝나셨죠? 말씀 끝나셨죠? 끝났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말씀 끝나셨죠?

○ 이사 문종대

직원들 퇴근.. 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 이사 박태경

임직원들은 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이사 문종대

6시 퇴근시간까지 잡아놓고.

○ 이사 류영호

지금 보수규정 일부 개정안은 지금 급히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532호 안건에

임시의장을 누가 할 것인지는 사실 오늘 거의 결정됐지만 이게 뒤범벅되면서 이준용 이사님이 나가셨고 하니까, 이 문제는 그때 가서 다시 누가 임시의장 하는 걸 또 논의하면 되잖아요.

○ 이사 박태경

류영호 이사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 이사 류영호

그리고 이때까지 연장된 것은, 계속 이렇게 온 것은,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저번 이사회도 안 오고, 오늘 또 거의 다 된 밥에 다시 옆질러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제발 줘.

○ 이사 박태경

일단 임원들은 다 퇴실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6시인데.

○ 이사 문종대

가시죠. 이석하셔도 될 것 같은데.

○ 의장 유시춘

이제 금방 끝날 거니까요.

○ 이사 조호연

아니, 저는 오늘 의결을 했으면 해요.

○ 이사 박태경

예. 그래서 각자 의견을 얘기하시고, 다수가 오늘 속개를 원하시면 오늘 하고,

○ 이사 조호연

오늘 하는 게 좋겠습니다.

○ 이사 박태경

뭐 소수가 원하면 미루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 이사 김선남

아니, 우리 이사장님, 저는 ‘이사장님’으로 지금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 의장 유시춘

아니, 저 지금 이사,

- 이사 김선남
이사장이 아니어요?
- 의장 유시춘
예.
- 이사 김선남
그러면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 이사 문종대
아니, 그건 아닌 건 아니죠
- 의장 유시춘
9분의 1입니다.
- 이사 조호연
무슨 말씀이세요?
- 이사 박태경
그건 아니죠. 지금 이사장님이시죠.
- 이사 김선남
왜 이사장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 이사 조호연
왜,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 이사 류영호
아니, 자꾸 주변에서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이러..
- 이사 박태경
지금 저 시간 없는데요,
- 이사 류영호
왜 그러십니까.
- 이사 박태경
빨리 빨리 아무튼 회의를 속개할 건지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속개할 건지 말

건지를.

○ 이사 류영호

왜, 왜 유 이사님을 힘들게 해요?

○ 의장 유시춘

저, 회의를 속개해서 오늘 결론 나기를 하는 데 동의합니다.

○ 이사 박태경

예. 문종대 이사님.

○ 이사 류영호

왔다 갔다 지금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부서장님들은 그러면 이석하시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 이사 박태경

예, 이석하시죠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부서장님들만 먼저 이석해 주십시오.

○ 이사 류영호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사 조호연

이제 논의를 좀 연장을 해서 다음번에 하자는,

○ 이사 류영호

안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 이사 조호연

논의를 연장해서 다음번에도 하자는 의견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하면 논의도 제대로 잘 안 되는데다가 감정이 더 상할 것 같아요.

《부서장들 퇴실(18:01)》

○ 이사 조호연

다음번에는 두 분이 아니라 세 분이 또 나갈 것 같은 생각이 저는,

○ 이사 류영호

아니예요. 아니, 오늘도 다 된 밥에 또 이렇게, 저번에도 안 오서 가지고 그래 됐고,

○ 이사 조호연

우리 류 이사장님은, 류 이사께서는,

○ 이사 류영호

지금 2주가 연기되는 이유가,

○ 이사 조호연

항상 제 말에 끼어 드시네.

○ 이사 류영호

누구에게 귀책이 있는지를 모르시나요?

○ 이사 조호연

항상 제 말에 끼어 드시네.

○ 이사 박태경

예, 조 이사님, 류 이사님, 그러니까 이제 회의를 속개할 건지 말 건지를 빨리 정해서 결정을 빨리 하죠.

○ 이사 조호연

저는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사 박태경

안 하게 되면 안 하고, 하게 되면 하고

○ 이사 김선남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류 이사님,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제가 중, 가장 중립적인데요. 다음에 회의할 때 우리 현 이사장님께서 호명하신 분이 사회를 대신 532조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런 조건 속에서, 두 분이 이탈하셨으니까 우리가 합의를 합시다.

○ 이사 류영호

아니, 그렇게 하면 아까도 신동호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사장을 인정하는 거니까, 아까

제가 말씀한 얘기는, 이준용 이사님이 거의 결정됐지만, 거의 결정이 아니라 결정됐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그때 의장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서 하자니까요. 그러면 되잖아요.

○ 이사 김선남

그러면, 하나도 양보하지 않으면,

○ 이사 류영호

양보를 했잖아요. 이준용 이사님을 의장으로 안 하겠다는 거지.

○ 이사 김선남

그럼 똑같이 되죠, 그때도.

○ 이사 류영호

어떻게 똑같이 돼요? 그때는 호선으로 해서 다섯 분이 단합해서 오시면 되잖아.

○ 이사 박태경

류영호 이사님, 지금, 문 이사님,

○ 이사 류영호

다섯 분이 단합하셔서 박태경 이사님 찍어뿌면 되잖아요.

○ 이사 박태경

류영호 이사님.

○ 이사 김선남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그때 표결로 하는 걸로.

○ 이사 류영호

예, 그래뿌면 되는데 뭐가.. 왜 다섯 분이 서로를 못 믿어요?

○ 이사 박태경

류영호 이사님. 지금,

○ 이사 류영호

다섯 분이 내가 볼 때 서로를 못 믿는 것 같애.

○ 이사 박태경

류영호 이사님.

○ 이사 류영호

표결 부치면 뭐가 좀 다른 의견이 나올까 걱정하시나..

○ 이사 박태경

류 이사님, 지금 문종대 이사님도 속개하는 거에 찬성하셨고, 저 저, 류 이사님. 조 이사님이 찬성했기 때문에,

○ 이사 류영호

자꾸, 그렇게 하지 말자는 의견이 지금 신동호 이사님하고 같은 의견이잖아요.

○ 이사 박태경

그런데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사 문종대

다음 주가 되면..

○ 이사 류영호

아니, 지금까지 연기된 것이 귀책사유가 어디에,

○ 이사 박태경

글쎄, 결론이 안 나니까요.

○ 이사 류영호

결론이 안 나는 이유가,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는지 지금 뻔히 보이잖아요.

○ 이사 박태경

그것도 지금 결론을 못 내지 않습니까.

○ 이사 류영호

그래서 한 주, 한 주 더 연기하자는 거죠.

○ 이사 박태경

그러니까 표결로 해서 빨리 빨리 정하자 이겁니다.

○ 이사 문종대

저도, 잠깐만요. 우리 신동호 이사님 말씀에 사실 상당히 많이 동의해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주 같으면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가 서로 신뢰를 좀 쌓아가는 게 필요한데, 지금 제일 문제는 우리가 서로 불신하기 때문에 일이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 이사 류영호

다섯 분 사이에 불신하는 것 같애, 나는.

○ 이사 문종대

그런 식으로 말씀,

○ 이사 류영호

다섯 분이 단합해서 표 찍으면 되잖아요. 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 이사 조호연

없는 말씀을 하지 마세요.

○ 이사 신동호

그런데 류 이사님, 문 이사님 말씀 마저 들으시고.. 예.

○ 이사 문종대

그래서, 다음 주에, 가능하면 저는 다음 주에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어려워지는 것 같고,

○ 이사 김선남

저도 동의합니다. 이사장님, 넓은 마음으로 여기 합의를 추구하십시오.

○ 이사 박태경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

○ 이사 문종대

그럼 날짜를 아까, 나중에 조정해서,

○ 이사 박태경

다음 주에, 예. 다수 의견이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 이사 문종대

날짜를 조정해서..

○ 이사 김선남

그렇게 하십시오, 날짜를. 다 오시는 날로

○ 이사 신동호

날짜는 우리 독방이나 아니면 우리 사무처하고 논의를 해서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 이사 류영호

예, 그렇게 합시다.

○ 이사 문종대

가능한 모든 사람이 되는 날로.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이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다음 주라 하심은, 지금 현재 휴일을 빼면,

○ 이사 신동호

지금 날짜를 지명한 게 아니고, ‘다음번에 이걸 다시 속개해서 논의한다.’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다음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사 신동호

‘날짜는 추후 다시 논의하자.’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추후 논의한다.’이십니까?

○ 이사 신동호

왜냐하면 지금 외국에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예.

○ 이사 문종대

추후, 가능한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날로 하시죠.

○ 이사 신동호

예.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날로 다시 잡아보죠.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예, 알겠습니다.

○ 이사 신동호

특방이 있으니까.

○ 이사 김선남

아니 그런데, 그러면 날짜 못 잡고 또 10월 이사회까지 가니까, 우리 이사장님, 해외 나가지 않는, 10일은 나가십니까?

○ 의장 유시춘

아니요. 10월 4일 그 주간에 없습니다, 여기.

○ 이사 김선남

3, 4일. 그러면..

○ 의장 유시춘

3, 4일 그 주간에 없습니다.

○ 이사 류영호

그럼 10일날 하시면 되네.

○ 이사 신동호

그럼 그다음 주에는 괜찮으시겠네요.

○ 이사 류영호

10일날 목요일로 하시면 되네요.

○ 이사 김선남

그럼 10월 10일로 못을 박으시죠.

우리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10, 목요일.

○ 이사 류영호

10, 목요일은 다 비어 있잖아요.

○ 이사 조호연

저는, 저는 오늘 의결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 이사 류영호

아- 조호연 이사님 때문에..

○ 의장 유시춘

저기 오늘 혹시 의결하시면 안 될까요? 정말 너무나 괴롭습니다.

○ 이사 조호연

유 이사님, 제가 말씀할 때마다 꼭 그렇게 본인의 생각을 꼭 표시를 하셔야 돼요?

○ 이사 류영호

아니, 너무나,

○ 이사 문종대

지금 표결을 할라 해도 표결이 안 될 것 같은데.

○ 이사 조호연

저는 류 이사님하고 굉장히 좋게 이렇게 저기하고 싶은데.

○ 이사 류영호

저도 좋게 하고 싶, 저,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이렇게,

○ 이사 조호연

근데 왜 제가 얘기할 때마다, 제가 얘기할 때마다 끼어 드시고,

○ 이사 류영호

이렇게 얘기합니까, 제가? 이때까지.

○ 이사 조호연

반대하시고 그러시는가요.

○ 이사 류영호

이때까지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저. 오늘 정말 안타까워서 제가..

○ 이사 조호연

아니, 여태까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얘기할 때마다 끼어 드시고, 중간에.

○ 이사 류영호

오늘 많이 끼어들었는데, 중간에 끝난 것 같이 느껴져서 그런..

○ 이사 조호연

사과하세요, 사과.

○ 이사 류영호

사과합니다. 사과하는데, 앞으로 끝났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 의장 유시춘

근데 10월 10일날 한다 한들 이 이견이 좁혀지겠습니까?

○ 이사 문종대

좁혀지지는 않는데,

○ 이사 박태경

좁혀지지 않습니다.

○ 이사 류영호

다섯 분이 단합해가 오세요, 제발 좀.

○ 이사 문종대

그때는 의결하는 걸로 가시죠.

○ 이사 신동호

당일날 진행자 뽑고 표결하면 되니까요.

○ 이사 문종대

의결해서 가시는 걸로 해서, 가능한 한 의결을 빠르게 진행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죠.

○ 이사 류영호

다섯 분이 단합해가 오세요. 서로를 못 믿으시노.

○ 이사 신동호

지금 날짜는 만약에 문 이사님도 바꾸는 것에, 그러니까 다음에 논의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으시면, 날짜를 지금 우리 픽스하지 말고, 우리 특방이 있잖아요. 문 이사님 초대해서 특방에서 논의해서 모두가 참석하는 날로 잡으면 어떨까요?

○ 이사 김선남

아니요. 그런데, 그러면 10월 말일까지 갈 수 있어요. 합의 안 하면 이거 회의를 못 합니다.

○ 이사 신동호

그러면 잡으시죠.

- 이사 류영호
10일 어때요, 10일?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그러면 10일 10일 가능하십니까? 이사님들께 여쭙습니다.
- 이사 류영호
10일 안 되는 분 있어요?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10월 10일 목요일 괜찮으십니까?
- 이사 김선남
오후는 어떠세요? 오후.
- 이사 류영호
오후든 오전이든.
- 이사 신동호
오전도 좋습니다만.
- 이사 문종대
10일 오후.. 제가 이거 몇 번을 미루어놓은 약속을 계속..
- 이사 신동호
아니면 11일도 괜찮고요.
- 이사 문종대
저는 11일은 좋습니다.
- 이사 류영호
11일도 괜찮아요.
- 이사 신동호
11일은 어떠신지요?
- 이사 김선남
어떠세요, 조 이사님?

○ 이사 신동호

11일 금요일 괜찮으시면 11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사 류영호

11일도 괜찮아요.

○ 이사 신동호

예, 그럼 11일로.

○ 이사 조호연

제가 날짜를 말하면 또 그날 안 된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지난번에는 그냥 강행하셨잖아요.

○ 이사 문종대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 이사 김선남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 이사 문종대

되는 날을 만들어보세요.

○ 이사 김선남

그때 저는 금요일날 못 했어요. 약속 있어서.

○ 이사 조호연

아니, 저는 사실 오늘 의결했으면 좋겠는데.

○ 이사 류영호

아- 참 미치겠네, 정말..

○ 이사 조호연

아니, 제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이사 문종대

예. 밝힐 수 있는데, 의견이 지금 다수가..

○ 이사 박태경

저도 의결했으면 좋겠지만, 또 3:3이면 그냥 안 되는 걸로. 할 수 없습니다.

○ 이사 류영호

의견이 있는데, 그게 대다수가 지금 그렇게 안 돼 가고 있는데 또 그 얘기해뽐면..

○ 이사 문종대

지금은 3:3이니까.

○ 이사 박태경

예.

○ 이사 김선남

문 이사님, 그러면 10일날 목요일 오후시간 어떠실까요?

○ 이사 류영호

10일도 좋고,

○ 이사 문종대

하여튼 제가 목요일로 바꿔보겠습니다.

○ 이사 류영호

저도 10일날 오후에 회의가 있지만,

○ 이사 신동호

그러면 그 부분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10일날 오후에 하든 11일날 하든 이런 건 조정을 좀 해 보죠.

○ 이사 문종대

10일, 11일 중에 조정해 주십시오.

○ 이사 김선남

아니, 근데 우리 그렇게 하면요, 못 해요. 제가 우리 속성을 알잖아요. 날짜를 딱 정해 놓고 두 분이 올 수 있으면 오시고, 못 오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 이사 류영호

두 분이 없으니까, 두 분이 없으니까 그러면 10일, 11일 중에서,

○ 이사 김선남

10, 10. 아닙니다. 그건 저 반대예요. 날짜 못 잡아요.

○ 이사 류영호

목.. 금요일은 안 돼요?

○ 이사 김선남

아니요. 10일날 하시게요. 지금 문 교수님이 또 날짜 바꾸신다고.

○ 이사 신동호

그런데 문 교수님이 10일이 약간 유동적이란 말씀이지요?

○ 이사 문종대

또 결례를 범해야죠. 약속을 몇 번 바꾼 날이 돼 가지고. 그거야 개인적 사정이니까..

○ 이사 류영호

금요일은 안 돼요, 금요일?

○ 이사 김선남

그런데 다른 분들이 또 만약에 안 되면 안 되니까 목요일날로 하시죠.

○ 이사 류영호

다른 분이 또 목요일도 안 될 수 있잖아.

○ 이사 김선남

누가요?

○ 이사 류영호

여기 지금 없는 분. 지금 안 계시는 두 분.

○ 이사 김선남

아니 왜, 지금 안 계시는 분을 배려를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오늘 의결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배려기 때문에, 이분들 의견을, 우리 못 해요. 11월도 넘어갑니다. 그럼 계속 이사장님으로 저는 모시는 거거든요.

○ 이사 류영호

그러면 합시다. 10일로 하든지 여기 다, 합시다.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그러면 10일날 오후로,
- 이사 문종대
3시.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3시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하는 이사들 있음]

- 이사 신동호
3시로 하니까 퇴근길이 무지 막혀요. 1시간만 당기면 안 돼요?
- 이사 김선남
좋습니다.
- 이사 류영호
아니, 오전에 하면 안 돼요?
- 이사 박태경
오전엔 또 지방에서 올라오시기가 힘들잖아요.
- 이사 김선남
괜찮아요.
- 이사 류영호
힘 안 들어요.
- 이사 김선남
괜찮아요.
- 이사 문종대
저는 힘들어요. 11시 수업 마쳐야 돼. 마치고 비행기 타고 오면 딱 맞아요.
- 이사 류영호
아, 수업 마치고 나 사실 또 회의가 있는데, 회의 그날 빠져야 되겠다.

○ 이사 신동호

다음 주에는, 제 생각에 다음번에 하면 길어질 이유가 없는 게, 오늘은 ‘누가 진행할 것인가’ ‘그 진행자를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이런 게 너무 길었는데, 그걸 오늘 다 정리를 했으니 다음번은 짧을 수밖에 없는 게, 진행자 호선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진행하고,

《유시춘 이사장 퇴실(18:10)》

○ 이사 김선남

그렇죠 의결하면 되니까, 다 의결로.

○ 이사 신동호

532 먼저 의결하고, 그래서 결정된 분이 531 하고 처리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 1시간이면 끝나요.

○ 이사 문종대

예, 그렇게 하시죠.

○ 이사 신동호

그러니까, 하여튼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건 제 의견일 뿐이고,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예, 알겠습니다.

○ 이사 신동호

그럼 정리해도 되죠?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예, 그러면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 이사 신동호

가겠습니다. 예.

○ 이사 김선남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이 다 배려하신 거예요.

○ 이사 류영호

예. 이사장님 배려하신 게 아니고, 그냥 이사님이 배려하신 거..

○ 이사 신동호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 이사님 말씀대로 우리 진짜 너무 불신의 골이 깊네.

○ 이사 조호연

이 정도면 신뢰하는 거예요.

○ 이사 신동호

좀 신뢰하면 좋겠네. 수고하십시오.

○ 이사 류영호

수고하셨습니다.

《 2024년 9월 26일 정회(18:10)》

《 2024년 10월 10일 속개(15:00)》

○ 의장 유시춘

사무국장님,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성원보고 해 주십시오.

○ 이사 이준용

아니, 잠깐. 잠깐. 지금 저,

○ 의장 유시춘

성원보고 해 주십시오, 빨리.

○ 이사 이준용

아니,

○ 의장 유시춘

어서 해 주십시오.

○ 이사 이준용

EBS에 이사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시 이렇게, 성원보고 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 의장 유시춘

저는 자격이 있으니까 얼른 하십시오. 이사국장님, 빨리 보고해 주십시오.

○ 이사 강규형

아니, 전번 회의에서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느닷없이 또.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성원,

○ 의장 유시춘

이사국장님, 성원보고 해 주십시오.

○ 이사 강규형

지금, 아니, 그거를 붙잡으면 지금 어떡하시겠다는 겁니까?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일단 성원,

○ 의장 유시춘

사무국장님,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으니까 해 주십시오.

○ 이사 조호연

일단 성원보고,

○ 이사 강규형

아니, 이렇게 규정, 법 다 무시하고 가서도 되는 겁니까?

○ 의장 유시춘

예, 규정과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사 강규형

아니, 전번 회의에서 유시춘 이사께서 8조 얘기를 하면서 내용도 왜곡을 했어요. 내용을 뭐라고 했냐면, ‘이사의 연장에 관한 건’을 ‘이사회 연장’이라고 한 거, 회의록 보십시오. 그렇게까지 왜곡하면서 그렇게,

○ 의장 유시춘

왜곡이 아닙니다. 저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이사 강규형

무슨 법과 규정이에요?

○ 의장 유시춘

이사국장님! 빨리 성원보고 해 주십시오.

○ 이사 이준용

아니, 소리 지를 게 아니라, 사무국장은,

○ 이사 문종대

성원보고 동의합니다.

○ 이사 박태경

예, 동의합니다.

○ 이사 조호연

아니, 성원보고도 못 하는 게 어딴어요? 성원보고 하고,

○ 이사 이준용

아, 성원보고는 임시의장이 선출돼야 성원보고 하는 거지,

○ 이사 강규형

아니, 전번에 약속하셨는데 그걸 왜, 왜 또 그거를 지금 어기십니까?

○ 의장 유시춘

임시의장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원보고 해 주십시오.

○ 이사 강규형

아니, 전번에 분명히 재논의하기로 하시고 나서 이렇게 지금 막무가내로 지금 나가도 되는 거예요?

○ 의장 유시춘

저는 법과 규정을 지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사국장님, 성원보고 해 주십시오.

○ 이사 강규형

법과 규정을 지금 안 지키고 있으니까 지금 하는 겁니다.

○ 이사 류영호

아니, 왜 이게 수시로 바뀌어요?

○ 이사 강규형

아니, 뭐 마음대로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 이사 류영호

청개구리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 이사 강규형

EBS는 뭐 지금 뭐, 이거 뭐 허수아비 기구입니까?

○ 이사 류영호

아니, 오늘, 오늘 뭐 박태경 이사님을 하든지 이준용 이사님을 하든지 임시의장을 선출해서
하기로 했으면,

○ 의장 유시춘

그건 법과 규정에 없는 일입니다.

○ 이사 문종대

성원보고 해 주세요.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예, 성원의,

○ 이사 이준용

아니, 성원보고가 말이 안,

○ 이사 조호연

아니, 성원보고는 그거하고 무관한 일이에요.

○ 이사 문종대

회의 진행하세요

○ 이사 이준용

성원보고, 아니,

○ 이사 조호연

성원이 됐는지 안 됐느냐 하는 것이지,

○ 이사 이준용

아니, 그 성원이, 그거는 의장이 실무 국장한테 성원보고 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의장이 없을 때는 여기서 이사들끼리 호선해서,

○ 이사 조호연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어느 법에 그런 게 정해져 있어요?

○ 이사 이준용

아니, '21년 9월에,

○ 이사 문종대

이거 오늘 하루 종일 논쟁합니다.

○ 이사 조호연

성원보고 하십시오.

○ 이사 강규형

아니, 약속 이렇게 어기시고 계속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 이사 문종대

회의 진행하시죠 오늘 하루 또 이거 저번처럼 또 논쟁할 겁니까? 회의 진행하시죠?

○ 이사 박태경

예, 회의가 안 끝날 것 같습니다.

○ 이사 류영호

아니 저번에,

○ 이사 박태경

일단 성원보고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사 문종대

회의 진행하시고 안건 나중에 상정해서,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성원의 보고만, 성원의 보고만 좀..

○ 이사 류영호

아니, 저번에 연결해서 저번에 얘기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또 갑자기..

○ 이사 강규형

아니, 전번에 얘기한 대로 좀 진행 좀 하시죠

○ 이사 류영호

이분들이 갑자기 또 왜 바뀌어서..

○ 이사 강규형

뭐 또 그냥 그 저, 대책회의들 하고 와 가지고 뭐 다 뒤집어엮고, 이거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 이사 류영호

아니, 수시로 바뀌면 이게 뭐예요..

○ 이사 강규형

지금 여기가 뭐 봉숭아학당이에요?

○ 의장 유시춘

이사국장님, 왜 성원보고 안 하십니까? 성원보고 하십시오

○ 이사 류영호

아니, 성원보고,

○ 이사 강규형

유시춘 이사님,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 의장 유시춘

이사국장님, 성원보고 왜 안 하십니까?

○ 이사 류영호

이사국장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자꾸 그렇게 해요? 아니, 저번에 우리가 약속한 대로 오늘,

○ 의장 유시춘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토론했습니다, 그때.

○ 이사 조호연

이사국장이 성원보고를 못 하게 막는 쪽이 어느 쪽이에요?

○ 이사 류영호

아, 토론한 게 약속이죠

○ 이사 문종대

의결된 건 없죠

○ 이사 류영호

마지막 마칠 때까지 박태경 이사님을 또 임시의장으로 또 지명했다가, 그게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합의해서, 그러면 오늘 만나서 속개를 해 가지고 임시의장을 뽑아서 하자고, 임시의장을 박태경 이사님 뽑든지 이준용 이사님 뽑든지,

○ 이사 조호연

성원보고 하시죠

○ 이사 류영호

호선으로 하든지, 교황청 투표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갑자기 무슨..

○ 이사 이준용

아니, 성원보고도 뭐고, 지난번에 내가 회의장을 나가서 그 뒤에 갈무리 된 것을 좀 들었는데, 그러면 그 연장선상의 회의라면 오늘의 의장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선출을 해서 그 사람이, 아니, 지금 연장자로서 본인이 진행한다고 여기서 선출해 주면, ‘연장자가 합시다’ 하면 본인이 성원보고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없이 지금 이사장의 자격으로 사무국장한테 성원보고 해 달라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 이사 문종대

이사장 자격,

○ 이사 이준용

아니, 그러면 이사장이 직무가 연장됐다고 그러면 투표해서 뽑든가,

○ 이사 문종대

이사장 자격 없다고 언제 무슨 의결을 했어요? 의결한 게 있어요?

○ 이사 이준용

아니, 저희들이 그거 없다고 제의했으니까, 논쟁은 있었으니까,

○ 이사 문종대

그러면, 논쟁은 있었지만 의결은 없었잖아요

○ 이사 이준용

아, 그럼, 이,

○ 이사 문종대

의결 없었으니까,

○ 이사 이준용

아니, 그럼 지금 유시춘 이사가 이사장 사회 불 자격이 있습니까?

○ 의장 유시춘

예.

○ 이사 문종대

이사장 자격 있죠.

○ 이사 이준용

그 증거 대주세요, 증거!

○ 이사 문종대

이사장 자격 없다는 증거 대보세요. 똑같잖아요.

○ 이사 류영호

있다는 법이 어딴어요?

○ 이사 이준용

먼저 사회를 보니까 증거를 대라는 거 아니에요!

○ 이사 류영호

있다는 법을 대보세요, 있다는 법을.

○ 이사 이준용

저는 이사장 자격 없다는 게 뭐냐면, '21년 9월에는, 제가 동의해 줄 적에는 아무것도 몰랐 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법카 문제 등 사법적 리스크가 있잖아. 범죄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 이사 문종대

명예훼손이네요.

○ 이사 이준용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되는 거지!

○ 이사 문종대

이준용 이사님, 어디 범죄, 범죄자예요? 그게 지금 당신이 결정해?

○ 이사 이준용

아니, 조사 받는, - ‘당신’이라니!

○ 이사 문종대

아, 죄송합니다. 그건 내가 사양, 그건 잘못했고요.

○ 이사 이준용

조사 받는 사람은 범죄 예정자예요, 범죄자!

○ 이사 문종대

지금 ‘범죄자’라고 그랬잖아요.

○ 이사 류영호

순리대로 하시죠, 순리대로.

○ 이사 문종대

범죄자라 할 수 있어요? 재판하십니까?

○ 이사 류영호

순리대로 하시죠.

○ 이사 이준용

재판이 아니라,

○ 이사 문종대

범죄자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 이사 이준용

사범 리스크라는 거나 범죄자를 똑같,

○ 이사 문종대

아, 사범심사 받으면 전부 범죄자예요? 말 조심하셔야죠.

○ 이사 이준용

모든, 내가 재판을 받고 있으면 범죄자인 겁니다. 범죄 용의자.

○ 이사 문종대

그럼 용의자로 바꾸든지.

○ 이사 이준용

예, 범죄 용의자입니다.

○ 의장 유시춘

그저는 국가 기구가 해결할 일이고요, 이준용 이사님이 개입하실 일이 아니십니다

○ 이사 이준용

아,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니까. 이사로서 이사장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 이사 문종대

이사장 자격이 있고 없고를 이준용 이사님 혼자서 결정합니까?

○ 의장 유시춘

누가 정합니까?

○ 이사 이준용

아, 제가 얘기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자격이 있다는 걸 먼저 보여준다고, 그리고 과거 간담회 때 본인이 판례나 이런 걸 다 조사해서 우리한테 분명히 보여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이사 문종대

이사장 자격 여부를 여기서 권한은 아니죠

○ 이사 이준용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야지.

○ 이사 문종대

아니니까 회의 진행해서 빨리 끝내시죠.

○ 이사 강규형

저, 저는 그래도 법과 규정을 제시하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과 규정을 갖고 온다고 하고는 하나도 안 갖고 오고, 한다는 얘기가 ‘연장 못 한다는 규정을 대라’는 그런 궤변을 갖고 오고 나서 그냥 이사장 연장을 한다는 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의장 유시춘

제가 이걸 너무 길어지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사 강규형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나중에 무슨 그, 죄를 받을라고 지금..

○ 의장 유시춘

지난, 지난 성립되지 못한 이사회에서 충분히 말씀들을 하였고요.

○ 이사 강규형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 의장 유시춘

8기 이사회는 자동 연장되었고, 결코 지금은 이사회가 임시이사회가 아닙니다.

○ 이사 강규형

자동 연장됐다는 얘기 없었어요.

○ 의장 유시춘

그래서 이사회 법과 정관에 따라서 저는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 이사 이준용

그러니까 이사회를 자동 연기됐지만, 이사장에 대한 연임 안 됐다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 H채널에 난 기사를 보고 이거에 대한, EBS에 대해 얼마만큼 EBS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했는지 이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 의장 유시춘

어제, 어제 청문회 보셨습니까? 저 식권 5,000원짜리까지 검찰에 이첩해서 한 거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 이사 문종대

I신문에 기사가 나면 모든 게 자격이 없습니까?

○ 의장 유시춘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 이사 강규형

그래서 저 2,500원은 문제 삼으셨어요? 참 나..

○ 이사 박태경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사장님 자격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의안을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 이사 이준용

그러니까 의안 진행해서 하는 건 좋지만, 지금에, 9월 14일자인가 지난 달 결로 이사장의 임기는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의를 하려면, 이사회를 진행하려면 임시, 연장자가 하든 뭐든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면, 아니, 본인이 연장자라고 해서 한다면 내가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사장 자격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

○ 이사 강규형

지금 이거 귀머거리한테도 얘기를 해도 이 정도는 알아들을 텐데요. 법과 규정이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10조 3항,

○ 이사 문종대

그만하시죠

○ 이사 강규형

임기가 끝난 임원은,

○ 의장 유시춘

그만 하시죠 지난번에 다 말씀하셨잖아요!

○ 이사 강규형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박 자료를 못 내셨잖아요.

○ 이사 류영호

인정을 안 하니깐, 인정을 안 하시니까 계속 하잖아요.

○ 이사 문종대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타당하지 않으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죠

○ 이사 강규형

자, 한국방송공사 정관 8조에,

○ 의장 유시춘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 이사 류영호

아니, 법이, 계속 연장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 이사 강규형

‘임기가 끝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돼 있지, 이사장에 대한 거는 없어요

○ 이사 류영호

A기관에는 있지만 EBS는 없는데 왜 자꾸, 있는 걸 갖고 오세요, 그러면

○ 이사 강규형

그거 한다고 하더니 지금 유시춘 이사께서는 ‘임기가 끝난 이사회는’ 이렇게 또 잔머리를 굴려서 얘기를 했어요, 잘못.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 의장 유시춘

무슨 잔머리라는 말씀을 쓰십니까?

○ 이사 문종대

말 좀 조심하세요.

○ 의장 유시춘

말씀 좀 조심하십시오.

○ 이사 강규형

아니, 규정을 잘못 얘기를 했잖아요, 전번에. 속기록 볼까요?

○ 의장 유시춘

저는요, - 속기록이 아닙니다, 그게. 회의가 개회가 안 됐기 때문에 속기록으로 될 수가 없고요.

○ 이사 강규형

아, 글썄, 속기록 된 거 지금 회의록에 있는데,

○ 의장 유시춘

자, 이 이견을 가지고 언제까지 또, 또 말씀을 나누시겠습니까?

○ 이사 강규형

아니, 계속 이러시면 정말 추합니다.

○ 이사 류영호

그걸 다 떠나서, 저번에 우리가 약속하고 마지막에 의논한 바대로 오늘 하시면 되는데,

○ 이사 조호연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의장 유시춘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 이사 류영호

그걸 안 하시니까 문제지.

○ 이사 조호연

예. 이사장께서 이 회의를 주재하시면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책임을 또 지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로 하셔서 성원보고를 진행을 좀 명령을 하시죠.

○ 이사 강규형

아, 담보가 어딴습니까? 담보가 어딴어요?

○ 이사 이준용

아니, 먼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감사님, 감사님한테 질문 있는데,

○ 이사 조호연

우리 강 이사님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 이사 이준용

유시춘 이사장 때, 재직 때 감사 결과 보고, 사장께 보고했습니까?

○ 의장 유시춘

그거,

○ 이사 문종대

그게 지금 여기에 문제될 사안입니까? 논의사항인가요?

○ 이사 조호연

아니 아니, 성원보고하세요, 성원보고.

○ 의장 유시춘

그게 왜 지금 여기에 문제가 됩니까?

○ 이사 문종대

질의사항이에요, 이게?

○ 의장 유시춘

정말 참을 수가 없네요.

○ 이사 이준용

이사로서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 이사 문종대

지금 이사장 자격 그걸 논하는 거예요?

○ 이사 이준용

감사한테 여쭙보는 거예요, 감사한테. 그거 처리 어떻게 했습니까?

○ 의장 유시춘

지금 이사회입니다!

○ 이사 이준용

아니, 이사회에서 이사 얘기를 못 하면 어디서 합니까?

○ 의장 유시춘

이사국장님!

○ 이사 이준용

뭐든지 다 다룰 수 있는 거예요.

○ 의장 유시춘

이사국장님.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예.

○ 의장 유시춘

왜 성원보고를 안 하십니까?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성원, 성원의 보고는,
- 이사 류영호
자, 저기, 저번에 얘기한 대로,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성원보고를 드리도록,
- 이사 강규형
애꿎은 국장님 잡지 마시고요.
- 이사 류영호
우리가 호선을 하든지, 아니면 교황청 투표를 하든지 투표해서,
- 의장 유시춘
이게 임시이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호선할 수 없습니다.
- 이사 류영호
아니, 그럼 저번에는 왜 그렇게 얘기하고 마쳤어요?
- 의장 유시춘
그때는 이전에 제가 경청을 하느라고 이건을 들어드린 것입니다.
- 이사 류영호
아니 저번에는 잠시, 잠시 브레이크 타임에 갔다 오시드만 또 바꾸고,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성원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 류영호
이제는 또 며칠 지나서 연장되는데 또 바꾸고, 이거 뭐..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이사님,
- 이사 이준용
아니, 사무국장이 책임질 수 있어? 성원보고 하지 마요!

- 이사 조호연
왜요?
- 이사 류영호
아니, 손바닥 뒤집듯이..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재적이사,
- 이사 이준용
아니, 누구의 명령으로 성원보고를 해? 지금 의장이 없는데.
- 의장 유시춘
이사님은 무슨 권한으로 성원보고를 막으십니까?
- 이사 이준용
아니, 유시춘 이사는 무슨 권한으로 성원을 보고, 성원보고를 해 달라고 하는 거야?
- 이사 류영호
손바닥 뒤집듯이..
- 의장 유시춘
9분의 1입니다. 9분의 1, 이렇게 되면 표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 이사 이준용
표결하든 뭐 하여튼..
- 이사 문종대
잠깐만요. 그럼 하나 보시죠. 하나 보시죠. 지금 이사장을 계속해서 계속, 계속 7기 이사..
아, 8기 이사회에 연장돼서 이사장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결하시죠.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문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 이사 조호연
아니, 그러지 말고,
- 이사 강규형
아니, 그거는 지금 가결사항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 이사 문종대

법적 문제는 양쪽에 지금 논쟁이 많잖아요, 양쪽에.

○ 이사 류영호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하자는데 왜..

○ 이사 문종대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 이사 조호연

아니, 의사진행발언 하죠. 이사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까.

○ 이사 박태경

예, 의결 바로 하시죠.

○ 이사 조호연

성원보고에 대한 의견 다툼이 있으니, 성원 다툼을 놓고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유시춘

예,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합니다.

○ 이사 문종대

찬성합니다.

○ 이사 조호연

찬성입니다.

○ 이사 류영호

아니, 성원보고를 하기 전에,

○ 이사 강규형

아니, 성원보고도 안 했는데 무슨 지금 표결이에요?

○ 이사 이준용

아니, 누가 그걸 의제로 해서 찬성을 하고 해요? 아니, 아니, 부의도 안 했는데,

○ 이사 조호연

의견이 다르면,

○ 이사 강규형

성원보고도 안 하고 지금 개시도 안 했는데 무슨 그거예요?

○ 이사 류영호

일단 성원보고를 주장하게 되면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이사님들, 성원의 보고만,

○ 이사 조호연

이제, 합법적으로 하셔도 돼요, 이제는.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성원의 보고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 이사 류영호

임시의장을,

○ 이사 조호연

하셔도 돼요.

○ 의장 유시춘

마이크를 대고 크게 해 주십시오.

○ 이사 류영호

임시의장을 호선하든지 합시다.

○ 이사 조호연

하셔도 돼요.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예. 이사님들의 회의를 방해할 마음은 없는데요. 성원의 보고만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이사 강규형

자, A기관은요,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어차피 지금 방청도 되고 있기 때문에, 방청이 되고 있는 관계로,

○ 이사 강규형

A기관은 이사장이 임기 연장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거 다 얘기 들었고 그거 다 이해했잖아요.

○ 이사 류영호

성원보고하면 안 되는 것이, 성원보고하면 분명히,

○ 이사 강규형

우리는 그게 없어서 갖고 오라고 했더니,

○ 이사 류영호

성원보고 하면 분명히,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재적이사 아홉 분 가운데,

○ 이사 강규형

그게 안 된다는 규정을 갖고 오라는 궤변을 얘기하고, 이게 뭘니까?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전원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 이사 류영호

분명히 유 이사께서 뭐 땡땡도 두드리고 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일단 이사회규정 제7조에 의거해서,

○ 이사 류영호

그러니까 그런 수작 부리지 말고,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재적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 이사 류영호

그런 수작을 부리지 말고,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출석하셨으므로 성원은 되었습니다.

- 이사 류영호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시고,
- 의장 유시춘
예, 알겠습니다.
- 이사 류영호
그렇게 하면 안..
- 이사 조호연
이사장님, 성원보고 끝났습니다.
- 이사 류영호
뭘 성원보고 끝나요? 그건 아니에요.
- 이사 이준용
뭘 성원보고 끝나요? 나 듣지도 못 했는데.
- 이사 조호연
방금 했어요. 이제 개회선언 하시면 됩니다.
- 의장 유시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한국교육방송공사 제360회
- 이사 이준용
아니, 정말 이러지 말자니까, 왜 자꾸만 그러니까?
- 의장 유시춘
이사회를 시작합니다.
- 이사 류영호
아니에요. 이거는,
- 의장 유시춘

((의사봉 3타))

- 이사 류영호
이거는..

IV. 상정안건

< 의결안건 >

【 제532호 : 제8기 EBS 이사회 직무 수행의 연장에 따른 이사장 직무 수행 연장 확인 】

○ 의장 유시춘

오늘은 의안부터 먼저 심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2호 안건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이사 강규형

아, 저,

○ 의장 유시춘

발의한 이사님, 상정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 이사 강규형

사장님, 나중에 자신 있으세요?

○ 의장 유시춘

예, 자신 있습니다.

○ 이사 조호연

‘제8기’

○ 이사 강규형

아니, 지금 이사께 물어본 거 아니에요.

사장, 자신 있으세요?

○ 이사 조호연

‘EBS 이사회 직무 수행의 연장에 따라 2021년 9월’

○ 이사 류영호

아니, 이거 뭐 날치기도 아니고.

○ 이사 강규형

국감에서 자신 있으세요?

○ 사장 김유열

제가 자신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사 조호연

‘제8기 EBS 이사회가 의결선임한’

○ 이사 류영호

날치기도 아니고 이거 뭐예요?

○ 이사 조호연

‘이사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연장되는 것을 확인한다.’

○ 이사 강규형

지금, 행정조치도 지금 안 하고, 참..

○ 이사 조호연

제안사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후임을 임명하지 않음에 따라

○ 이사 류영호

이거 완전히..

○ 이사 이준용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이게?

○ 이사 조호연

정관 제8조에 의거해 제8기 EBS 이사회의

○ 이사 류영호

완전 짜고 와 가지고 지금..

○ 이사 조호연

직무 수행이 연장되었고, 그에 따라

○ 이사 류영호

뭐가 연장되었어요?

○ 이사 조호연

제8기 이사회 EBS 이사회 체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 이사 류영호

입 다무세요. 빨리 마이크 끄세요, 그거.

○ 이사 조호연

제8기 이사회가 의결 선임한 이사장의 직무 수행은 계속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고 있어서 현 유시춘 이사장의 직무 수행 계속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사 이준용

아니, 뭘 제안하신 겁니까?

○ 이사 박태경

동의합니다.

○ 이사 이준용

그러면 자, 자,

○ 이사 강규형

지금 뭐, 뭘 읽으신 거예요, 지금?

○ 이사 이준용

아니, 그러면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감사님! 답변해 주세요. 법인카드 감사했습니까? 감사님, 답변해 주세요.

○ 이사 문종대

지금 감사님이 이야기할, 저는 회의 진행에 지금 아니기 때문에,

○ 감사 최기화

감사는 했습니다.

○ 이사 이준용

그거 사장께 구상권 청구했습니까?

○ 이사 문종대

이사장님께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의장 유시춘

이사회, 이사회의 의안이 상정된 상태에서 이준용 이사님의 지금 발언은 감사님께로 향한 것인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 이사 이준용

아니, 이사가 아무,

○ 의장 유시춘

조호연 이사님께서 상정하신 의견에 대해서 토의해 주십시오.

○ 이사 이준용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거야.

○ 의장 유시춘

의견 주십시오.

○ 이사 강규형

의사진행발언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 이사 박태경

예, 그 의견에 찬성합니다.

○ 이사 문종대

그 의견에 찬성합니다.

○ 이사 박태경

의견에 찬성합니다.

○ 이사 류영호

완전히..

○ 이사 이준용

아니, 유시춘 이사가 법인카드를 불법사용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러면 연장 돼서 간다면 연장의 자격이 없다 라는 걸 제가 설명하려고 감사님께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님, 감사하셨죠?

○ 의장 유시춘

감사님은 이 의결 권한이 없으십니다.

○ 이사 이준용

아니, 물어보는 거라니까. 의결 지금, 의결하기 전에.

○ 의장 유시춘

지금 의안 상정해서, 의안 상정해서 상정안건을 토의 중입니다.

○ 이사 강규형

퀘변 좀 부리지 마시고요. 의결 안, 권한 없는 거 다 알지만, 물어보면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 의장 유시춘

지금 의결안건을 토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사 이준용

지금 토의하고 있는 거 아냐. 지금 물어보는 거 아냐, 갈려고.

○ 이사 강규형

어떻게 그렇게 6년간 그렇게 제 멋대로 사서 가지고, 나중에 이거 무슨 죄를 받으실려고 지금 저러세요?

○ 의장 유시춘

아, 책임은 제가 집니다. 모든 법적 책임은 제가 집니다!

○ 이사 강규형

아이고- 그러서 가지고 그렇게 6년간 그러셨어요?

○ 이사 이준용

아니 그니까, 여쭙보니까 답변만 해 주시고 감사님, 감사하셨죠?

○ 감사 최기화

예, 했습니다.

○ 이사 이준용

그 액수가 1,600에서 1,700 정도 되죠?

○ 의장 유시춘

자, 이 발언권은 제가 커트하겠습니다. 이 발언은 커트하겠습니다.

○ 이사 문종대

이것은 의안과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이미 지금 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 이사 조호연

발언권을 얻지 않은 발언이에요.

○ 의장 유시춘

의안 상정과 관련이 없는 발언입니다!

○ 이사 이준용

이게 왜 의안 상정에 관련이 없어요? 이사장이 이사장 직무를 계속 연장한다니까 물어보는 거지. 이사장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교육방송 이사장의 자격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 의장 유시춘

그러면 제가 이준용 이사님이나 다른 이사들 부적절한 것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 이사 문종대

아니, 이사장 자격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죠. 나중에 만약에 자격을 논하는 게 필요하면 의안으로 다시 올리세요.

○ 이사 조호연

의결 진행하시죠.

○ 이사 문종대

이사장 해임안을 올리세요.

○ 이사 류영호

그래서, 그래서 본인 문제하고 관계되는 걸 의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지금!

○ 이사 문종대

일단 안건은 상정이 되었고,

○ 이사 조호연

의결 진행하시죠.

○ 이사 문종대

진행하시죠

○ 의장 유시춘

저는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토의, 토의해 주십시오.

○ 이사 류영호

본인하고 관계되는 걸 회의를 진행해서 의사진행을 막고,

○ 의장 유시춘

박태경 이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사 박태경

저 그 의안에 찬성합니다.

○ 이사 문종대

찬성합니다.

○ 이사 류영호

이 사람들이 뭐 로봇인가..

○ 이사 이준용

아니, 뭐 토론도 없이 찬성이야. 봉숭아학당이야.

○ 이사 문종대

토론하세요. 반대토론 하시라고

○ 이사 류영호

로봇이에요, 지금?

○ 이사 문종대

반대토론 하시라고

○ 이사 이준용

내가 얘기하잖아. 지금 반대토론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 아냐.

자, 그러면 감사,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왜 지금에, 거기에 동의가 안 되는지를 반대토론 할게요.

○ 이사 조호연

아니, 반대토론, 반대토론 지명을 받고 하세요.

○ 이사 류영호

아니, 이때까지 지명 받고 했어요?

○ 이사 이준용

아니, 이사회에서 지명 받아야 합니까?

○ 이사 조호연

물론이죠.

○ 의장 유시춘

세 분이, 세 분이 함께 말씀하시니까 혼선이 생기지 않습니까.

○ 이사 이준용

그래서 제가 반대토론 할게요.

○ 의장 유시춘

그러니까 차례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 이사 이준용

자, 제가 반대토론 할게요.

○ 의장 유시춘

제가 미리 경고하는데요. 지금 이준용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사 이준용

아니, 내가, 내가 여쭙보는 거라니까. 정보가 와서

○ 의장 유시춘

여쭙보는 거라도 지금 사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사 이준용

감사님, 감사하셨습니다?

‘예’ ‘아니오’ 대답해 주세요.

○ 감사 최기화

예, 감사했습니다.

○ 이사 이준용

그러면 그 감사 결과를 집행부나 아니면 유시춘 전 이사장께 통보했습니까?

○ 감사 최기화

예, 통보했습니다.

○ 이사 이준용

그러면 그 통보하면 그게 구상권을 청구했죠?

○ 감사 최기화

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에서.

○ 이사 이준용

그러면 구상권 청구는 어디서 했습니까?

○ 감사 최기화

그건 회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 이사 이준용

그러니까, 그러면 회사, 김유열 사장님께 여쭙습니다. 그거 청구 이사장께 했습니까?

○ 사장 김유열

구상권 청구는 하지 않았고요. 감사실 감사의견을 통보를 받았고, 해당 금액을, 말씀하신 금액을 환수 조치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이사 이준용

예. 그럼 시행했습니까?

○ 사장 김유열

저는, 시행한 게 아니고,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서 이의신청을 냈고, 그 이의신청 이후에 또 저희 환수조치 통보를 2차로 받아서 또 이의신청을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냈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이의신청을 낸 이유는, 첫 번째는, 지금 감사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검찰수사가 압수수색까지 진행이 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감사한 내용이 검찰수사를 압도할 만큼의 그 증빙성과 증거성을 제시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만약에 검찰수사 결과, 또 사법 당국의, 법원에서 1,600만원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을 부당

사용액으로 확정하면 제가 청구한 청구 행위 자체가 또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일단 제가 이의신청을 낸 것은 1,600 상당의 돈이 다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거꾸로 문제가 되면 법률적 문제를 안을 수 있는 문제도 되고, 그래서 기왕이면, EBS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고 집행부가 이사회에 어떻게 보면 집행부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에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래서 법원이나 사법 당국이 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때 사후에 환수 조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 이사 이준용

자, 회사에서는,

○ 이사 강규형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요.

○ 이사 신동호

잠깐, 잠깐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유시춘

예, 신동호 이사님 하십시오.

○ 이사 신동호

지금 사장님 말씀하셔서, 지금 제가 보기에 언성을 높일 일은 아닌 것 같고, 오늘 회의가 이렇게 속개된 과정은 저희가 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 논의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제가 이따 다시 정리를 한 번 할 건데, 일단 지금 말씀 나오신 부분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장님 말씀을 요약하면, 감사실에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감사 내용을 경영진에게 전달을 했고, 그 부분에 일정 부분 좀 문제가 있다 라는 취지로 보고를 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장님의 말씀을 종합하면, ‘검찰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추후 검찰수사 결과와 차이가 있을 경우에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견 상식 기반의 통상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검찰의 수사가 없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감사실의 감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는 조치를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됩니까?

○ 사장 김유열

지금까지 EBS의 부당사용 금액의 직원들에 대한 환수 절차는, 대개 감사가 이루어지고 또

감사실에서 해당자에게 이 부분을 통지를 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징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검증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징계위원회가 있고 특별징계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환수를 한 사람, 한 직원들의 경우는, 본인이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감사 결과를 인정한 경우입니다. 인정한 경우에 환수 조치가 이루어졌고, 만약에 인정하지 않으면 그다음 조치는 사실 사측에서는 사법 당국에, 부당한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면 사법 당국에 호소하는 방법뿐이 없지, 강제집행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 이사 강규형

지금 전혀 틀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 이사 신동호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감사실에서, 그것이 꼭 법인카드의 부당 사용 부분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 됐건 어떤 감사 내용이 나왔을 때 해당 당사자는 어떤 형태로든 자기 소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자기 변호를 강력하게 할 텐데, 그 말씀은, 제가 좀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당사자가 끝까지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면 따로이 무슨, 경영진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라는 말로 들려서, 물론 그것이 Case by case이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 의문, 검찰 조사가 없었을 경우에 감사실의 감사 결과를 전달했을 때, 만약에 그것을 본인이 거부하면, 거부라기 보다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금 경영진으로서는 방법이 없다, 그 말씀인가요? 그 직원도 그렇고,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 사장 김유열

직원에 관계된 건 사실 규정이 있습니다. 내부에 여러 규정이 있는데, 이사님들에 관한, 이사님들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직원 감사규정을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사님들의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구체적인 디테일한 사항은 현재 상황은 없고,

○ 이사 신동호

그러면 감사님께 제가 여쭙보겠습니다.

감사님께서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시고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감사 결과를 아무런 규정도 없는데 또 이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소위 말해서 제재 방안이 없는데 경영진에게 보고했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요.

○ 감사 최기화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게 되고, 또 이의신청을 검토를 해서 이의 시 한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감사 내용을 거의 확정을 하게 됩니다. 확정된 내용을 통보해서 집행을 집행부에 요청하는 것이고, 처분을. 그 처분이 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여러 가지로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사 신동호

그 후속조치라고 하면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 감사 최기화

일단 회사로서는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사상 일단 청구 소송을 내든지 해야 될 것이고, 또 필요하면 형사상 조치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 이사 신동호

지금 감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럴 경우에 해당되는 후속조치를 아직까지 진행하지 않은 것은, 사장님 입장은 여전히 ‘검찰수사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사장 김유열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검찰, 지금 이사분들에 대한 감사 부분이 직원들과 동등하게 보기는 어렵다. 아까 직원에 관한 규정은 분명하게 있고, 지금 직원에 관한 규정에 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준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는, 감사님들에 대한 감사가 저는 그 어느 감사보다는 직원들과 신중하게, 감사 행위 자체도 그렇고 감사 처분도 그렇고 그 후속 조치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 이사 강규형

그런 게 바로 내로남불인 게요,

○ 사장 김유열

두 번째는, 제 기억으로는, 그 처분서의 기억으로 보면, 수백 건의 영수증이 있는데, 하나 하나가 다 사적 사용으로 이루어졌다 라는 게 증빙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보통 검찰수사를 하게 되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하나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하나의 수백 건이 날개로 개별 증명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좀, 개별 증명을 또 감사실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사 자체에 한계가 좀 있어 보였다. 그러니까 감사실의 한계라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수사와 감사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부 하나하나 제가 수백 개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펴본 건 아니지만, 두 번째는, 기왕에 압수수색까지

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굳이 화급을 다두고 실제로다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능도 없는데 그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라는 생각을 해서, 환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환수가, 환수 금액이 좀 더 사법당국에서 확정이 되면 EBS의 손해는 그때, 좀 지연은 될 수 있어도 금전적 손해는 회복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 이사 강규형

사장님, 제가 문의 저한테 하셔서 다 대답을 했는데 지금 와서 다른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유명한 2017년 B사 건으로 가보시죠. 그러면, 그때 B사 장악하려고 이사들 다 문제없이 지나간 거를 다시 뒤져 가지고 11명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액수도 비슷해요. 한 2~3백만원. 그래서 우리 유시춘 이사 좋아하시는 J 이사 이하 전원이 다 문제 있는 것으로 나와서, 물론 검찰 조사도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다들 내라.’ 그래서 11명이 전부 다 냈어요, 일단은 다 냈어요. 전혀 문제없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수사 따로 다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 분명히 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언급 안 하시고 참 shield 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 이사 이준용

제가 강 이사에 덧붙여서 말씀을,

○ 이사 강규형

이러시면 안 돼요.

○ 이사 이준용

강 이사, 예, 덧붙여 말씀드리면, B사나 EBS, D사하고 K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강규형 이사 퇴실(15:30)》

B사하고 EBS는 국가 세금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만약에 범카를 잘못 썼으면요, 바로 구상권을 청구하고 바로 해임하고 합니다. 검찰에 가 갖고 무죄 다툼이 있어도요, 그건 해임 됩니다.

그러나 K사나 D사는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하고 공사, 공영방송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카드의 모양새도 여기는 무슨 빨간 줄 그어 갖고 이런 카드 나오잖아요, 국가 공무원들 받는 카드 똑같은 거. 그게 무서운 카드입니다. 그건 돈 1원이라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 세금을 가지고 정말 어디 가서 잘못 쓰면 그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옛날에 '21년 와 갖고 이 밑에서, 밑에서 혼자 1인분 커피 한 잔, 할리스인가 할리스인가 뭐 여기, 이디야인가 어디서 샀는데, 제가 모르고 EBS 카드 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명이 먹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반환조치 하더라고요.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범인카드를 관리하는

EBS에서, 아니, 이사장은 특별합니까, 그러면? 전 이사장은?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기사에 보면 이사장이, EBS 준 업무 추진비가 얼마입니까?

누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 사장 김유열

사무국장님.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예. 업추비는,

○ 의장 유시춘

지금 여기 법카 얼마인지 묻는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기서 끝겠습니다.

○ 이사 이준용

아니, 나오니까, 얼마, 법카 얘기 나오니까, 얼마입니까?

○ 의장 유시춘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 이사 이준용

이사장 법인카드 얼마냐고요. 한 달,

○ 의장 유시춘

알고 계시잖아요!

○ 이사 이준용

아니, 제가 숫자를 그렇게,

○ 의장 유시춘

그리고, 지금 의결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데 제 법카 얼마인지를 왜 묻습니까?

○ 이사 이준용

아니,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토론하기 위해서.

얼마입니까?

○ 의장 유시춘

토론 안 하겠습니다, 저는.

《강규형 이사 재입실(15:32)》

○ 이사 문종대

이게 아니라, 이사장 자격 유·무를 따지는 안건이 아니라, 이사장 직무 수행 연장 확인을 하는 안건이고, 그다음에 이사장이 만약에 감사나 검찰수사를 받는 분으로서 이사장 자격에 문제가 있으면 이사장 해임안을 내십시오, 나중에. 해임안을 내서 하고,

○ 이사 이준용

아니, 대답을 않는데, 지난번에 해임안 냈을 때는, 대답하시고요.

○ 이사 문종대

지금은 연장 유·무에 대한 안건입니다.

○ 이사 이준용

여기에 보면 ‘100여만 원’이라고 했는데, 100여만 원 맞습니까?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예, 180만 원 정도

○ 이사 이준용

‘180만 원’하고 ‘100여만 원’하고는,

○ 이사 박태경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이사 이준용

이건 ‘200여만 원’이 맞는 거고요 이렇게 국회에서,

○ 이사 박태경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유시춘

예, 박태경 이사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받겠습니다. 너무 길어집니다.

○ 이사 박태경

지금은 그런 것은 나중에 각자 따지시고, 532호 안건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절차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사 문종대
예, 의결하시죠
- 이사 강규형
아니, 지금 검찰조사와 상관이 없다고 지금 실례와 근거를 얘기하는데 지금 무슨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 이사 이준용
없다고 그 얘기를 해 갖고 지금 따지는 건데 무슨..
- 이사 강규형
아니, 제발 좀 뭘 하려면,
- 이사 박태경
532호,
- 이사 강규형
저처럼 근거와 실례를 좀 제시를 좀 하세요.
- 이사 박태경
안전에 대해서 이제 찬·반으로 하시면 되죠.
- 의장 유시춘
강규형 이사님, 지금 박태경 이사님이 말씀 중이십니다!
- 이사 강규형
아- 정말..
- 이사 류영호
아니, 말도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 의장 유시춘
예, 말씀하십시오.
- 이사 류영호
짜고 와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무슨 그게 의견이에요?
- 이사 강규형
아니, 전번 회의에서 분명히 제3자를 내세우기로 하고는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 의장 유시춘

예, 회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사 이준용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격이 없어요.

○ 이사 강규형

뭘 회의를 진행을 하세요, 지금?

○ 이사 박태경

지금은 5322호 안건을 지금 의결하는 절차입니다.

○ 이사 류영호

아니, 지금 532호 안건을 상정한 자체도 잘못됐지만, 그 안건에,

○ 이사 이준용

아니, 절차를 무조건 올리면 두들깁니까? 토론을 해야지, 충분히.

○ 이사 류영호

안건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사장으로서 연장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를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사장의 어떤 리스크라든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 라든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갖고 왜 그래요, 자꾸?

○ 이사 박태경

그런 얘기는 충분히 다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 이사 류영호

뭘 충분히 다 나왔어요?

○ 이사 박태경

토론으로 어떤 결론이 맺어지지 않는 건 다 알지 않으십니까?

○ 이사 류영호

아니, 나오지 않았고, 나왔다 하더라도 인정도 안 할뿐더러, 특히 감사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검찰에서 조사한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금액이 지금 새로, 감사실에서도 실제 조사를 해 본 겁니까? 사적 사용한 거 맞아요?

○ 감사 최기화

저희들은 일단 업무추진비 규칙에 따르면 그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실하게 소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한 소명을 받았는데, 그 소명이 사실과 다르거나 여러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소명일 경우에, 그리고 여러 가지 소명하기 어려운, 소명이 안 된 부분 중에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서 상당히 유의해야 되는 항목들에 결부돼 있는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사적 의심 확실히 이렇게 구분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환수 조치를 하는 것으로 검찰수사 내용과는 좀 다르다, 성격이 다르다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 이사 류영호

그러니까 검찰하고 다르게 자체 감사를 해 보니까, 결국 자체 감사에서도 업무추진비 사용 규칙을 어기고 개인적인 사용한 것이, 뭐 사용하다 보면 조금 잘못 쓸 수도 있죠 있는데 그 금액이 너무 엄청나니까,

○ 의장 유시춘

지금 이사님들이 법관과 검찰이 아니십니다. 지금 검찰 과정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자꾸 왈가왈부하는 게 합당합니까?

○ 이사 류영호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감사님한테 여쭙보는 거예요.

○ 이사 강규형

아니, 여보세요. 지금 검찰과 전혀 상관없다는 예를 지금 들었는데 왜 그렇게 어거지를 피세요?

○ 이사 류영호

감사님한테 제가 여쭙보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해서,

○ 의장 유시춘

이거 이렇게 더 길게 끌고 가실 것입니까?

○ 이사 강규형

검찰조사와 상관이 없다고 지금 실례를 들었는데,

○ 이사 강규형

왜, 왜 그러세요?

○ 이사 류영호

보세요. 이렇게 해서 본인하고 관계되는 것을 제척사유가 있기 때문에 의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 의장 유시춘

제척사유가 아직 결정 나지 않았습니다.

○ 이사 류영호

본인하고 관련되는 의견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의장을 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방해 하시고 하면 되겠어요?

○ 의장 유시춘

아니요. 방해는 지금 누가 하고 계십니까?

○ 이사 류영호

지금 거기 앉아 가지고 계속 방해하잖아요, 지금.

○ 이사 강규형

지금 검찰조사랑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요, 추정은.

○ 이사 조호연

하여튼 반대의견은,

○ 의장 유시춘

이렇게 언제까지 끌고 가실 것입니까?

○ 이사 강규형

아니, 그러면 2017년에 추정을 하지 말든가.

○ 이사 조호연

이사장님, 반대의견 다 들으셨으니까, 그리고 기왕에 했던 얘기를 계속, 계속 되풀이하시니까

○ 이사 이준용

아니, 그럼 검찰에, 범죄자도 검찰, 법원의 판결할 때까지 잡아가면 안 되겠네.

○ 이사 조호연

이제 표결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유시춘

예.

○ 이사 박태경

표결하시죠.

○ 이사 이준용

아니, 논의가 안 됐는데 무슨 표결입니까? 투표용지도 준비, 하나도 없는데.

○ 의장 유시춘

자, 이사회 의결안건 제532호,

○ 이사 류영호

속개된 과정이, 속개된 과정이 인정할 수 없어요.

○ 의장 유시춘

원안 의결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 이사 류영호

그리고,

○ 이사 이준용

아니 뭐, 토론도 안 되는데 무슨 표결이에요?

○ 의장 유시춘

이사국장님은 거수하실 때 해아려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류영호

본인과 관계되는 제척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공정 시비가 있기 때문에 의결한다 해도 이견 문제가 생기고요.

○ 의장 유시춘

예. 나중에 의결, 나중에 법원 판단 가지고 오십시오.

○ 이사 류영호

그리고 그동안 과정에서,

○ 의장 유시춘

자, 그러면 의결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 이사 류영호

몇 분들이 같이 계속 작전을,

○ 의장 유시춘

이사회 의결안건 제532호,

○ 이사 류영호

작전을 세워 가지고,

○ 이사 이준용

아니, 진행할 자격이 없다는데 무슨 의결, 의장이 자격이 없는데.

○ 이사 류영호

작전을 세워 가지고,

○ 의장 유시춘

제8기 EBS 이사회 직무 수행의 연장에 따른

○ 이사 이준용

아니, 의장의 자격이 없단니까.

○ 이사 류영호

손바닥 뒤집듯이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 이런 법이 어딴어요?

○ 의장 유시춘

이사장 직무 수행 연장 확인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하시는 분은 손들어주십시오.

《김선남·문종대·박태경·유시춘·조호연 이사 거수》

○ 이사 이준용

뭘 원안대로 합니까?

○ 이사 류영호

아유, 지금 뭐 장난칩니까, 지금? 손 들고 말고..

- 이사 강규형
장난치세요, 지금?
- 이사 이준용
아니, 이사회가 무슨 거수기야?
- 의장 유시춘
이사국장님!
- 이사 류영호
아이고, 지금, 아이고-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 이사 강규형
아주 그냥 악에 받쳐서 하는 게 참 보기 흉합니다.
- 의장 유시춘
이사국장님, 거수 해아려주십시오.
- 이사 류영호
이거 학급에, 학생들 학급에도 이렇게 안 해요
- 이사 문종대
이사장님이 5명이라고 하면 되지, 선언하면 되죠. 뭐 지금..
- 이사 류영호
교육방송에서 이게 뭐예요, 지금! 교육방송에서 이걸..
- 의장 유시춘
자, 5인이 찬성하셨기 때문에,
- 이사 류영호
하- 참..
- 의장 유시춘
이사회 의결안건 제532호 제8기
- 이사 류영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 이사 강규형

자, 자, 자, 자,

○ 의장 유시춘

EBS 이사회 직무 수행의 연장에 따른 이사장 직무 수행 연장 확인은

○ 이사 류영호

이거 초등학교 학급회의에서도 이렇게 안 해요

○ 이사 강규형

자, 인정 못 하고요

○ 의장 유시춘

원안대로 의결합니다.

((의사봉 3타))

○ 이사 강규형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고,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으니까, 퇴장하겠습니다.

〈 의결안건 〉

【 제531호 :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

○ 의장 유시춘

예, 다음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 이사 강규형

아, 의사진행발언 지금 저 한다는데

○ 의장 유시춘

의안번호 제531호 보수규정

○ 이사 강규형

왜 그러세요?

○ 의장 유시춘

일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이사 강규형

아니, 왜 그렇게 추하게 구세요?

○ 의장 유시춘

정책기획센터장, 상정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 이사 류영호

제발, 제발 이런 식,

○ 이사 강규형

왜 그렇게 추하게 구세요?

○ 이사 이준용

저는 개인 일정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 이사 강규형

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이사 류영호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 이사 강규형

2024년 9월 28일날 연합뉴스 공정보도 노동조합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 의장 유시춘

그 기사 얘기 좀 그만 하십시오 제가,

○ 이사 강규형

기사가 아니라 성명서예요

○ 의장 유시춘

제가 강규형 이사님 성명 나온 거 말씀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 이사 강규형

아이고- 지금 이게 관련돼 있으니까 하는 거죠. 관련 안 되는 거 막 얘기하고 그러다가 뭐 망신당하시고는 왜 그러세요?

○ 의장 유시춘

저는 망신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사 강규형

그건 본인 생각이고, 거기에 EBS 유시춘 이사장의 아들인 신 감독이 대마초 복용으로 재판을 받을 땐 신 감독이 L 재단의 F 이사장의 조카라는 사실이 데스크링 과정에서 증발해버렸다. 그러니까 이거 보도 못 나가게 했다 라는 게 느닷없이 튀어나오고, 지난 6년간 유시춘 이사께서 아들 문제로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도가 수백 건, 수천 건이 나갔는데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해명을 못 하고,

○ 의장 유시춘

예,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 이사 강규형

마지막에는, 뭘 안 들은 걸로 해요? 마지막에는, 아, 지금 불리한 얘기니까 끝지 말라고 지금 박태경 이사께서 지금 코치까지 하잖아요. 아이고- 그-, 전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못 하고 나중에는,

○ 의장 유시춘

그만 하시죠 그만 하시죠

○ 이사 강규형

여보세요

○ 의장 유시춘

좀 그만 하십시다.

○ 이사 강규형

여보세요, 첩피한 줄 아세요

○ 의장 유시춘

전혀 첩피하지 않습니다.

○ 이사 강규형

EBS의 위상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 의장 유시춘

EBS 위상 저, 전혀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 이사 강규형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반성을 하지 못 하고, EBS라고 하는 기관은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도 못 하고, 이런 썩은 기구에서 도대체 무슨 그게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 이사 류영호

아니, 그러니까 다섯 분이 완전히,

○ 이사 강규형

제발 좀 추함을 보이지 마세요

○ 이사 류영호

이거 뭐 작전세력도 아니고.

○ 이사 강규형

그렇게 해서 제가 대안까지 제시를 했는데, 그냥 의장 하시라고 했잖아요, 임시의장. 그런데 계속 그렇게 나가신다고 하니, 아니,

- 이사 류영호
아니, 모아진 의견을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고 이렇게 하는 행위는,
- 이사 강규형
일단 마음대로 하시고,
- 의장 유시춘
위법을, 위법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 이사 강규형
유시춘 이사께서는 지금 이사장이 될
- 의장 유시춘
정책센터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이사 강규형
법과 규정도 없을뿐더러,
- 이사 류영호
정말 우리가 교육방송의 이사로서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 의장 유시춘
보고해 주십시오.
- 이사 강규형
좀 채피한 줄 아세요. 아이고- 정말..
- 의장 유시춘
보고해 주십시오.
- 이사 류영호
아니, 초등학교 학급회의도 이렇게 안 한다고요, 진짜! 왜 이래요, 진짜.
- 정책기획센터장 홍정배
보수규정 일부 개정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사 문종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 정회하시죠.

○ 의장 유시춘

예,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 이사 조호연

정회하시죠

○ 의장 유시춘

((의사봉 3타))

《정회, 기록 중지(15:41)》

《속개, 기록 계속(15:49)》

○ 의장 유시춘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정책센터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이사 류영호

아니, 무슨 보고를 해요?

○ 이사 강규형

뭘 보고해요?

○ 이사 류영호

보고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이사 강규형

뭘 보고해요?

○ 이사 류영호

오늘, 오늘 이 이사회 속개된 과정부터 해서, 또 제척사유가 있는 분이 의장을 맡는다는 그 자체가 저는 불공정하다고 생각되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몇 분, 다섯 분이죠 함께 작전을 짜 와서 이것을 앞에 우리가 함께, 거의 한 달간 의견을 모아진 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형태는 정말 우리 초등학교 학급에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참 유치한 내용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계속해서 연장하라는 법도 없는 것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아니라 손바닥을 들어서 다섯 분이 연장을 시도한 것도 정말 유치하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동호 이사 재입실(15:51)》

특히 유시춘 이사장은 우리가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된 바와 같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분이 계속해서 공영 교육방송의 이사장직을 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난번 결단했듯이 스스로 결단해 주길 다시 한번 축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시춘

네. 정책센터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정책기획센터장 홍정배

예. 의결번호 531호,

○ 이사 류영호

그러면..

○ 정책기획센터장 홍정배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사 신동호

본부장님, 잠깐. 죄송합니다, 센터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는 회의에서 고성 오가는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냥 한 말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자의 입장이 있으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상황이 돼서 이게 절충점을 찾기가 어렵다 라는 건 이미 서로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지난 회의 때 정회를 하고 이렇게 다시 이사회를 속개하게 된 배경에는, 절차적인 부분을 지적을 했던 거였습니다. 말하자면, 앞서 회의 이사회 개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표결로 진행을 하셨는데, 지금 표결로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러면 답은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지난 회의 때 지적했던 부분은 절차적인 문제였고, 그 절차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몇몇 이사분께서, 물론 의결을 한 것은 아님니다만 동의를 해 주셨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이사장의 임기 부분과 관련해서는 임시의장을, 그 임시의장을 호선하는 방법을 택하든 어떤 방법을 택하든, 추천을 하든, 그래서 그분이 진행을 해서 표결을 하게 되면, 표결이야 숫자 많은 분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리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인제, 시간이 지난번에 6시를 지났기 때문에 그런 절차대로 진행하자고 해서 오늘 회의가 다시 속개된 것으로 다들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전혀 아무런 설명 없이 바로 지난번 회의 때 논의됐던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을 하다 보니 언성도 높아지고 이런 지금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앞서 문종대 이사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사장의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은 또 새로운 어떤 안건으로 올려서 논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야 언제 어느 때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사실은 이 안건은 이렇게 시끄러울 일이 아니고,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하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물의를 일으킬 일도 아니었습니다. 또 이사들 간에 이렇게 언성을 높이거나 얼굴을 붉힐 일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각자의 입장을 너무 완고하게, 강경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 이렇게 좀 남 보기에 부끄러운 지경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류 이사님도 지적하셨지만, ‘정말 초등학교 학급회의도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저는 상당히 가슴 아프게 들었습니다.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또 토론할 것은 토론하되, 절차를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제척 사유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지 아닌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적어도 우리가 논의했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약속을 지켜서 진행이 됐다면, 저는 이 부분은 5분 안에 모든 게 정리되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짚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습니다만 당시 ‘박태경 이사께서 임시의장을 맡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몇 분이 동의하신 것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박태경 이사께서 임시의장을 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절차 과정에 결론을 내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논의를 했습니까. 약 3시간 가까이 그 부분을 도출하는 데까지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갑자기 오자마자 ‘그것은 법과 규정에 없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이걸 지난 3시간 동안 우리가 뜨겁게 논의했던 걸 완전히 무시한 조치가 되는 것이어서 그런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이 표결을 하고,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이런 절차로 진행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법과 규정에는 부합하지 모르겠으나, EBS 이사회의 일원으로서는 참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극한 대립으로 가거나 극단적 어떤 결론을 도출하자 라는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EBS 이사회에서 EBS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이사들이라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논의를 몰고 가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강압적으로 진행해서 표결 조치를 취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했다 한들 그것이 뭐가 그렇게 떳떳한 일 이겠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강력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고요. 이 시간 이후로 오늘 회의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건 저는 제 한 표와 상관없이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이사회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어떤 표결에도 참여할 의사가 없고 어떤 논의에도 더 이상 말을 보탬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 이사회 참여한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만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 이사 류영호

예. 저도 이사장으로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의장을 맡는 데 대해서 인정할 수 없어서 더 이상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 이사 이준용

동의합니다.

《류영호·신동호·이준용 이사 퇴실(15:58)》

○ 이사 강규형

저 제가 한 마디 하고 저도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호 이사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저는 감동을 받아요. 역시 우리나라 최고의 아나운서였고, 시사 토론을 오랫동안 하셔서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돼지 목에 진주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정말 진주 같은 말씀을 하는데, 그게 아마 여러분들처럼 지금 막무가내로 나가는 분들 귀에는 들리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신동호 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신동호 이사님이 첫 출근하는 날 소감을 얘기를 했는데, 그때 마침 당시 유시춘 이사장께서 퇴진 시위가 있으니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신동호 이사께서 하신 발언을 못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와도 100% 관련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여기 제가 더 더할 것도 없고, 이걸 EBS 전체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하니깐 차분하게 좀 들어주십시오.

‘저에 대해서는,’ 신동호 이사님 발언입니다. ‘오늘 이렇게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과연 최근에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유 이사장님과 관련해서는 우리 EBS 소속돼 계신 분들이 어떠한 문제제기를 했는지가 사실 오늘 저는 첫 이사회에 참여하면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닉슨의 워터게이트는 잘 아시다시피 도청 그 자체보다는 그 이후의 거짓해명들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BS 이사회의 이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직보다, 특히 교육 방송의 특성상 상식에 부합해야 되고, 또 진실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에게 능력의 부족을 문제 삼는다면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런 정치적 선동과 왜곡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유시춘 이사장께서는 능력 여부를 떠나서 거짓해명과 왜곡에 대해서 끊임없이 허황된 반박과 침묵, 이런 것들이 과연 EBS 이사회 이사장이라는 엄중한 자리에 계신 분으로서 적절한 것인가. 이것 저는 오늘 첫날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엄중한 이사장이라는 자리를 개인의 어떤 정치적 성향과 또 목적을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해명을 하고, 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말로 회피하고, 이러한 것은 반드시 지적돼야 하고 바로잡혀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 좋은 이야기와 덕담은 차차 나누기로 하고, 저는 지금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져 있는 시급한 EBS의 위상을

허무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이사님들과 함께 협의, 논의해서 좋은 발전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 이사장님께 전혀 개인적인 감정 없습니다. 또 유 이사장님의 개인적인 사정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말 못 할 아픔도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 제가 공적인 이사로 참여했기 때문에 고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한 마디 빼고 더할 말도 없습니다.

유시춘 이사님, 본인도 창피하니까 그렇게 과민반응 일으키는 거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시지는 마셔야 되고, 추합니다. 그리고,

○ 의장 유시춘

저에게 이제 훈계까지 하십니까?

○ 이사 강규형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추합니다.

○ 의장 유시춘

저는 하나도 추하지 않습니다.

○ 이사 강규형

그렇게 웃는 것조차도 참 추해요.

○ 의장 유시춘

저는 이사님이 추합니다.

○ 이사 강규형

참.. 동생 얘기 좀 들으시고요. 정말 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 의장 유시춘

그만 하시죠. 끝났습니까?

○ 이사 강규형

아니, 대답도 못하시면서 뭘 그렇게,

○ 의장 유시춘

왜 대답을, 대답을 안 하는 것입니다. 질의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 이사 강규형

아니, 지금,

○ 의장 유시춘

정답을 안 하는 것입니다.

○ 이사 강규형

질의하는 게 아니라 발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명 한 마디도 못 해요.

○ 의장 유시춘

안 하는 겁니다.

○ 이사 강규형

나중에는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습니다.’라는 희대의 망언을 쏟아내는 분이,

○ 의장 유시춘

질의가 온당치 않으면

○ 이사 강규형

EBS 이사장의,

○ 의장 유시춘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 이사 강규형

아, 조용히 하세요! 지금 저 발언 중입니다!!

○ 의장 유시춘

저의 태도입니다.

○ 이사 강규형

저 발언 중입니다.

○ 의장 유시춘

너무 겁니다. 줄여주십시오.

○ 이사 강규형

제가 줄여드릴게요.

○ 의장 유시춘

예.

○ 이사 강규형

이사장직을 좀 줄이시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저는 임시의장으로 계속, 해도 된다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것조차도 그렇게, 이렇게 몽개버리고, 어떻게 전번 회의에서 합의된 거를 하루 아침에 이렇게 다 엎어버리고 무효화할 수가 있습니까? 사장님, 제발 좀 인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저 이러는 거, 이거 저.. 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EBS 구성원들, 지금 신동호 이사님이 하신 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떳떳하지는 못할 겁니다. 잘들 하세요. 챙피한 걸 알아야지, 사람들이.

《강규형 이사 퇴실(16:03)》

○ 의장 유시춘

본인이 퇴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본인이 말씀하신 한 5%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 9월에 여기 와서 6년 있으면서, 세상이 안다면 아는 민주화 운동권의 핵심에 있었습니다만 단 한 번도 맹세컨대 저의 정파적 유·불리를 생각하거나 그런 언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오로지 생각한 것은, 이 EBS의 빈약한 공공재정을 확충하고, 어떻게 수도권이 아닌 저 멀리 사는 기회의 평등을 부여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고품질의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만 오로지 제가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리고 제 입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시다만 재정 확충과 고품질의 콘텐츠 생산에 상당 부분 제 몫도 있습니다. 전 집행부와 현 집행부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이렇게 부도덕하고 추하고 도덕심이 없는 사람으로 맹폭을 하는 저 의견에 대해서는 추호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도덕적으로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습니다만 강규형 이사님이 발언하시는 내용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시는 많은 분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장된 이사회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그 누구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모쪼록 저는 이 연장된 8기 이사회가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법과 규정에 반하는 일을 제가 앞서서 할 수는 없어서 이런 혼선과 소란이 있었던 점을 반성하고 여러 집행부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센터장, 상정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 정책기획센터장 홍정배

의결번호 531호입니다.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2024년 체결된 노사 협상 결과를 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방송 수당 인상입니다. 현재 방송 수당은 본봉의 20.5%로 지급되고 있으나, 이를 본봉의 21%로 인상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강규형 이사 재입실(16:07)》

《강규형 이사 퇴실(16:07)》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의 부칙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9월부터 시행하되,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EBS의 재정계획과 운영에도 무리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노사 간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경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수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시춘

예, 의견 주십시오.

○ 이사 문종대

문종대 이사입니다. 먼저 네 분이 안전에, 532호 안전 결의에 대해서 반대해서 퇴장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안전은 그 안전이고, EBS 이사회 발전에 관련되는 안전은, 관련된 안전은 대단히 중요한 안전인데, 그 안전을 빌미로 해서 EBS의 중요한 안전들에 대한 처리 없이 나간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번에도 보고를 받았기는 했을 것 같은데, '24년, 만약에 기존의 20.5%에서 21%, 0.5% 정도 올리게 되면 연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추가되는지 좀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 정책기획센터장 홍정배

예. 방송수당을 0.5% 정도 인상하면 연간 한 4억 정도 추가적으로 더 인건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사 문종대

예, 고맙습니다.

○ 의장 유시춘

거기 덧붙여서요. 한 4억 정도 추가되는데, 혹시 제가 외부에서 모니터링한 정보들을 생각해 보면, 프리로 있는 프리PD를 비롯해서, 또 프리한 방송작가들 등등등등이 다른 B사나 D사에 비해서 EBS가 굉장히 좀 낮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보는데, B사에 비해서 우리 EBS가 이렇게 본봉의 20.5%를 지금 21%로 상향 조정하고 거기에 추가금액이 4억인데요. EBS의 수준이 과연 B사에 비해서 이 방송수당 하나만으로 놓고 볼 때도 어느 정도 낮습니까, B사와 비교해서?

○ 정책기획센터장 홍정배

B사의 방송수당과 EBS의 방송수당..

○ 의장 유시춘

예.

○ 정책기획센터장 홍정배

사실 B사가 방송수당을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전체 인건비성으로 직원 1인당 지급되는 연봉으로 해서 EBS가 보통 B사의 몇 %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0%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유시춘

예. 또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제시하는 이사 없음]

○ 의장 유시춘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이사들 있음]

이사회 의결안건 제531호 「보수규정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합니다.

((의사봉 3타))

< 보고안건 >

【 제2024-17호 : 2024년도 9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

○ 의장 유시춘

다음 안건 의안번호 제2024-17호 「2024년 9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책기획센터장, 안전 보고해 주십시오.

○ 정책기획센터장 홍정배

2024년 9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은 특히 내부 효율화와 외부 협력 강화를 중점으로 추진한 여러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2023회계연도 원가 분석 결과 발표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0일에 2023회계연도 원가 분석 결과를 전사 설명회를 개최하여 직원들과 공유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모든 직원들이 EBS의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이해하고, 앞으로 비용 절감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2024년도 제1차 공사발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EBS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노사가 서로 상생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실무소위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노사 상생협의체에 대한 부분은 지금 노조가 조금 부담스러워 하여서 일단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실무소위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먼저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3번 사항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대응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모의평가는 9월 4일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EBS는 현장교사단과 교육부 기자 브리핑을 운영하였고, 당일에는 TV 생방송과 풀 서비스를 통해 수능 대비 전략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모의평가 풀 서비스 이용자는 전년도 대비 45.4% 증가하였고, 페이지뷰 역시 42.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번 사항입니다. 9월 23일부터 12주간 경기영상과학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EBS 현장 실습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양시와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며, 총 1억원 규모의 위탁교육비가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5번 사항입니다. 9월 12일에는 서울교대와 함께 사우디 교육 활성화 프로젝트 관련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사우디 교육 사업 제안 프로젝트 TFT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6번 사항입니다. 9월 신규 프로그램으로는 특별 생방송 9월 모의평가 분석과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히 <나의 두 번째 교과서>는 경제, 과학, 국어, 미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깊이 있는 교양지식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음 7번 사항입니다. 운영자금 차입 연장 계약에 관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말 만기가 도래하는 100억원 규모의 일반 운영자금 대출을 2025년 1월까지 4개월 연장하는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시중 금리 변동에 맞춰 차입 규모를 재설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 사항입니다. 전기차 전용 구역 설치 계획입니다.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를 폐쇄하고 지상에 전용 구역을 설치하여 충전과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공사는 11월 중순까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9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김선남

제가 말씀해 드려도 될까요?

○ 의장 유시춘

예. 김선남 이사님, 말씀하십시오.

○ 이사 김선남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2번 사항과 관련한 겁니다. 2024년도 1차 공사발전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건데요. 그러면 EBS 중장기 발전을 위한 노사상생협의체는 아직 세팅이나 일정 같은 것들이 안 됐다 라는 의미이겠어요.

○ 정책기획센터장 홍정배

노사 공사발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회사에서 노조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EBS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노사 상생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같이 머리를 모아서 고민을 하자고 했는데, 노조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집행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집행부에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차기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조금 부담스러워 해서 그 부분을 일단은 좀 유보가 된 상황입니다.

○ 이사 김선남

그러면 이제 주 4.5일제 관련한 공사발전위원회 실무소위는 구성이 되었다 라는 뜻이죠?

○ 정책기획센터장 홍정배

예.

○ 이사 김선남

그럼 어떤 분들이 주로 여기에 주로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됩니까?

○ 정책기획센터장 홍정배

실무소위원회는 지금 정책기획센터장하고요, 그다음에 정책기획부장, 그리고 인사부장이 회사에서는 참여를 하고요. 노조에서는 수석부위원장, 그다음에 사무처장, 그리고 부위원장 한 분 해서 세 명씩 구성을 하는 걸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사 김선남

서로가 합의가 된 거죠?

○ 정책기획센터장 홍정배

예.

○ 이사 김선남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유시춘

또 말씀해 주십시오.

○ 이사 박태경

질문 있습니다.

7번 차입 약정 연장, 이것은 보통 이자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다른 대출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 경영지원센터장 곽태규

제가, 경영지원센터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100억 일반운용자금 대출이자 4.68%였는데, 지금 이자율이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서 4개월 연장하면서는 4.29%로 지금 계약을 했고요. 앞으로 연말까지 최대 대출이 200억 정도, 그다음에 평균적으로는 월 평균으로는 한 150억 안팎으로 대출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지금 연말에는 내년 1월, 내년 1월에, 사실은 4개월 연장한 이유도 기존의 300억원짜리 단기 한도 대출도 1월달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1월달에 다시 갹신하게 돼 있는데 그 기간을 맞춘다는 의미도 있었고요. 그래서 1월달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금리 현황이라든가 이것 좀 더 검토해서 좀 다시 전체적인 재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사 박태경

그리고 이걸 여기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는 없는 건데요. EBS에서, 우리 EBS에서 서울시 교육감 후보 토론이 지금 계획 중이죠. EBS에서 대단히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전투표가 오늘부터인가요, 내일부터인가요?

○ 편성센터장 김광호

내일부터입니다.

○ 이사 박태경

예. 그런데 좀 더 일찍 이게 준비될 수는 없었을까요? 너무 받게 하니까 좀 영향을 줄지 않을까 싶어서요.

○ 편성센터장 김광호

예. 그게 이전에도 EBS 같은 경우는 교육 관련 선거는 토론회를 주관할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들이 난립하다 보니까 그게 여의치 않았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M 후보 쪽에서 진보 단일화가 시도됐지만 한 분께서 그거를 반대하고 지금 같이 병행해서 나오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퀘스천을 갖고 계셨습니다, 토론회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다가 선관위 주관 B사 토론회가 N 후보 혼자 모시는 걸로 결정 내는 바람에 캠프 쪽에서도 EBS 토론회에 적극적인 자세로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 서부터 추진을 하고 고민을 했지만 그런 맥락과 환경이 있어서 지난주에 전격적으로 확정되고, 그래서 지금 뉴스부에서 주관할 하고 방송제작본부에서 협업하는 형태로 내일 생방송 토론회가 열리는 걸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 의장 유시춘

또 의견 있으실까요?

[의견 제시하는 이사 없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저께인가요? <세계테마기행>을 보던 친지 두 사람이 동시에 전화를 했어요. 박칼린이 진행하는 잘츠부르크였는데, 두 분의 말씀이 다 똑같았습니다. ‘전문성도 있고 대중성도 갖추어지고, 또 재미도 있고, 그래서 이런 <세계테마기행>이 너무나 좋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오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중에 한 분은 문학을 하시는 분이었고 한 분은 음악 오페라 전공이셨던 분이었는데, 문학을 하시는 분은 우리 작년 제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한시기행’이라는 거 있었죠? 그거에 굉장히 심취하셨던 분도 있었구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건데, 우리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영미 시를 윌리엄 워즈워드

‘무지개’부터 시작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전문성과 대중성과 재미를 두루 갖춘 <세계테마기행>이 오래도록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게 테마를 정하면 무궁무진하게 뻗어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좀, 물론 시청률도 '22년도엔가요, 그때 Top7인가 했었어요, 그때. 그때 이제,

○ 편성센터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 의장 유시춘

예. 해외로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대리충족을 하느라고 더 많이 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 역시 그 <세계테마기행>이 음악, 문학, 기타 예술 등등 해서 장르별로 하면 얼마든지 더 높은 전문성과 재미와 유익함을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더 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사항을 가졌습니다. 그 두 분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시청률에 목을 매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두루두루 장점을 갖춘 종합적으로 유익한 프로그램이, 대중성과 전문성을 함께 갖춘다는 게 참 어려운 일 인데요. 참 그 선정하는 진행자도 그렇고 참 잘 선택을 해요, 보면. 그래서 이거 무궁무진 하게 발전을 더 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문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구미의 여러 중·고등학교에 나왔던 시인들의 시, 그리고 이니스프리 호도에 직접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서 이렇게 청취율이 높은, 시청률이 높고 시청자의 호감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더욱더 더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두 분에 한 분은 오페라 전공이고 한 분은 시인이었는데, 굉장히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흡족했었습니다. EBS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 편성센터장 김광호

감사합니다.

○ 이사 박태경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오늘 아침에 B사 채널을 보니까 <맛터사이클 다이어리>에 나왔던 신계숙 교수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테마기행>에 나오는 그런 프리젠테이션 그런 식으로 여러 사람을 개발을 해 갖고 우리가 출연자 층을 확충시키는 것도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편성센터장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 이사 문종대

사우디 교육 활성화 프로젝트 관련해서요. 콘텐츠 제공 및 제작업무 협약을 맺는다고 돼 있는데, 이거 진행 상황과 기대 효과를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 편성센터장 김광호

사우디 교육부 차관께서 서울교대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우리나라 교육부 통해서 같이 방문을 하셨는데요. 사우디가 어떤 문제를 지금 현재 안고 있냐 하면, 일반 국민들의 선진 교육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특히 교사 양성 부분하고요, 그리고 워낙 땅덩어리도 넓고 사막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쪽 교육을 어떻게 진흥시킬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교대에서 EBS의 <위대한 수업> 통해서 제안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 사우디 교육 진흥에 EBS와 교대가, ‘서울교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출을 하자.’ 이런 MOU로 기대하시면 좋을 것,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제안이 저희가 프로젝트를 꾸려서 사우디 쪽에 제안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갖고 저희한테 시한을 정해 오פר를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되면 서울교대에서는 교사 양성에 대한 오프라인·온라인 교육들을 담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유관된 온라인 교육 콘텐츠들을 저희 쪽에서 일부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사 김선남

한 가지 더 궁금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시춘

예, 김선남 이사님 말씀하십시오.

○ 이사 김선남

6번 항의 두 번째 항목입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신규 편성 관련한 건데요. 마지막 부분에 작은 글씨로 방송과 동시에 도서 출판 예정이라고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부연설명..

○ 편성센터장 김광호

저희가 강의 프로그램의 장점이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강신주의 장자 수업>에, 완전 초히트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시청자에 대한 인지도도 굉장히 높게 결과들이 나와서요. 그걸 응용한 프로젝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는 강의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강의 프로그램이 나간 후에 그 강사와 협업을 해서 책을 내는 게 보통 프로세스였는데, 그럴 경우에는 방송과 출간 시기가 떨어져 있어서 방송의 어드벤처지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출판사를 정해 가지고 협업을 시작을 했고요. 다만, 원래 계획은 9월 23일서부터 이제 방송을 내보내고 책을 같이 내려고 했는데 이게 한 11월쯤으로 조금 밀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방송 나가는 것들을 연이어서 재방송 편성을 해서 책이 나올 쯤에 방송 효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서 책을 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 이사 김선남

그러면 저작권 문제랄지 유통 문제, 그리고 또 문화적 가치는 높겠죠?

○ 편성센터장 김광호

예.

○ 이사 김선남

경제적 가치 효과..

○ 편성센터장 김광호

예. 원래 사장님 취임하시면서 출판을 직접 운영하는 걸로 꾸렸다가, 생각보다는 손익이 많이 남지를 않아서 올해서부터 대행출판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출판 기능을 학교본부와 통폐합, 통합을 해서 효율화를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행 체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행출판사를 선정을 해서 EBS 브랜드 저작권료로, 제가 요율까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저희가 한 10% 정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책이 많이 나가면 저작권 요율만큼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방송을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서 효과를 높이하고자 합니다.

○ 의장 유시춘

또 질의사항 있으실까요?

[질의하는 이사 없음]

사장님한테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5번에 서울교대하고 MOU 체결하셨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그때 글로컬 대학하고도 많이 하셨잖아요.

○ 사장 김유열

예.

○ 의장 유시춘

앞으로 전망은 어떠신가요?

○ 사장 김유열

지금 사실 그저께도 부산에 다녀왔는데, 두 가지를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하나는, 지역상생 해서 지자체하고 협력을 강화하겠다 라는 말씀 한번 드렸고, 두 번째는, EBS가 초·중·고 중심의 콘텐츠와 서비스를 주로 해 왔는데, ‘고등교육인 대학 카테고리를 개척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보고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편성센터 중심으로 해서 고등교육 부분인 대학과 계속해서 협력 관계를 강화를 해서, 아마 올해에 이미 한 20억 정도의 계약이 체결이 돼 가는 것 같고, 지금 서울교대는 아직 구체적인, MOU여서 사업 계약, 그러니까 돈이 오가는 그런 계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EBS가 어쨌든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고등교육 영역인 대학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교두보는 구축이 됐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꽤 대학에서도 EBS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총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공감을 하고, 굉장히 여러 총장님들을 만나보고 지금 열심히 편성센터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시장 개척이고요. 또 EBS의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초·중·고에서 대학 영역을 새롭게 서비스, 공적 서비스를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올해서부터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시춘

다행입니다.

이 보고안건에 대해서 더 의견이 있으실까요?

[의견 제시하는 이사 없음]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이사들 있음]

보고안건 제2024-17호 「2024년 9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청취하고 원안대로 접수합니다.

((의사봉 3타))

Ⅲ. 전차 의사록 확인

○ 의장 유시춘

그리고요, 제가 회의의 효율을 위해서 여태까지 해왔던 것과는 다른 회의 진행 절차를 밟았는데 사전 양해가 없었음에 대해서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전차 의사록 확인 절차를 지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2일 개최된 제350,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이사장님, 죄송합니다만 의사록에는 아홉 분의 이사님들 의견들이 다 함께 좀 수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번, 다음번,

○ 의장 유시춘

어?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다음번 이사회 때 확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사록은.

○ 의장 유시춘

전차 의사록 확인이요?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예, 다음번.

○ 의장 유시춘

그리고 그 이후에 것도 정리 안 된 것도 있죠?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예. 다음번에, 예.

○ 의장 유시춘

그것도 함께 해서 그러면 다음 이사회 때 전차 의사록 2개를 한꺼번에 하도록 할까요?

○ 이사회사무국장 최남숙

예.

○ 의장 유시춘

그래도 되겠죠?

[“예.” 하는 이사들 있음]

그러면 다음 이사회 때 전차 의사록 2개를 한 번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II. 인 사

○ 의장 유시춘

그리고 모두에 하려고 했던 저와 사장님의 인사말씀 겸 정리 말씀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9월 26일 이사회 개최 전에 너무나 돌발적인, 저의,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이사분들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이준용 이사님의 돌발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사실 무척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제시 책슨의 유명한 말처럼 새는 두 날개가 건강해야 멀리 높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와 다른 생각과 의견에 대해서 경청하고 숙고해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늘 주문하면서 그런 태도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생각과 의견에 대해서 경청하고 숙고해야 된다는 이 지극히 타당한 명제에 짓눌려서 제가 지난번엔 회의에서 혼선을 야기한 것 같습니다.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고 또 반성합니다.

26일 이후에 제가 너무 놀라서 여러 전문가에게 법률 자문과 해석을 구했습니다. 변협의 법제위원, 민변의 미디어 이사회 등등. 그러나 이분들의 의견은 한결 같았습니다. 저희 정관과 법을 보고 임시이사회가 아닌 8기 이사회의 자동 연장이 맞고, 이사장 또한 동일하다는 얘기를 이분들에게 했을 때 과연 이것을 수용해 주실 것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6일 같이 진행을 한다면 끝없이 지속되는 이견만 더 강고해질 것이고, 우리의 어떤 마음의 벽만 점점 더 두꺼워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처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너무나 유감스러운 일은, 여러분이 추측하는 어떤 이사께서 버젓이 단독방에 D사가, D사도 새로 선출을 했다는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말씀드린들 그것이 과연 수용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의결로 가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혹시 좀 무리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의결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의에 의해서 연장된 8기 이사회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빨리 정상화되기를 기대하면서, 타의에 의해서 주어진 직무 연장이기는 하나 전과 다름없이 EBS를 사랑하고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집행부 여러분께서 저의 이런 입장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사 조호연

예. 방금,

○ 의장 유시춘

그러면, 예.

○ 이사 조호연

한 말씀만..

○ 의장 유시춘

예.

○ 이사 조호연

방금 이사장 말씀을 좀 하셨는데, 뭐 다 지켜보셨다시피 대화를 이룰테면 안건을 내놓고 그 안건에 대해서 찬성 토론과 반대 토론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협상하거나 또 말을 해서 이것이 어떤 합의나 결론에 이르지 못한다면, 민주주의가 다양성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표결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강행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아주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오늘 상황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다들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상입니다.

○ 의장 유시춘

혹시 이사분 가운데 또 정리 말씀이 있으실까요?

[의견 제시하는 이사 없음]

그러면 사장님, 모두의 인사말씀을 못 하셨는데 그동안에 진행된 사안이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장 김유열

예. 오늘처럼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EBS 이사회는 제가 젊었을 때부터 배석자로 들어오면서 사실은 의견의 차이는 있었지만 최근과 같은 일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황했고, 여기 배석한 집행부 임직원들도 좀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EBS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일에 종합감사를 마무리하면 사실은 본격적으로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기획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지금 조금씩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11월달서부터 이사회 간담회를 통해서 이사님들의 경영에 대한 의견도 저희들이 들어서 내년도의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내년도 1년을 좌우할 계획이

이제 11월, 12월 두 달 안에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쪼록 이사님들이 과거 EBS의 저거처럼 다시 원팀이 되어서 집행부에 좋은 말씀도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어떻게 보면 집행부 입장이 굉장히 어정쩡하고 애매합니다만 이사님들이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데 제가 미력이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사님들 함께 마음으로, 또 때로는 지원을 해 주셔서 여기 집행 간부들하고 해서 EBS에 중요한 일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사회에서 그런 논의가 원만하고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저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기꺼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지금 이사님들도 다 침울하지만, 사실 EBS는 그동안에 이사님들이나 임직원이 애써 노력한 덕분에 올해 흑자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말 현재 수지 상황을 체크를 했습니다. 6월 말 통계 때 이사회에서 11억 적자가 전망이 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한 달 사이에 다행스럽게도 27억이 수지 상황이 개선이 돼서 지금 7월 말 현재로는 연간 적자 전망이 16억 정도 흑자 전망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전망치가 흑자로 전환된 것은 정말로, 실제로는 또 어떤 어려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방송산업 전체 가운데 어쨌든 어렵고 1년 가까이 노사의 갈등 이런 가운데 흑자로 전환이 된다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여지고 구성원들한테도 또 임단협을 통해서 격려금을 줄 수 있게 체결을 했기 때문에 흑자 폭이 커지면 연말 연시에 굉장히 EBS를 둘러싼 여러 가지 암울한 분위기가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망뿐만이 아니고 실제 16억 이상 플러스알파로 흑자가 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 임직원들이 연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님들이 1년 동안 정말 많이 사실은 집행부를 지원해 주셨고, 또 그래서 이러한 결실도 가능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한편으로 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연말연시에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시춘

예. 참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11억 적자에서 16억 플러스알파의 흑자 전환이 되기까지는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왜 직원들인들 편차가 있을망정 양보가 없었겠습니까. 양보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수지 상황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임원 여러분께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또 의견 있으실까요?

[의견 제시하는 이사 없음]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마디만 더 덧붙이면, 제가 '18년 9월 부임해서 지금까지 6년 남짓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고요. 심지어 7기, 8기 1년 남짓은 오히려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과 더 친밀하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극한적인 언사까지 오게 되는지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우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사님들의 EBS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도와주시는 여러 손길들을 제가 느낍니다. 언제까지 될 수가, 될지 아무도 모르겠으나,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직분을 수행하는 동안은 초심에 변함이 없이 EBS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끝없이 사랑을 쏟아 붓겠습니다.

(폐회 : 16시 44분)

V. 폐 회

○ 의장 유시춘

그럼 이상으로 폐회하겠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제360회 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고맙습니다.

《 산 회 》